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10-29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Gap) 해소방안 및 효과연구

이 보고서는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Gap) 해소방안 및 효과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행복한학부모재단

책임연구원 : 강소연(행복한학부모재단 본부장)

공동연구원 : 이정호(행복한학부모재단 사무총장)
안선회(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임 걸(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윤혜순(한국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안성철(염강초등학교 교장)

연구보조원 : 김진희(행복한학부모재단
장연이(행복한학부모재단 팀장)
정귀윤(행복한학부모재단 팀원)
정수정(고려대학교 조교)
고유정(고려대학교 조교)

Contents 목 차

요약 xiii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21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23
   1) 사회 변화의 주요 추세와 교육적 요구 ····· 23
   2)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39
2.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보격차 ····· 44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 44
   2) 정보격차와 해소활동 ····· 46
3.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방법 ····· 51
   1)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 ····· 51
   2)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 52
   3) 자기주도학습의 교육적 효과 ····· 52
   4) 자기주도학습과 부모의 지원 ····· 53
4.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 분석 ····· 55
   1) 선행연구 사례 ····· 55
   2) 선행연구 사례의 시사점 ····· 60

Ⅲ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국내 정책사례 ····· 62
   1) 초기 정보격차 해소활동 ····· 62

2) 최근 정보격차 관련정책 현황 ····· 66

2. 주요국가 정책사례 ····· 70
1) 미국 사례 ····· 70
2) 일본 사례 ····· 78

Ⅳ 연구 방법

1. 연구 개요 ····· 86
1) 연구 대상 ····· 86
2) 연구 절차 ····· 89

2. 연구 문제 ····· 95
1) 연구문제 1 ····· 95
2) 연구문제 2 ····· 95
3) 연구문제 3 ····· 95

3. 연구 모형 ····· 96
1) 사전 교육 ····· 96
2) 학습자료 지원 ····· 96
3) 자기주도학습 수행 ····· 96
4) 학습일지 작성 ····· 97
5) 학습일지 피드백 ····· 97

4. 방법론 ····· 98
1) 연구 대상 ····· 98
2) 연구 환경 ····· 98
3) 연구 도구 ····· 99
4) 연구 방법 ····· 101

Ⅴ 연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 106
1) 미디어 활용현황 ····· 106
2) TV관련 실태 ····· 108
3) 디지털 케이블 TV 관련 ····· 114

2. 연구처치 결과 ····· 116
1) TV 시청시간의 변화 ····· 116

2) 매체 태도의 변화 ····· 117
3) TV활용 선호도 및 만족도 변화 ····· 120

3. 학습일지 결과 ····· 134
1) 개요 ····· 134
2) 결과 ····· 134

4. 학부모-학생 인터뷰 결과 ····· 139
1) 태도 변화에 대한 결과 ····· 139
2) 이해 및 활용 변화에 대한 결과 ····· 142
3) 학부모 역할과 활동 ····· 145
4) 제언사항 ····· 146

5. 표적집단 인터뷰 결과 ····· 147
1) 연구문제 1 관련 결과 ····· 148
2) 연구문제 2 관련 결과 ····· 149
3) 연구문제 3 관련 결과 ····· 151

6. 연구결과의 시사점 ····· 152
1) 연구문제 1 결과의 시사점 ····· 152
2) 연구문제 2 결과의 시사점 ····· 154
3) 연구문제 3 결과의 시사점 ····· 156

Ⅵ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방안

1. 해소방안의 원칙 ····· 158
1) 제1원칙 ····· 158
2) 제2원칙 ····· 160
3) 제3원칙 ····· 161
4) 제4원칙 ····· 162
5) 제5원칙 ····· 164

2. 가정에서의 노력 ····· 165
1) 가정 내 미디어격차 및 문제점 ····· 165
2)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방안 ····· 167

3. 학교에서의 노력 ····· 169
1) 교사의 인식 전환 ····· 169
2) 미디어 교육 ····· 170
3) 학교의 가정지원 ····· 170

4) 방과후 학교 활용 ····· 171

4. 디지털 케이블 TV업계 개선방안 ····· 172
1) 매체 교육 및 홍보 ····· 172
2) 최적의 교육내용 제공 ····· 172
3) 뉴미디어 적극 활용 ····· 173

5.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 174
1) 인식 전환 및 거버넌스 구축 ····· 174
2) 국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 ····· 176
3) 최신 교육학습모델 개발 및 보급 ····· 179
4) 미디어격차 해소 및 미디어중독 예방·치료 노력 병행 ····· 181
5) EBS 활용 학습지원체제 구축 ····· 182
6) KDRB 구축 ····· 184
7) 유러닝 교육 확대 지원 ····· 188
8) 유러닝지원법 제정 및 저작권 문제 해결 ····· 188
9) 취약 계층 유러닝 접근성 제고 ····· 190

Ⅶ 결론

1. 요약 ····· 192

2. 제언 ····· 193

참고문헌

부록

1. 학부모-학생 시청 프로그램 안내 예시안 ····· 202

2. 자기주도학습일지 예시안 ····· 203

3. 사전검사 설문지 ····· 204

4. 사후검사 설문지 ····· 218

5. 학부모-학생 인터뷰 프로토콜 ····· 229

6. 교사 표적집단 인터뷰 프로토콜 ····· 232

Contents

표 목 차

<표 II-1> 전통적인 학교교육체제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비교 ····· 40
<표 II-2> 각국 정보격차 관련 개념 ····· 46
<표 III-1> 직업별 정보격차 현황 ····· 63
<표 III-2> 소득별 정보격차 현황 ····· 64
<표 III-3> 연도별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수준 ····· 67
<표 III-4> 미국의 정보격차 완화 현황 : 소득분포에 따른 인터넷 이용 증가율 ····· 73
<표 III-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 및 관련법 ····· 74
<표 III-6>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 76
<표 III-7> 미국의 2001년도 정보격차 해소 예산안 ····· 77
<표 III-8> 설문조사 결과 ····· 81
<표 III-9> 연구실천 협력교 현황 ····· 83
<표 IV-1> 연구대상 학교 일반현황 ····· 87
<표 IV-2> 연구대상 학교 전입 및 전출 현황 ····· 88
<표 IV-3> 연구대상 학교 실태 ····· 88
<표 IV-4> 인터뷰 참가자 배경 ····· 104
<표 IV-5> FGI 참가자 배경 ····· 105
<표 V-1> 미디어 활용실태 기술통계 결과 ····· 106
<표 V-2> 미디어 활용실태 차이검증 결과 ····· 107
<표 V-3> 태도 관련 질문 기술통계 결과 ····· 107
<표 V-4> 태도 관련 질문 차이검증 결과 ····· 108
<표 V-5> 디지털 케이블 TV 시청여부 현황 ····· 115
<표 V-6> TV 시청시간 변화 기술통계 결과 ····· 116
<표 V-7> TV 시청시간 변화 차이검증 결과 ····· 117
<표 V-8> 미디어 기기 관심정도 변화 기술통계 결과 ····· 117
<표 V-9> 미디어 기기 관심정도 변화 차이검증 결과 ····· 117
<표 V-10> 미디어 기기 작동 수월성 변화 기술통계 결과 ····· 118
<표 V-11> 미디어 기기 작동 수월성 변화 차이검증 결과 ····· 118
<표 V-12> 미디어 기기 활용 자신감 변화 기술통계 결과 ····· 119
<표 V-13> 미디어 기기 활용 자신감 차이검증 결과 ····· 119
<표 V-14> 미디어 기기 필요성 인식 변화 기술통계 결과 ····· 120
<표 V-15> 미디어 기기 필요성 인식 차이검증 결과 ····· 120

<표 V-16> TV 미시청 이유 학생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21
<표 V-17> TV 미시청 이유 학부모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22
<표 V-18> 학생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24
<표 V-19> 학부모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25
<표 V-20> 학생 대상 TV 시청 효과인식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27
<표 V-21> 학부모 대상 TV 시청 효과인식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28
<표 V-22> 학생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29
<표 V-23> 학부모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 130
<표 V-24> 학생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 통계 결과 ····· 132
<표 V-25> 학부모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 통계 결과 ····· 133
<표 VI-1> 세계 e-러닝 시장의 권역별 규모 및 성장추이 ····· 164
<표 VI-2> 뉴미디어 발전 방향 ····· 173
<표 VI-3> 방과 후 영어 온·오프 블렌디드학습 진행방식 ····· 184

Contents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스마트 모바일 활용 격차 해소방안 ····· 18
[그림 Ⅰ-2] TV의 변신 혹은 진화 ····· 19
[그림 Ⅰ-3] 연구 추진체계 ····· 21
[그림 Ⅱ-1] 지식의 선순환 구조 ····· 42
[그림 Ⅱ-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 43
[그림 Ⅱ-3] 정보격차 설명 프레임 ····· 48
[그림 Ⅲ-1] IT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설명 프레임 ····· 67
[그림 Ⅲ-2]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이용 목적 ····· 79
[그림 Ⅲ-3]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 ····· 79
[그림 Ⅲ-4] 지상 디지털 TV 방송을 활용한 경우의 교육 효과 ····· 80
[그림 Ⅳ-1] 미디어격차 해소 전략 ····· 91
[그림 Ⅳ-2] 연구 절차 ····· 94
[그림 Ⅳ-3] 미디어격차 해소 연구모형 ····· 97
[그림 Ⅴ-1] 학생들이 TV를 안보는 이유 실태조사 결과 ····· 109
[그림 Ⅴ-2] 학부모들이 TV를 안보는 이유 실태조사 결과 ····· 110
[그림 Ⅴ-3] 자녀와 학부모들이 시청하는 TV내용 실태조사 결과 ····· 111
[그림 Ⅴ-4] 학생들이 TV시청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실태조사 결과 ···· 112
[그림 Ⅴ-5] 학부모들이 TV시청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실태조사 결과 113
[그림 Ⅴ-6] TV시청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 ····· 113
[그림 Ⅴ-7]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실태조사 결과 ····· 114
[그림 Ⅴ-8]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않을 경우 이유 설문 결과 115
[그림 Ⅴ-9] TV 미시청 이유 학생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표 ····· 121
[그림 Ⅴ-10] TV 미시청 이유 학부모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 ····· 123
[그림 Ⅴ-11] 학생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 124
[그림 Ⅴ-12] 학부모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 126
[그림 Ⅴ-13] 학생 대상 TV 시청 효과인식 사전 및 사후 비교 ····· 127
[그림 Ⅴ-14] 학부모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 129
[그림 Ⅴ-15] 학생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 130
[그림 Ⅴ-16] 학부모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 131
[그림 Ⅴ-17] 학생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132
[그림 Ⅴ-18] 학부모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133
[그림 Ⅵ-1]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부문별 연계활동 ····· 165
[그림 Ⅵ-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 176

[그림 Ⅵ-3] 국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 비전과 정책목표 ····· 178
[그림 Ⅵ-4] EBS와 방과후학교 연계 교수학습 모형도 ····· 183
[그림 Ⅵ-5] 국가단위 디지털콘텐츠 공유체제 ····· 185
[그림 Ⅵ-6] 유비쿼터스 학습 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체제 ····· 187

요 약

o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 및 효과 연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실험연구와 결과분석 및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 방안을 연구 제시하였다.

o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목적과 연구진행 방법을 기술하였다.

o 제 2장에는 본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이론적 배경이 기술되었다. 이론적 배경의 내용은 사회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보격차,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방법,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 배경에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방법이 포함된 것은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능력은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선택의 능력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격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가 쏟아지는 경쟁상황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성이 요구될 것이고 이용자 모두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능력이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인지를 접근하는 일, 이용의 결과 정보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일 등이 계발되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미디어가 출시 될 때마다 미디어 활용 학습이 개인 노력 외엔 해결될 수 없다면 개개인의 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미디어 선택과 활용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며 자기주도 학습 목표와 계획 하에 이루어질 때 가장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자기주도학습 태도와 능력의 배양이라고 할 수 있다.

o 제 3장에서는 국내·외 정책사례가 분석되었다. 국내 정책사례로는 초기 정보격차 해소활동과 최근 정보격차 관련정책 현황이 제시되었다. 외국 사례로서 정보격차 해소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경제발전 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o 제 4장에서는 연구의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제반 절차 및 연구의 프로토콜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의 단계가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혼합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로 양적 접근을 통한 연구처치의 효과비교, 질적 접근을 위한 학생-학부모 반구조화 인터뷰, 교사대상의 표적집단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또한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처치기간동안 작성된 학생-학부모 집단의 학습일지가 분석되었다.

o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가 논의되었다. 연구결과는 상정된 연구문제 1, 2, 3에 대한 결과분석이 양적, 질적, 내용분석의 다각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o 제 6장에서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방안 제시를 위해 격차 해소 방안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고, 가정에서의 노력, 학교에서의 노력, 디지털 케이블 TV업계 개선방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순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o 제 7장에서는 본 연구의 과정을 정리하여 기술, 요약하고 제언 방향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2010년 10월 18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10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72개국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였다. '초고속인터넷 품질연구'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품질지수(BQS, Broadband Quality Score)'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리더십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00%와 품질지수 81점을 받은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기록하여 2년 연속 '초고속인터넷 리더십' 1위(157점)를 차지하였다. 초고속인터넷 품질지수(BQS)는 평균 업로드/다운로드 속도와 지연시간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이 중 우리나라의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보다 55%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o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 사회적 집단, 지역, 가정, 개인에게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맞이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거나 아예 접하지 못하는 계층, 사회적 집단, 지역, 가정, 개인에게는 교육격차, 학습격차, 고용격차, 소득격차, 계층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o 심지어 지역간, 계층간, 개인간에 존재하는 정보격차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NTIA, 1998; 1999; 2000).

o 정보불평등이 내재하고 있는 정보격차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정보화는 정보화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존엄성의 증진과 복지향상이라는 구호를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van Dijk, 2005; 이기식 2007). 정보격차는 단순

히 기술의 사용능력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전통의 부재 세대 간의 단절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보격차가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기식, 2008: 1).

o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혹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OECD보고서에서는 '개인·가정·기업 및 지역들 간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로 보고 있다(OECD, 2001). 이기식(2008)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에 기초하여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혹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인프라에 접근하거나 몰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한다.

o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념 규정하여 '경제적·지역적·신체적 혹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인프라에 접근하거나 몰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로 규정한다. 정보격차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 규정은 정보격차가 지식정보사회에서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NTIA, 1998; 1999; 2000)는 점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o 특히 연구의 제목으로 설정된 미디어격차는 정보격차의 한 종류로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격차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양산되므로 사실상 정보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주요 매개체이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인 미디어격차, 그 중 가정 내에서의 TV를 통한 미디어 격차를 본 연구의 주요 주제로 한다.

o 정보 격차는 자발적 불평등 계층을 제외하고 일차적으로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정보 격차가 경제적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격차, 정보의 격

차로 이어질 것이고 정보의 격차는 다시 지식의 격차, 경제지위의 격차로 이어지는 연쇄적 격차의 심화현상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된다.

o 정보 격차가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보다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확산되고 이용이 가능해지면 기존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또 다른 차원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정보격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세하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격차의 다양한 양상과 심화가능성은 융합 환경에서 보다 더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o 융합이 가속화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전됨을 말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속도가 빨라질수록 격차해소를 위한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집체 집단과 앞선 집단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o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융합 환경 결과가 사업자 융합을 이끌어 시장 안에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시장에서 소비능력이 떨어지는 집단 및 개인의 배제와 소외현상을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디어격차의 문제는 융합시대에 사회 내 불평등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될 전망이다.

o 정보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회 내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첫째는 계층간, 세대간 격차로 인한 위화감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들과 맞물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셋째는 전자정부나 전자사회 길목에서 디지털로부터 배제되거나 지체된 집단 혹은 개인을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 및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비용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정부나 기업 모두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 이중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기술사회가 진전될수록 또 융합 환경이 확대될수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o 그동안 정부도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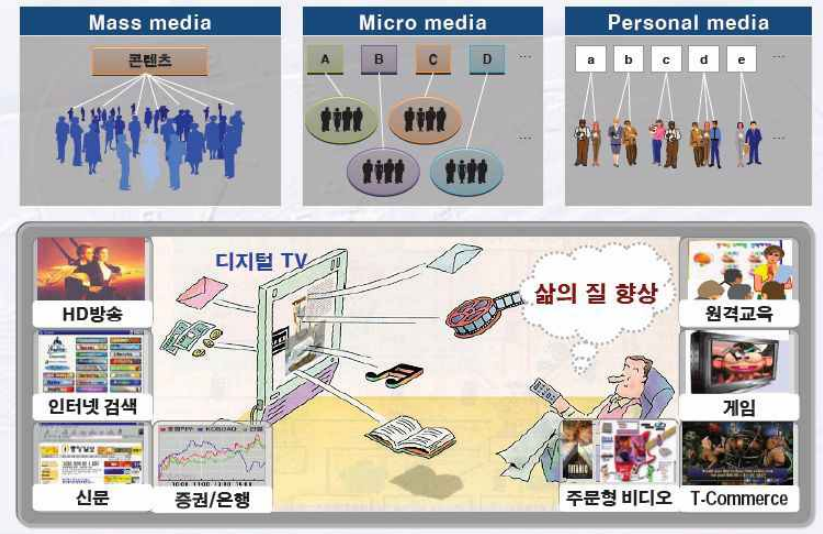
인프라 확대를 통한 양적인 격차해소에 역점을 두었던 초기단계가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용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교육에 역점을 두는 단계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개개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격차해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과 비용의 최소화와 그리고 콘텐츠 개발 보다는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모델은 이용자 중심에서 이용자 복지를 고려한 정책모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o 방송통신위원회(2010)에서도 스마트 모바일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연령·지역·소득수준 등에 따른 스마트 모바일 보급률, 활용능력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계층간 정보격차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용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은 스마트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력, 서비스 활용능력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연령층·저소득층 등 스마트 모바일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및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며, 스마트 모바일 응용서비스 개발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 구성되고 있다.

[그림 Ⅰ-1] 스마트 모바일 활용 격차 해소방안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0 : 1)

o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확대, 스마트 모바일 보급 확산과 함께, 디지털 컨버전스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라 DMB, WiBro, IP-TV, HSDPA, TV포털 등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미디어 2.0시대가 개화되고, 전통TV로 대표되었던 TV 1.0의 시대가 다채널, 다매체 그리고 양방향성이 담보된 TV 2.0 시대로 진화되고 있다. 나아가, 전통TV를 기반으로 인터넷, 모바일 등의 유무선통신이 결합하면서 시청자미디어 이용 행태 및 속성도 보다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정민 외, 2010: 1).



[그림 Ⅰ-2] TV의 변신 혹은 진화

* 출처 : 고정민 외(2010: 1). 차세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맞춤형 콘텐츠 기술개발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o 이러한 환경 변화는 초고속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디지털 컨버전스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주요 주체인 가정의 정보격차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급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뉴미디어의 소비

와 활용의 기본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정보격차 문제의 해결이 사회계층, 사회집단, 지역, 개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학습격차, 고용격차,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보격차의 중요성, 뉴미디어의 확대 보급과 활용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격차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o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학부모와 자녀의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교육적 처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김민정·최지영(2008) 연구에서는 유아의 전자미디어 사용 실태와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를 진행했으며, 박명희·이성림(2004)는 어린이 미디어연구를, 그리고 박소라(2005) 부모자녀 간 정보격차에 따른 의사소통, 갈등, 소비자 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박웅기·박윤정(2009)은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정보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인식 조사 등에 근거한 분석에 한정되었고, 가정에서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주제 및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였다. 즉, 가정에서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새로이 변화되고 있는 뉴미디어환경을 둘러싼 가정 내 미디어격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o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미디어격차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 및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큰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의 가정이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디지털미디어 기술접근과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이용 그리고 이용자 사용의 편의성 등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 가정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준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가정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일반 및 저소

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하되, 특히 연구 주제인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 방안에 중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o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행복한 학부모재단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연구교수진, 한국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합동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Ⅰ-3] 연구 추진체계

o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준실험연구를 기초로 하고, 준실험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와 면담, 전문가협의회를 병행하였다.

o 문헌연구는 주로 이론적 배경 연구에 적용되었다. 사회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보격차,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방법,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위한 폭 넓은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o 본 연구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준실험연구 및 인터뷰, 학습일지 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 학교 학생 및 학부모 153 가정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30가구를 선정하여 8주에 걸쳐 연구모형에 근거한 연구처치를 수행하였다. 그 이후 양적 접근, 질적 접근 및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결과가 논의되었다.

o 전문가 초청 토론 및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교사협의회 등이 연구의 지속적 보완 및 발전을 위해 적시에 진행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1)]

1) 사회 변화의 주요 추세와 교육적 요구

o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 행하는 활동이다. 학습자의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을 정의한다면, 교육은 학습자(학생)의 학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지도, 관리, 조장, 촉진하는 활동이다(안선회, 2010). 교육은 사회 전반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학습자들의 미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변화가 요구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와 교육적 요구

①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발전

o 현재의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진행되어 온 산업사회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과 첨단 기술산업의 발전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왔다. 지식기반사회란 정보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정보와 지식이 자본과 에너지를 대체하여 부를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신체를 기반으로 한 노동으로부터 지식을 기반으로 한 노동으로 바

1) 사회변화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연구보고서인 안선회 등(2010)의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안선회·이종태·김영호·이민상·심완섭(2010)의 '화성시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교육혁신위원회(2007)의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한국교육개발원의 요청으로 작성한 '미래사교육전망' 등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뀌었음을 의미한다(나병현 외, 2007).

o 이러한 지식기반사회, 지식기반경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보통신혁명의 가속화 및 그 영향의 증가, 경쟁의 세계화와 고용의 유연성,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 수확체증의 현상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생산방식도 산업사회의 과거 물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에서 요청되는 근로자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니고, 업무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들과 협동하며, 그 결과로서의 지식을 조직의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이 요청된다.

o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달이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속한 확산을 유발하여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품 생산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또는 정보통신기술이 체화된 제품의 투입비중이 높거나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교육적 요구

o 지식기반사회의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기술 등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창출·활용 능력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지식의 창출·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능력, 합리적인 비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지식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과 그 창조적인 적용 가능성이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식을 창출, 가공, 활용, 관리하는 주체로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평생학습, 직업교육이 더욱 강조되며, 개인과 사회의 학습이 지식과 가치의 창출과 재생산을 좌우하게 된다.

o 이런 추세를 학습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학습자본주의는 학습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전환이 가져오는 지식가치를 자본 재생산의 핵심요소로 삼는 사회적 생산양식을 특징으로 한다. 동일 상품의 대량생산체제가 아닌 소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탈산업사회에 있어서 물적 생산체제는 지속적인 혁신을 일상화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선도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양 측면에서 노동자의 학습은 노동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학습은 이미 개인 내적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상정되고 있다. 학습의 이런 독자성 및 역동성이 사회 전반에 받아들여지고 학습이 유통과 가치생산의 기본단위가 될 때 학습자본주의가 도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한숭희 외, 2006).

o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극복되고, 그에 따라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학교의 독점적인 지위가 약화되며, 학교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결국, 지식기반사회는 사회 전반의 교육·훈련·고용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직업교육의 확대, 인적자원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평생학습과 직업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훈련·고용의 연계가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o 지식기반사회 또는 학습자본주의로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을, 학습자가 주도하는 자기주도학습,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learning to learn)'이 중요한 평생학습사회로 이끌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에서는 어떤 장애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사회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평생학습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방형 평생학습체제 구축, 학습결과에 대한 능력인증체제가 더욱 중시될 것이다.

o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완화되고 최대한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분권화, 자율화를 통해 지역과 개별 교육기관에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개별 교육기관은 이를 토대로 교육수요자이자 학습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중요해지기에 이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가 요구될 것이다.

o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유러닝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지원체제는 학교교육을 넘어 평생에 걸친 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장애 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지식기반사회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학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과 교육적 요구

①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화

o 미래 사회는 첨단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든지 세계의 최신 정보와 지식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재능을 테스트하고 보완해주는 인터페이스나 시뮬레이션이 개발되어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해 주기도 할 것이다.

o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생산구조의 변화, 일자리 성격의 변화, 레저 활용의 변화 등은 지속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발달은 모든 기술발명의 선두주자다. 과학기술개발은 통신정보기술 발달에서 그치지 않는다.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은 다가오는 수십 년간 기술개발의 중심이 된다. 첨단과학기술, 생명공학(BT), 나노공학(NT)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 예측은 지구촌이 과학기술혁명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린다(박영숙 외, 2007).

② 정보기술의 발전과 지식기반사회,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안선회 외, 2010)

o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상(virtual) 공간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 21세기에 들어와 특정 기능의 컴퓨터가 환경과 사물에 내재되어 사물이 센싱과 트레킹이 가능하고 사물끼리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는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보편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참여, 공유, 개방,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웹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와 감성기술이 사회 환경에 더욱 더 내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유비쿼터스 사회가 성숙될 것으로 예측된다.

※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구축되어 모든 사물이 지능화·네트워크화 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웹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여러 지인(知人)들과의 관계망을 구축해주고, 또 새로운 인맥 쌓기와 정보관리를 도와주며, 폭넓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하며, 간단히 'SNS'라 부르기도 한다.

o 이동전화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물결을 타고 전화는 물론 신용카드, 은행계좌, 카메라, MP3, TV, 게임기까지 결합된 손안의 종합멀티미디어가 된다.

o 개인 중심으로 네트워크로부터 미디어까지 통합하게 된다.

③ 교육에서의 시간·공간·언어 제약의 극복

o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사교육, 유비쿼터스 러닝 일상화, 스마트 러닝, 사교육에서의 언어적 제약의 극복, 국경 없는 사교육 확산되고 있다.

o u-IT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오프라인 사교육 기관의 부분적인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사교육 서비스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의 활용 일상화가 될 것이다.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온라인 중심형, 오프라인 중심형, 온라인-오프라인 중간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개별 맞춤형 종합적 사교육 서비스는 주로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 '글로벌 인재포럼 2010'에 참석한 마이클 잭슨 셰이핑투모로 회장 : "전통적인 교육은 교실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웹을 통한 디지털 에듀케이션이 대세가 된다. 더 싸고, 더 나은 방식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5년 안에 대학 강의 방식이 대부분 (디지털 기반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한국경제, 2010)
- 미래에 전개될 유비쿼터스 러닝은 공교육에서보다 사교육과 개인 학습에서 먼저 실현될 것으로 추정된다.

o 특히,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이 일상화될 것이다. 증강현실의 사전적 의미는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영상에 현실 세계에는 없는 가상의 물체, 즉 디지털 정보를 부가적으로 표시해 보여줌으로써 기존 현실 세계의 현실감과 정보가 증강되는 것이다. 부가되는 디지털 정보로는 텍스트·이미지·비디오·3D 입체·3D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기존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 모바일 증강 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일체성'과 '이동성'이 증강현실의 활용도를 매우 높여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는 컴퓨터를 대신하는 연산장치와 카메라, 각종 센서들이 함께 내장돼 하드웨어 측면에서 일체성을 가진다. 스마트폰의 이동성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글로벌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스마트러닝 서비스는 이러한 스마트한 장비를 활용해 보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서비스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현실감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직접 관찰이 어렵거나 텍스트 혹은 2차원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학습내용 및 추상적인 학습개념, 위험하거나 경비가 많이 드는 실험 등에 적용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 환경 구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o 스마트폰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교육 서비스는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 실제 환경과 접목된 가상환경에서 증강된 현실감과 증강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며 차세대 교육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서비스는 기존의 이러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증강현실 기술과의 본격적인 접목을 이룬다면 비로소 진정한 스마트러닝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다(박기현, 2010).

o 나아가 사교육에서의 언어적 제약이 극복될 것이다. 미국 검색 엔진인 구글 등이 외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응용 소프트웨어)을 개발 중인 사실이 알려져 주목이 된다. IT 시장 전문가들은 "음성이나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수준에 비춰 스마트폰을 비롯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쌍방향' 동시통역이 현실화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늦어도 2-3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연합뉴스, 2010.3.2).

- 실시간 쌍방향 동시통역이 실현되면, 교육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활용한 국경 없는 사교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공교육보다 사교육 시장에 먼저 적용될 것이다.
- 이 경우, 한국 공교육은 한국의 사교육과도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사교육과 동시에 경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각국, 호주·뉴질랜드, 일본 등의 사교육기관의 국내 진출과 국내 사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 결국, 쌍방향 동시통역을 통한 전 세계적 차원의 국경 없는 사교육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④ 소셜 학습네트워크, 소셜 교육네트워크 활용, 에듀러너(edu-learner)의 등장

o 사교육에서의 앱스토어와 유사한 형태의 '런스토어'가 등장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소셜 학습네트워크, 소셜 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구입하고, 각종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개별 맞춤형의 고급서비스는 여전히 고가로 거래될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 서비스는 저가, 중가, 고가 등 다양한 수준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오프라인 대면서비스가 추가되는 정도, 맞춤형의 정도, 종합적 서비스 수준에 따라 수요자·학습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결정될 것이다.

o 나아가 대부분의 교육자와 학습자가 교육과 학습에서의 프로슈머(prosumer)라고 할 수 있는 '에듀러너(edu-learner)'가 될 것이다. 교육자와 학습자는 다양한 형태의 소셜 학습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에 관한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인이 소셜 학습네트워크에 올린 교육콘텐츠를 내려 받아 학습할 것이다.

o 이러한 형상은 동시통역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육자의 역할 구분이 약화될 것이며, 대부분의 성인은 교육자인 동시에 학습자가 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은 저렴하고 충실하며 유용한 소셜 학습네트워크, 소셜 교육네트워크의 활용도와 자신이나 기업 구성원, 국민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학습자, 에듀러너로 변화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⑤ 교육적 요구

o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중에서도 미래 교육환경에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변화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가져왔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e-learning의 단계를 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학습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유비쿼터스 학습을 통해 양질의

증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인간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별학습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나아가 정보격차(Digtal divide)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네트워크화된 학습조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o 미래의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든지 세계의 최신 정보와 지식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재능을 테스트하고 보완해주는 인터페이스나 시뮬레이션이 개발되어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해 주기도 할 것이다(교육혁신위원회, 2007).

o 교육혁신위원회(2007)에서는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 양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 체제가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교육비전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습내용이 사이버화, 오픈 소스화, 무료화되어 학교학습의 비중은 축소되고 학교 밖 학습의 비중이 점차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교수-학습의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무수한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교육은 고도의 정보통신처리능력을 활용하여 교사 1인(또는 하나의 교육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통해 '대량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o 온라인 학습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지원 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가장 적절히 활용한 교육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내용이 사이버화, 오픈 소스화, 무료화 됨에 따라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될 것이고, 학교 방과 후 교육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이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o 사교육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교육·학습방식의 변화를 학교교육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 훨씬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e러닝, m러닝 수준을 넘어 스마트러닝, 유러닝으로의 변화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개별 맞춤형 학습관리, 진로 및 진학 컨설팅으로 사교육의 영역은 확장되고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o 특히 학교교육이 폐쇄성과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못할수록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그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으로서 매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의 이러한 변화는 계층 간 학습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요구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o 설사 고등교육의 변화가 늦더라도 노동시장이 학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에 구직·이직·전직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창의력을 포함한 직무능력·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속도는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직원 선발방식의 변화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⑥ 유비쿼터스 학습체제의 필요성

o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비쿼터스 학습체제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의 방식은 최초에 ICT 활용교육부터 출발하여 e-러닝, m-러닝, 유러닝에 이르면서 계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 유비쿼터스 학습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각된 개념이며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계속 발전되어 갈 것이다.

※ 유러닝 : 국민의 학습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학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개인적 장애, 시간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 환경, 개인의 삶을 통합한 학습체제다.

o 정부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러닝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유러닝체제가 사교육시장의 유러닝체제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낮고, 학교 공교육에서 유러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그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o 기업, 가정, 정부 등 사회 다른 분야보다 교육현장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현재 교육과 학습의 혁신을 위한 교육투자는 충분하지 않고, 교사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은 빠르게 향상되지 않는다. 온라인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은 아직 소개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방형 평생학습체제 지원, 학생들의 학습동기 고취, 학습공간의 다양화 및 확대, 교수학습의 변화, 유비쿼터스 학습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기 위한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 지역공동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세계화, 양극화의 진행과 교육적 요구

① 세계화, 양극화의 진행

o 세계화(globalization)란 세계 차원의 정보·기술·자본·상품·서비스·인적 교류가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의 증대이다.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제거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앞으로 세계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세계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일본을 상회하고 있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경쟁 국가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현재 한국의 경쟁력 향상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저성장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인해 성장 둔화와 함께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도 약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 침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저축률 하락, 생산성 증가율 둔화, 수요 증가와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으로 2010년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o 세계화의 진행이 가져온 경쟁 심화 현상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 집단간, 개인간 정보화 격차,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격차, 부동산 가격 상승,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산업・기업・지역, 고용・소득·교육에서의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 일자리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양극화되고 있으며, 그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② 교육적 요구

o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교육시장이 형성되기에 국가 간 유학과 연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교육시장에서는 국가의 교육경쟁력이 국가 간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학생·학부모들은 좀 더 우수한 교육상품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것이다.

o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국가 주도의 공교육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른바 세계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기반을 잃어갈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 교육 이동은 공교육의 근간을 침식할 수 있다.

o 이와 같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는 국가와 도시, 기업, 집단, 개인의 적응 능력에 따라 각각의 성장과 삶의 질이 좌우되기에 국가·도시·기업·집단·개인마다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인적자원개발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이를 높이기 위한 학교교육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후 해외 연수와 유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질 향상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o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를 극복하고 형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국가 간, 기업 간, 집단 간, 개인 간 정보화 격차, 소득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교육 형평성의 제고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 노력의 병행, 외국어교육 내실화, 이주노동자 자녀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세계화가 초래한 환경을 교육발전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o 이러한 세계화와 경쟁의 가속화는 성인 사교육,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분야의 사교육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분야에서의 계층 간 사교육 격차, 학습격차가 고용의 유연안정성과 소득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는 성인의 고등교육·평생학습에서의 사교육격차,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완화 또는 심화될 것이다.

o 성인 사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며, 국가 간 교육경쟁력은 일정 부분 국가 차원의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 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추정된다.

o 온라인 학습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지원 체제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를 극복하고 형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진정한 공교육의 경쟁력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생애 단계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학습과 경제적 장애 없이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론 학습은 온라인을 활용하고 실습이 필요한 과정은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하는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체제를 통한 직업능력 개발은 학습 비용을 낮추면서도, 효과적인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저출산과 고령화와 교육적 요구

①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o 우리나라 인구는 통계청(2006)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48,875천명이며, 2018년 49,340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48,635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성장률, 0~14세 인구 및 인구구성비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10년 이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o 통계청에 따르면, 지구촌의 총 인구는 2050년까지 증가 후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나, 한국은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전후해서 점차 감소하며, 50~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고령화될 것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o 더욱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빨라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노인 14%),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20%), 2050년 세계 초고

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다(통계청, 2006).

o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 비중은 증가하며, 저축률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보건·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복지재정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

② 교육적 요구

o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낳고, 나아가 학교구조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중장년층, 노년층의 교육기회, 학습기회 증대 요구에 따라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학습 시스템이 확대될 것이다. 학교는 더 이상 독점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 위치 지워질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지원시스템 외에도 학교와 사회, 직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학교의 구조 및 기능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o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낳고, 노년층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전체 교육에서 학령기 학교교육보다 고등교육,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확대시켜 평생학습사회를 성숙시킬 것이다. 학령기 인구 감소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규모도 증가할 것이다.

o 이 경우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나 학교교육이 충분한 개별 맞춤형 교육, 특성화교육, 맞춤형 학습관리 등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이다.

o 성인여성인력, 중장년·노년층 노동력이 중시되면서, 고등교육·평생학습 분야에서의 사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성인 사교육시장이 학령기 사교육 시장 못지않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o 나아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 시스템을 포함한 교육복지를 크게 확대하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o 온라인 학습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지원 체제는 여성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장애 없이, 또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여성과 중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성인 시기의 온라인 학습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의 일상화를 위해서라도 학령기에 온라인 학습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방식을 습득하고 익히며, 나아가 습성화할 필요가 있다.

o 평생학습사회는 동시에 '평생사교육사회'이기도 하다. 평생에 걸쳐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면, 평생에 걸쳐 사교육 의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낳고, 노년층 인구를 증가시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게 된다. 특히, 성인여성인력, 중장년·노년층 노동력이 중시되면서, 고등교육·평생학습 분야에서의 사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o 하지만 공교육 기관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 공교육기관은 유연성, 다양성, 경쟁력 부족으로 변화하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교육·학습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는 곧 평생 사교육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o 최근 정부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교육혁신위원회(2007)와 미래기획위원회의 연구(안선회 외, 2010)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교육혁신위원회, 2007)

모든 국민이 적시 맞춤형 학습을 통해 일생 동안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하는 학습사회를 실현함.

o 교육혁신위원회(2007)가 제시한 비전의 핵심은 교육패러다임을 학령기 일방적 교육 공급(의존적인 모방학습)에서 전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학습, 직업(생업) 능력개발 지원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o 교육혁신위원회(2007: 30-33)는 학습사회로 가기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으로 '배우기 중심', '유연한 교육',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 자기주도학습: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 적시 맞춤형 학습: 일제식 수업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별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적시 맞춤형 학습체제를 마련하여 개인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습의 일상화: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학습한다.

- 경직된 교육에서 유연한 교육으로

• 학년제의 유연화: 학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 진급의 속도를 조절한다.

• 학습 시간과 공간의 다양화: u-러닝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학습네트워크 등을 통해 학습 시간과 공간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 학력인정 범위의 확대: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들도 학력으로 인정하여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 다양한 연령층의 수용: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입학 및 학사운영을 유연화하여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지식 중심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생애 단계별로 학습 경험을 구조화한다.

•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과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관 간에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 지식위주의 시험공부에서 탈피: 고정된 지식을 암기하는 공부에서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예술적 감성, 사회성 등을 신장하는 공부로 전환한다.

②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방향[2)]

o 안선회 등(2010)은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학교교육체제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체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표 II-1> 전통적인 학교교육체제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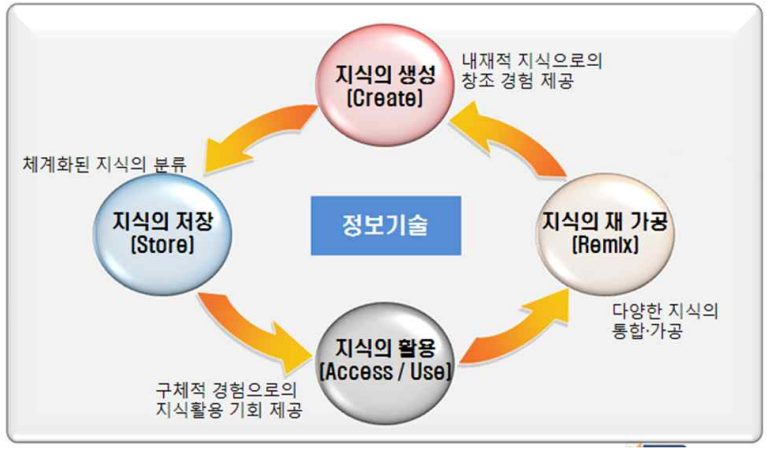
구분	전통적인 학교교육체제	미래 평생학습체제

2) 이종각·박철희·안선회·이민경(2008)의 교육국제화특구 미래 교육타운 조성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재상	▪ 상황 적응형 인간, 타율·수동·순응형 인간	▪ 상황 주도형 인간, 자율·능동·창의적 인간
지식관리	▪ 교육자의 지식독점, 제한적인 전달·유통	▪ 학습자의 지식공유, 제한 없는 나눔과 유통
교육학습 방법	▪ 교육공급자 주도형 - 교육자(교사) 수업(가르치기) 중심 ▪ 제한된 학습방식 옵션 ▪ 학령기의 일제식(一齊式) 교육	▪ 학습자 주도형 - 학습자 학습(배우기) 중심 ▪ 학습방식 옵션 다양성 :e러닝, m러닝, 유러닝 ▪ 적시 맞춤형 학습: 유러닝
교육 기반	▪ 학교와 대학 ▪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 모든 기관 및 시설 ▪ 테크놀로지가 지원하는 교육
학습결과 인증방식	▪ 졸업장 및 학위(學歷·校歷중심사회) ▪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미흡	▪ 자격증, 학력인증제도 구비(능력중심사회) ▪ 학교 밖 학습경험까지 인증 가능
교육관리	▪ 국가 인정의 교육전문가 ▪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통제형 관리	▪ 학습자와 시민공동체 ▪ 다양하고 유연한 분권형·자율형·지원형 관리

*출처 : 안선회 외(2010).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p. 25.

o 미래사회의 교육개혁, 교육발전의 방향에 대해 안선회 외(2010: 26)은 '학습의 개방성·다양성·유연성·공공성·수월성의 결합을 통한 지식공유, 집단지성 실현'을 들고 있다. 첫째, 개방성은 모든 국민이 활용 가능한 생애 단계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성은 유비쿼터스 학습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유연성은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도입하는 것이다. 넷째, 공공성은 사회발전과 통합을 위한 지식 나눔과 창조로 사회적 형평성 강화하기 위하여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학습, 지식나눔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월성은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관의 질 높은 교수학습 기회 제공하는 것이며, 여섯째 순환성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그리고 재가공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식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지식의 선순환 구조

*출처 : 안선회 외(2010).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p. 26.

o 안선회 외(2010)은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 ICT 활용교육 단계, 이러닝단계, 유러닝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분	초기 인프라 구축단계	ICT 활용교육 단계	이러닝	유러닝
교육형태	- 컴퓨터 보조수업(CAI) - 컴퓨터 활용교육 - 인터넷 활용교육	- ICT 활용교육	- 이러닝 - 고정된PC 위주 - 종이교과서 - 장소제한 - 일방향적 학습	- 유러닝 - 모바일기기 위주 - 디지털교과서 - 장소가변성 - 가상현실 활용
교육-학습자	- 컴퓨터 통신학습 - 에듀넷 - 사이버 학습교재 - EBS 위성방송	- 교육정보공유체제 - 교수학습센터	- EBS 수능방송 - 사이버 가정학습	- 웹3.0 - 스마트 에듀케이션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협력)
시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이후

[그림 II-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출처 : 안선회 외(2010).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p. 12.

o 나아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확산, 가격하락, 성능향상 등으로 학습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고, 다양한 기술활용으로 학교라는 개념의 시간적, 공간적인 확대가 가능해 졌으며,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 최고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웹기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참여, 공유, 개방, 협력 기반의 학습패러다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방법의 변화가 가속화 된다. 그러므로 유러닝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일터 등 모든

공간에서 새로운 교육모델 도입이 요구된다.

o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과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은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육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 특히 가정 내에서의 학습 기회가 증대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에서의 격차는 가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격차, 미디어 격차 등 정보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o 이러한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정 내에서의 학습의 증가 현상에 따라, 가정에서의 정보격차가 아동의 학습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개별 가정에서 이러한 정보격차,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격차, 미디어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보격차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1)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발전

o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중대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 컴퓨터 보급률이 80.4%, 인터넷 보급률이 80.6%로 세계 최초로 80%를 돌파하는 등[3] 이러한 미디어의 보급과 활용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은 이동성, 휴대성, 네트워크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이라는 세가지 개념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때 네트워크성과 상호작용성은 수평적이

3) Source : 통계청

고 수많은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성은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구분을 약화시키고 디지털화의 대중화로 인해 디지털커뮤니티 상에서의 정보의 생성, 기여, 공유 요구와 같은 사회적 참여욕구를 증대시킨다.

(2) 디지털 케이블 TV의 이해 (www.digitalcabletv.co.kr 참조)

o 디지털 케이블 TV의 개념 : 케이블 TV로부터 발전한 디지털 케이블 TV는 모든 영상이 디지털 신호로 제공되어 HD(High Definition) 급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출범하여 케이블 TV 본방송이 개시되었으며, 2005년 2월 디지털 케이블 TV의 사용서비스가 개시되었다. 2007년 9월에는 케이블 인터넷 전화가 상용화 되었으며, 2009년에는 케이블 TV가입 점유율이 80%를 돌파하면서 대중적인 매체로 거듭나게 된다.

o 디지털 케이블 TV의 특징 : 기존 케이블 TV 방송채널에 영화 및 드라마 다시보기 기능을 포함하여, 수능 및 어린이 교육, 애니메이션, 케이블 TV 프로그램 다시보기,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노래방, 네트워크 게임 등 양방향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o 디지털 케이블 TV의 특·장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고화질, 고음질의 선명 HD 체험”이다. HDTV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TV로 보다 향상된 화질을 제공받으며 지상파 HD 방송을 포함하여 최대 25개의 HD 채널 시청이 가능하다. 둘째, “VOD 서비스”다. 무료 VOD를 비롯하여 최신의 영와 및 드라마의 다시보기 기능이 제공되며 수능, 어린이 교육,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셋째,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이다. 뱅킹, 주식거래, 네트워크게임, 영화예매, 배달, 노래방 등 양방향 서비스로 일상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향상 시켜준다. 넷째,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기능”이다. 특정채널 잠금 및 시청연령 제한기능 등을 통해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안심

하고 시청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섯째, “다채널 서비스”이다. 최대 180여개 채널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비롯하여 영화, 스포츠, 레저, 뉴스, 어린이, 게임 등의 시청이 가능하다.

o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 : 디지털 케이블 TV 는 기존의 TV에 디지털 케이블 TV 전용 셋톱박스를 연결하여 시청한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은 디지털 TV나 아날로그 TV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케이블 TV를 통해 서비스 제공된다.

o 따라서 풍부한 콘텐츠 자원의 학습 활용 가능성을 비롯한 디지털 케이블 TV의 특징은 가정 내에서 미디어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뉴미디어(new media)로서 비교적 생소하고 접근성(accessibility)의 문제로 인해 가정 내 정보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 역시 공존하고 있는 매체이다.

2) 정보격차와 해소활동

o 기술 및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정보격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o 국가별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보격차 현상을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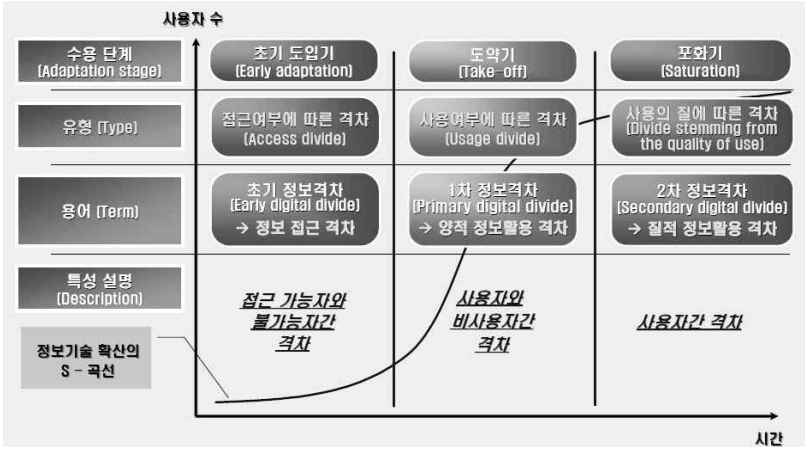
<표 II-2> 각국 정보격차 관련 개념(한국전산원, 2001 : 7)

미국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93.9) – 정보부자와 빈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를 모든 미국인이 소득, 장애, 지역에 관계없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도화된 보편적 서비스의 실시를 명시 ·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Digital Divide('99)

	–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단절인 digital divide가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이슈임과 동시에 인권 이슈가 됨에 따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 Digital Divide로부터 Digital Opportunities로(백악관, 2000.2.2) – 현재 전화가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처럼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가정에서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국	· Our Information Age : The Government's Vision ('98.4) – 정보부자와 빈자간 단절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정보사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 확대' 를 정부의 5가지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천명
캐나다	·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Moving Canada into the 21st Century ('96.5) – '97년까지 모든 캐나다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핵심적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 접근 전략(national access strategy) 수립을 명시
아일랜드	·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ociety : A Framework for Action –First 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 Implementation Group on the Information Society ('98.12) – 정보부자와 빈자 간 격차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접근 향상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시킨 보고서, Discussion Document on IT Access for All' ('99.10)을 발표
호주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 Overview: Key Priorities for Action (1999.7) – 10대 정책 과제 중의 첫번째로 모든 호주인이 정보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선언하고 노인, 저소득

	층, 원주민, 장애인, 여성, 농어촌주민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도 정보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천명

o 정보격차는 정보수용단계에 따라 초기도입기, 도약기, 포화기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정보격차의 유형은 접근성, 양적 활용성, 질적 활용성의 순서를 가질 수 있다. 접근성은 정보 접근 가능자와 불가능자간 격차를 의미하며, 양적 활용성은 사용자와 비사용자강의 격차, 그리고 질적 활용성은 활용자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보격차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3] 정보격차 설명 프레임(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60)

o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우리의 삶이 다양한 방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o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마다 정보격

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장애인·노령자·저소득층 등이 편리하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보급, 교육활동 등을 펼치고 모든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o 이러한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정보기술의 보급이 확산되고 성숙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정보격차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확산가설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지속될 뿐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 보는 격차가설로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이 존재한다. 이들의 상반된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보격차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정보기술이 확산되고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는 후자의 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끊임없이 진화하는 정보기술로 인하여 정보격차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4)]

o 기존의 정보기술은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이었다면, 현재는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정보격차는 사회·문화적 격차 및 경제적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o 일상정보의 주요 획득경로에서 1위는 단연 TV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정보를 주로 TV를 통해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획득에 있어 정보의 질과 정보의 양은 사회적 신뢰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소외계층의 미디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주요 정보획득 미디어를 타겟으로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o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강화사업'을 진행 중

4) 유지연, 김희연,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해소 이슈 재검토'에서 요약발췌,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5호

이며,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 수신기와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사업과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187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난청노인용 수신기를 50%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총 193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뿐만 아니라 지역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EBS 방송에서도 유료방송콘텐츠와 교재를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 하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디지털미디어 기기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media'라는 단어와 'literacy'라는 잘 알려진 개념들이 결합되어서 구성된 개념이지만, 그 정의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를 "다양한 매체의 맥락 안에서 미디어에 접근(Access)하고, 미디어를 이해(Understand)하며, 창의적인 제작(Create)을 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access, understand and create communications in a variety of contexts"-Ofcom 홈페이지; http://www.ofcom.org.uk/)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콘텐츠 제작 편집 공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 수용자로서의 능력향상이 필요하다.

o 이러한 디지털미디어의 특징은 소외계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가정내,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교육격차 사회, 문화적 격차해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대한 연구[5)]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시간 및

다양성, 인터넷 이용 내의 다양성 등이 아버지의 학력이나 직업 및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개방성에 따라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개방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차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와 가정 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학부모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방법

1)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

o 현대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는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 수집하며 정보를 구별하고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교사의 일방적 지시적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o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 동안의 수준별 교육과정,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재량활동 등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학교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장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어 인지적 능력 외의 학교 적응적인 측면에서도 자기주도적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한상훈, 2006).

o 자기주도학습은 인지 능력의 개발 외에도 학생들의 인성개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우수하

5) 김은미, 정화음,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호

고 교우관계, 학습지속성, 수업참여도, 규칙준수 정도가 높아 학생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한상훈, 2006). 따라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주도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o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학습의 계획과 실행, 평가 등의 일련의 학습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내적 변화를 도모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은 Knowles에 의해 이론과 실천의 면에서 체계화 되어 성인교육의 대표적 개념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는 자기주도학습의 과정을 1)스스로 학습욕구의 진단, 2)학습목표 설정 3)인적 물적 자원 확보 4)학습전략선택, 5)실행, 6)평가의 단계로 제시한다.

o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개인의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 동료, 자원제공자, 교재, 교육기관 등 매우 다양한 협조자들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는 학습전체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책임을 지는 학습이다(Caffarella & O'Donnell, 1987). 따라서 초기에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계획과 실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o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으로는 1)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인 학습전략과 통제(초인지) 능력, 2)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인 동기, 흥미, 자기인식, 자기보고, 감정 등이 포함되며, 3)학습자의 행동적 측면인 행동통제(노력과 끈기)와 수행, 4)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목표지향성과 학습에 대한 잠재력 5) 교육자와의 협력 및 도움의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촉진된다(이윤옥, 2007).

3) 자기주도학습의 교육적 효과

o 한편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자기주도학습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학습태도와 학

업성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은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편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로 학습하며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박용휘, 2003; 박영태, 현정숙, 2002). 높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학습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과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지전략과 기억전략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은 학생들이 자기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게 하는 상위인지능력을 발달시켜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다.

o 임동일과 신인현(2004)의 연구에서 EBS 교육방송 수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EBS 수강 후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성향이 향상된 학생은 34%에서 62%로 28% 증가하였으며, 공부할 때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29%에서 52%로 23%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EBS교육방송 수강 이후 혼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학생은 44%에서 56%로 12% 증가하였다.

4) 자기주도학습과 부모의 지원

o 자기주도학습은 학생의 성격적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적 변인에 의해 영향 받는 것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특히 가족의 중요한 심리적 환경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 및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와 양육태도는 아동의 책임감, 성취동기 및 자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Baumrind, 1977). 특히 부모가 권위적, 애정적, 자율적,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 부모가 아동의 생활과 행동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적절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면 아동은 바람직한 행동과 발달을 보인다.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중재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권위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녀가 자

기통제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고 내재적으로 동기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 및 적절한 감독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관련이 있다. 아동이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부모가 온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적관계가 있다.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Crourter, et al., 1990; 박영태, 이경님. 2009).

o 부모들은 TV는 물론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인터넷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이 자녀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발켄버그 등(1999)의 연구에서 TV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는 부모들은 자녀의 시청을 연령에 관계없이 더 많이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TV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o 미디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의 해로운 영향을 지적한 연구에서, TV시청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아이 혼자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보면서 비판적 시청자가 되는 것이다(Warren et al., 2002). TV에 대한 부모의 중재는 아동에게 학습을 고무하고 친사회적 태도와 행위의 발전을 도우며 TV의 폭력이나 다른 부정적 묘사들의 해로운 효과를 잠재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Bybee, et al, 1982). 단순히 TV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o 가정에서 부모는 아동의 미디어 효과 중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학부모의 시청지도가 필요하다. 아동의 TV시청에 대한 부모의 중재로는 첫째,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등 분명한 시청 규칙을 정해주는 제한적 시청지도와 둘째, 프로그램의 이해를 도와주고 미디어 내

용의 이용을 장려하는 설명적 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함으로써 어린이의 시청을 감시하는 공동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o Baybee 외(1982)의 연구에 의하면 TV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시청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TV가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부모들은 제한적 평가적 지도 유형을 더 많이 행사하며 TV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는 부모들은 평가적 지도 유형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TV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자녀들의 TV시청 지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TV에 대한 인식이 증요하다.

o 임동일과 신인현(200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방송에 대한 인식은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교육방송 학습 프로그램 시정 및 관심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전체 65%였으며 자주 시청한다는 학부모는 15%이다. 가정에서 자녀가 교육방송 학습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 부족(37%), 수준이 맞지 않아서(3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방송 VOD 사용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52%, 잘 모른다가 21%로 아직 많은 학부모들이 VOD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o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의 TV 시청지도에 대한 연구결과 부모의 학력과 연령은 시청 지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TV가 폭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그런 프로그램을 금지하기 보다는 함께 TV를 같이 보면서 등장인물이나 내용에 대해 어느 것이 좋거나 나쁜 것인지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은미, 2002).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 자녀가 성장할수록 점차 자녀의 TV 시청지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 사례

o 정영호, 이혜미(2010)의 연구에서는 정보접근격차의 변화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역)에서 정보접근지수의 차이가 매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실제로 정보접근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성별, 연령, 학력, 지역에 따른 정보접근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었다.
반면,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저소득층(100만원 이하)과 고소득층(400만원 이상) 사이에 상당히 큰 정보접근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다른 집단특성들의 정보접근격차와는 달리 격차 수준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정보이용격차의 변화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가계소득, 지역크기 등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이용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 특 성간 정보이용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 김광수(2001)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정보 격차(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영상기기, 인터넷 접속 환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미디어 리터러시(컴퓨터 쓰기 및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계층 간의 격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유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정보복지 차원의 노력보다는 학교 교육에서의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을 통한 해소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에서 시급하게 미디어 교육을 수용해야 된다는 기존의 미디어 교육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o 노용환, 김정언, 김원중(2009)의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채택'(adoption) 및 '이용'(usage)에 대한 연령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채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중장년층에서는 감소하는 오목한 패턴을 보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채택한 개인의 이용능력 중 컴퓨터 그래픽과 홈페이지 제작 등 일부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용능력 측면에서도 채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장노년층일수록 부(-)의 효과를 나타낸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 및 인터넷의 채택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컴퓨터와 인터넷을 채택한 개인의 동 기술에 대한 이용은 실생활에 대한 도움과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수준에는 정(+)의 유의한 반응을

나타냈으나, 소득에는 유의하지 않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항목도 나타났다. 이는 정보격차 완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채택 및 이용을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장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정보기술의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노인 콘텐츠의 개발 등으로 장노년층의 신기술 습득의 순편익을 크게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o 이현아, 이기영(200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정보화는 가족원들의 시간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과 같은 생리적 시간 감소, 둘째,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신문구동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 소비하는 시간 감소, 셋째, 가사노동과 관련된 시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혼자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가정의 정보화로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로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위계구조는 정보기술수준에 의해 좌우되므로, 가족 내 권력구조 또한 정보화수준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면서 가족들의 받아들이는 정보의 통로가 변화되고, 모든 가족원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족 내 평등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첨단 정보를 많이 소유한 자녀세대와 그렇지 못한 부모시대 간의 또 다른 정보불 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o 박명희, 이성림(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 세대는 정보사용능력이 가정 내 의사결정에 충분히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세대는 정보사용능력을 자원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 정보격차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갈등 발생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o 김민정, 최지영(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어머니의 경우 미국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전자미디어 이용시간이 길다고 인식, 전자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자녀의 전자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해 미국 어머니들의 경우 어려움이 없는 반면 한국 어머니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어머니들은 자녀의 전자미디어 이용 지도에 있어 부모의 관심과 개입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자녀의 전자미디어 활동 시간 동안 상호작용하며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의 전자미디어 이용시간을 어머니의 개인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o 박소라(2005)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에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큰 데, 이는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부모의 이용량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이중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인터넷의 교육적 속성 vs 상업적 속성) 자녀가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은 통제하려 하지만 막상 이용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

o 박웅기, 박윤정(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인터넷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자녀세대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것보다 유의미하게 크다. 부모-자녀간 인터넷 자기효능감의 격차, 인터넷 정보역량 격차, 인터넷 정보 활용성 격차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정보역량과 인터넷 정보 활용성에 미치는 요인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별로 분석한 결과, 자녀보다 부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부모에게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o 김홍규, 이수진(200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유형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학생들은 학습활동보다는 취미활동, 게임, 대인관계분야에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활동에서는 교사가 높은 평균을 보였다. 학부모나 교사는 인터넷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학생들은 컴퓨터의 사용, 인터넷 활용 자체가 일상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에 학생이 가장 열심히 참여하

고 교사, 학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간에 대해 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학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실제 교사, 학생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녀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좁히는 일이 관건이다.

o 전세경, 김유정(2009)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인터넷과 TV 사용 실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남아를 둔 학부모가 여아를 둔 학부모보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를 둔 학부모가 남아를 둔 학부모보다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를 활용 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터넷과 TV사용에 대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서 전체의 64.8%의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53.4%의 학부모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o 조연하, 배진아(2010)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유형이 중재요인에 따라 미디어 종류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초 · 중 · 고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를 실시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종류 및 속성에 따라 부모의 이용중재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미디어에 해당하는 텔레비전은 제한적, 설명적, 공동시청의 중재행위가 공존하고 있는 데 비해, 디지털 미디어는 감시형 또는 제한적 이용중재가 지배적인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디지털 미디어 중에서도 고정형 개인 미디어인 컴퓨터가 도구인 인터넷은 감시형의 제한적 이용중재방식이 지배적이었는데, 가정 내 미디어의 위치와 부모의 성별, 어머니의 직업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 공동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활용,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이동형 미디어 활용,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문화 이해, 학교와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부모 교육실시 등이 필요하다.

o 안선경(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시청지도를 자녀의 현실인식과 시청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상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알아보았다. 부모의 시청지도 유형 중 설명적 지도만이 자녀의 현실인식 요인인 요술창문, 동일시, 유용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시청 지도 유형 중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적극적이면서 고차원적인 설명적 시청지도만이 자녀가 TV를 현실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선행연구 사례의 시사점

o 정보격차의 양상은 접근성의 이슈로부터 점차 활용의 이슈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 부모와 자녀의 정보 또는 미디어 격차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미디어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적절한 형태의 보조적 수단이 강구될 경우 학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활용도는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o 전자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자녀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태도의 변화에 미디어 격차를 해소를 위한 노력의 첫 번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o 한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 선행사례가 있는 바, 어떻게 학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미디어 활용 방법과 전략을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o 부모와 자녀가 미디어를 같이 활용할 경우 그 효과가 제고되고 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o 이와 같은 교육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과 연계된 학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o 따라서, 미디어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자녀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격차해소는 물론 미디어 활용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동반될 경우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국내 정책사례

1) 초기 정보격차 해소활동

(1) 현실상황 인식

o 2000년 4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2000.4.6)에서 “함께 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 - 정보격차 없는 사회 구현”이 의제로 제시되어 농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추진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 2000년 12월 15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o 한국전산원(2001)에서는 2000년 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인식을 하였다.

> “94년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13만8천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7월에는 1,603만3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0년 자료에 의하면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의 62.4%, 화이트칼라의 64.0%, 10대의 73.3% 그리고 대학생의 94.1%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옴에 따라 자칫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정보문화센터 자료에 의하면 50대 이상, 농/임/어업, 주부, 그리고 중졸이하 학력집단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4.9%, 7.3%, 11.0%, 1.9%에 머물고 있어 이들 집단 가운데는 극히 일부만이 정보사회에 참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뉘어진 현상인 정보격차

(digital divide)는 주민복지, 사회통합,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측면에서 소외계층 주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사회참여 및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단절 및 갈등(특히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이 예상되며..."

o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하에 수행하게 되었다(한국전산원, 2001). 1)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2) 국민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3)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및 피교육자 중심의 균등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4)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콘텐츠를 확보하며, 마지막으로 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정부, NGO간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o 정보격차 문제가 주요한 국가적 이슈로 자리 잡게 된 2000년 경 다양한 직업군별 정보격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가정주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11%로서 최하위 직군 수준이었다.

<표 III-1> 직업별 정보격차 현황(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컴퓨터보유율	인터넷가입률	인터넷이용률	사례수
블루칼라	53.8	28.7	27.8	485
가정주부	59.1	25.3	11.0	580
농/임/어업	45.1	19.5	7.3	82
자영업	65.0	31.5	18.7	749
화이트칼라	77.7	57.8	64.0	417
무직/기타	60.7	37.7	43.4	122
대학생	85.9	74.1	94.1	170
전체	66.0	39.2	37.1	3000

o 소득별 정보격차 현황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보격차의 폭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 소득별 정보격차 현황(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컴퓨터보유율	인터넷가입률	인터넷이용률	사례수
1백만원 미만	36.1	20.7	24.5	241
1백-2백만원 미만	61.1	33.3	31.8	1402
2백-3백만원미만	75.0	45.9	43.1	1035
3백-4백만원 미만	82.1	54.9	48.2	224
4백만원 이상	79.5	62.5	53.4	88
격차	46	41.8	28.9	N/A
전체	66.0	39.2	37.1	3000

o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정보인식 및 접근보다는 정보역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 둘째, PC 보급과 인터넷가입보다는 이용격차가 심각하다. 셋째, 정보취약집단의 정보화욕구가 강하다. 넷째, "사용할 줄 모름", "필요성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 취약계층의 정보와 장애요인이 있다(한국전산원, 2001).

(2) 정보격차 해소활동 (한국전산원, 2001 참조)

o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목표 : 첫째, 디지털 복지사회의 기반환경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디지털 복지국가를 건설을 목표로 원하는 국민 모두가 손쉽게 정보 접근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 없는 인터넷 접속환경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터넷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화교육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digiracy) 제공을 산업사회의 문맹퇴치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이 정보이용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정보화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통신망의 보급과 접근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취약계층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o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과제

가.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보장

1) 초고속정보통신망 미구축 지역에 PC 보급과 정보화교육으로 인터넷 수요를 확산시켜 시장원리에 부응한 초고속정보통신망 투자를 유도

2) 통신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방안 강구

3) 음성전화서비스 중심의 현행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나. 국민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4)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주민, 노인, 농어민 등을 지역접근센터 구축 지원

5) 민간기업의 정보통신기기 기증을 촉진할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중고PC 수집 및 보급체계 개선

6)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접근성 지침 마련

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및 피교육자 중심의 균등한 정보화교육 기회제공

7) 시간이 없거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보화교육 추진 방안 마련

8) 읍면동 사무소, 농어촌지역 학교,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복지기관 등 다양한 단체가 정보화교육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

9) 대학생 봉사 활동, 지역주민, 공익요원 등 다양한 자원을 정보화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라.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콘텐츠 확보

10) 취약계층의 콘텐츠 욕구를 파악하고 이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응용소프트웨어 및 정보검색도구 개발

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민간, NGO간 국제교류의 활성화

1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사업 추진

12) 동남아 등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인적자원 개발 및 정보기기 보급사업의 확대강화

13)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기기 보급 및 교육사업 추진

2) 최근 정보격차 관련정책 현황

(1) 정보격차 양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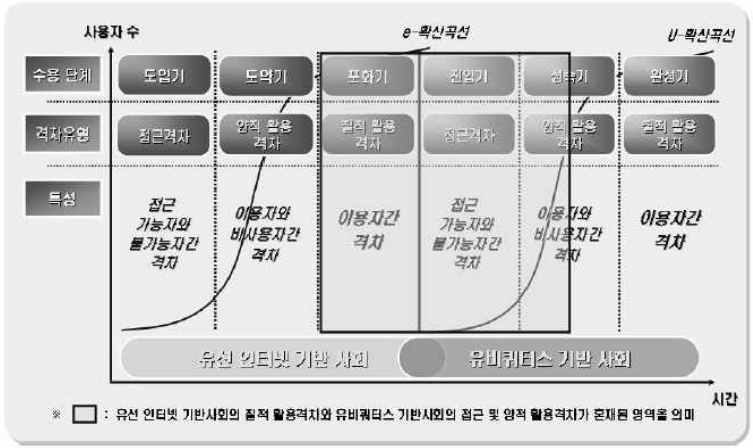
o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단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의 연도별 설문결과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 활용의 역량, 그리고 정보활용 등 제반 부문에서 정보격차 수준이 매년 감소하여 일반국민과 취약 계층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표 III-3> 연도별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수준(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91)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장 애 인	42.5	57.5	34.8	65.2	26.1	73.9	24.0	76.0	21.2	78.8	19.7	80.3
저소득층	44.4	55.6	35.8	64.2	27.0	73.0	24.5	75.5	21.9	78.1	20.5	79.5
농 어 민	66.2	33.8	58.3	41.7	50.2	49.8	45.4	54.6	42.1	57.9	39.7	60.3
장노년층	59.1	40.9	50.7	49.3	41.6	58.4	37.4	62.6	35.8	64.2	34.1	65.9
평 균	55.0	45.0	46.7	53.3	38.0	62.0	34.1	65.9	32.0	68.0	30.3	69.7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o 고도 정보화 사회 및 유비쿼터스 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격차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접근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는 정보격차의 시대를 지나 이용자와 비사용자의 격차, 그리고 사용 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활용성의 질 문제로 정보격차의 개념이 바뀌는 추세이다.



[그림 III-1]IT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설명 프레임(한국정보화진흥원,2010:89)

(2) 정보격차 해소정책

o 2010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취약계층 정보역량 및 활용수준 제고정책의 추진강화 필요하다.

-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크게 개선된 반면 정보역량 및 활용수준은 일반 국민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된 정보접근성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정보역량 및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강화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별 맞춤형 콘텐츠 및 생산적 정보 활용 모델 개발·보급, 취약계층 정보 활용 인큐베이팅(취약계층 정보활용 성공사례의 발굴·육성·전파), 생활밀착형 정보화실용·전문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개발한다.
  · 관계부처·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농어민의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한다(농어촌 순회방문 농어업IT 전문교육, 농어업IT 활용모델 개발·보급, 농어업 IT활용 성공모델 발굴·육성·전파, IT 1기업과 1농어촌간 정보화 후원 운동 등).
  · 취약계층별 IT경진대회 등 다양한 정보화 이벤트 개최 및 취약계층 참여 IT 봉사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내 정보화 무관심층의 정보화 관심 제고 및 니즈 개발한다.

나. 정보격차 해소사업간 연계를 통한 가치사슬적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 중고 보조기기 보급 → 보급 수혜자 대상 맞춤형 IT 전문교육 → 일자리창출지원', '정보화마을에 취약계층 IT 봉사단 파견' 등 정보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사업연계를 통해 사업 운영의 가치 창출을 강화한다.
  ·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가 '사용방법 모름' 및 '장애로 인한 이용 어려움'인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 촉진을 위한 웹 접근성 제고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확대와 이와 연계된 생활밀착형 맞춤식 정보 활용 교육을 추진한다.
  ·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이 '노후한 PC 기종' 및 '활용능력부족'이며 1순위 선호 정보화지원 사업이 '중고 PC 보급'인 저소득층 대상의 중고 PC 보급사업 확대 및 이와 연계된 정보 활용 교육을 추진한다.
  ※ 저소득층 선호 정보화 지원 사업: '중고 PC 보급(29.6%)', '인터넷 이용요금 할인(19.4%)', '다양한 정보 활용 용도의 개발·보급(16.7%)', '정보화 전문교육(6.2%)' 등.

다. 취약계층별 정보화 수준을 고려한 특화된 정보화 교육운영이 필요하다.

-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80% 수준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는 취업·창업·자격증 취득 등 전문 과정 위주의 IT 직업교육 집중 실시한다
- 반면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노년층 및 농어민에게는 일상생활 내 편의성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 활용 교육의 집중실시를 통해 정보화 수준을 높인다.

라. IT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격차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유비쿼터스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라 유선 인터넷 기반의 기존 정보격차와 더불어 u-기술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가 중첩되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유선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의 e-기술 확산 곡선상 포화기에 나타나는 질적 활용 격차와 유비쿼터스 기반 사회에서의 u-기술 확산 곡선상 진입기·성숙기에 나타나는 접근 및 양적활용 격차가 중첩되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약 계층 인터넷 이용률의 지속적인 상승 ('05년 29.4% → '09 년 43%)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은 7.0%로 크게 낮으며 '05년도 수준(5.6%)에 정체되어 있다.
-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보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신규정책의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 취약계층의 경우 의사소통 및 정보검색 등 인터넷 기본용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키보드를 통한 PC 이용에 심리적 저항감이 큰 특징이다.
  ※ 인터넷 용도별 선호도는 '원거리 의사소통 및 자료 송수신(29.7%)', '정보검색/습득(20.1%)', '문화/여가활동(15.0%)', '복지/의료서비스이용(10.2%)' 순.
  · 따라서 인터넷 기본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며 별도의 PC 사용 능력이 요구되지 않은 스마트폰 중심의 취약계층 모바일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다.
  ※ 고령(장애인) 친화형 스마트폰 및 취약계층별 모바일 특화 콘텐츠 개발·보급,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 정보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정보역량 및 활용수준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나 고도화 되고 있는 IT 환경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인터넷응용 용도 기반 디지털 심화역량 및 활용수준은 일반 국민의 각각33.4%, 35.7%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 따라서 취약 계층의 적극적 정보생산·공유·소비활동을 위한 인터넷 응용용도 기반 정보활용의 심화능력 제고 정책의 개발·추진 필요하다.

2. 주요국가 정책사례

1) 미국 사례

(1) 개요

o 미국은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로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즉 전화서비스에서 출발한 보편적 서비스를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고도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고,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실질적 이용보장을 위해서 정보통신망구축과 통신요금지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정보통신기기의 장애인 접근 장애요인 제거, 정보통신기기 이용능력 향상,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확보 등의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o 1934년 The Communication Act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처음 언급된 이래 1983년까지는 AT&T의 내부 요금체계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AT&T의 독점이 붕괴되고 통신사업이 경쟁체제가 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983년부터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통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1993.9)의 9가지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든 미국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명기하게 되었다. 향후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6년 The Telecommunication Act를 개정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명시하였고 동시에 학교, 도서관, 농촌의료기관의 인터넷 이용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o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촉진보다는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지원 프로젝트인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sistant Program (TIIAP)을 2000년에는 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TOP)로 전환하게 된다. 1999.12.9일에는 대통령, 상무장관, 연방정부, 정보통신기

술 관련 사업자, 인권기구 및 비영리단체, 지역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등 800여명이 참여하는 digital Divide Summit을 개최하여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2000년 2월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The Clinton-Gore Administration: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ies)을 발표하여 현재 전화가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처럼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가정에서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 주요 정책

o NII Agenda 수립
- 1993년 수립
- 소득과 경제적 능력, 장애의 유무와 지역을 뛰어넘어 고도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와 현대화를 꾀하였다.

o The Telecommunication Act 제정
- 1996년 제정
- 보편적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저소득층을 돕고 농촌지역과 공공기관 등에도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o Digital Devide 해소를 위한 보고서
- 상무부에서 매년 발행 정보격차 해소 지표 수립을 위해 매년 발간하였다.
-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진전 상황 및 관련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 및 도시개발부, 농무부, 교육부 등에서도 보고서를 참고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학습센터 운영, 지역정보센터 설립, 농촌지역 원격교육 및 진료, 정보기술 직업교육 등이 있다.

o 지역접근센터 (Community Access Centers) 확충
- Digital Divide Summit에서 논의.
- 1999년 12월 9일 대통령, 연방정부 직원, 정보통신사업자, NGO,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정보불평등의 해소를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모든 미국인들의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접근센터(Community Access Centers)는 구체적 실천전략 중 일부로 삼는다.

※ 지역접근센터(Community Access Centers)
- 인터넷 접속공간을 늘림과 동시에 접속 비용의 획기적인 감소를 도모한다.
- 특히, 소외지역에서 공공기관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격교육과 평생학습 등의 교육적 혜택, 고용훈련 및 구직활동 등의 직업적 혜택, 원격 진료와 같은 의료적 혜택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추가적 내용이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발표 : 학교, 도서관, 지역공동체 및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통해 국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뒷받침하였다.
- 정책관련 목표

  컴퓨터, 인터넷, 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한다.

  정보기술에 숙련된 교사를 양성하고 정보기술 습득 및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전 국민이 신기술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온라인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표 III-4> 미국의 정보격차 완화현황 : 소득분포에 따른 인터넷 이용 증가율

구분(달러)	증가율
25,000 미만	49.3%
25,000~40,000	40.1%

40,000~60,000	17.5%
60,000~75,000	19.2%
75,000~100,000	12.9%
100,000 이상	13.9%
전체 평균	23.4%

o New Freedom Initiative (NFI)

· 2001년 발표

· 보조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교육기회의 확대를 꾀하고, 더불어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 장애인고용정책국 설치하고 보조공학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o 지역정보센터 (CTC: Community Technology Center) 운영

· 정보, 학습격차 해소 지원책

· 2002년 1월 발표한 NCLB (No Child Left Behind) 실천 방안으로 출범하였다.

· 가정, 학교, 직장에서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ICT 활용을 교육하는 곳으로, IT 이용 기회 제공 및 IT 활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o Digital Freedom Initiative (DFI)

· 2003년 계획

· 국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경쟁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장려하고 ICT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이다. 취약 지역에서의 ICT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교육뿐 아니라 건강관리에서도 기술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o 디지털 TV 전환 지원

· 변환기 구입용 40달러 할인쿠폰 프로그램, 정보소외계층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한다.

· 2009년 아날로그 방송중단에 따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

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디지털TV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에 근거,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국에서 운용한다.

<표 III-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 및 관련법

	구분	내용
주요 정책	New Freedom Initiative (NFI)	장애인의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향상, 교육기회확대, 개인의 직업능력향상, 사회참여촉진
	Digital Freedom Initiative (DFI)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해소 및 디지털경제 지원
	디지털TV 전환	변환기 구입용 40달러 할인쿠폰 프로그램, 정보소외계층 대상 교육 및 홍보
주요 관련법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종합적으로 규정. 특히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에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내용 포함
	재활법 508조 (Sel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연방정부나 산하기관에서 구입 및 구비해야 할 정보 통신 제품의 접근성표준지침을 제시
	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모든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규정

o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통신규제기관

· 정보소외계층 및 학교, 도서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E-Rate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도서관에 첨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였다.
·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월 기본료 감면제도, 신규가입료 감액제도 등이 있다.

※ 농촌 보건의료 파일럿 프로그램 (RHCPP: Rural Health Card Pilot Program)
· 2007년 브로드밴드 텔레헬스 네트워크 구축 위한 농촌 보건의료 파일럿 프로그램 (RHCPP: Rural Health Card Pilot Program)에 4억 달러 기금 투자 계획 발표. 프로그램 신청 기관에 대해 85%까지 지원.
· 참여기관들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통해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개발하고 있는 국가 기본망에 연결되며 전국 보건정보 네트워크(NHIN: Nation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의 활용을 촉진

o 국가 광대역 계획
· 2009년 4월 8일 착수.
·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유세 핵심공약의 하나이다.
·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한 고속 인터넷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관한다.

<표 III-6>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부문	정책목표	추진과제
경제적 조건개선	소득별 격차해소	-중소제조업체의 전자상거래 활용지원 -상호호환가능한 전자상거래 표준안 개발 -경제통계에 전자상거래 지표 포함 -지역기술센터 지원, 민간기업에 기술훈련 지원
		-가정의 인터넷 접근 프로그램 : 인터넷 접속, 전자상거래 참여지원, 저소득지역의 시범사업 지원 및 정보격차 실태조사 병행

		-저소득 가정에 컴퓨터 보급 확대, 인터넷 보급 -저소득 도시 및 농촌지역에 지역기술센터 설립
교육/문화적 조건개선	학력별 격차해소	-민간기업에 컴퓨터 기증 요청(세제혜택 부여) -학교와 도서관의 인터넷 연결 -신규교사 정보기술 활용교육 지원 -TOP 프로그램 (Technology Oppotunity Program) : 정보기술확산위해 주, 지방정부, 비영리기관에 매칭펀드 제공 – 모든 학교 및 학생들에게 인터넷 보급, 정보기술 제공
사회적 조건의 개선	사회계층간 격차해소	-모든 지역과 가정의 인터넷 보편화를 위한 장기목표 수립 -프라이버시 보호 -창업과 고용창출 기회 위해 초고속 인터넷 구축비용 지원 -낙후지역에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적용촉진 -원주민에 대한 배려

<표 III-7> 미국의 2001년도 정보격차 해소 예산안

추진기관	사업명 및 사업개요	재정지원 (달러)
상무부	중소제조업체의 전자상거래 활용지원	1,900만
	상호호환 가능한 전자상거래 표준화 개발	500만
	경제통계에 전자상거래 지표 포함	1,300만
	총계	3,700만

NTIA	정보격차현황조사	40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반평가 실시	
	TOP프로그램(Technology Oppotunity Program)	4,510만
	기존 TIIAP프로그램, 정보기술확산 위해 주, 지방정부, 비영리기관에 매칭펀드 제공	
	가정의 인터넷 접근 프로그램	5,000만
	인터넷 접속, 교육훈련, 전자상거래 참여지원 저소득지역의 시범사업 지원 및 정보격차 실태조사 병행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연구활동	200만
	광대역 유무선 기술개선, 최첨단 인터넷 음성 및 영상서비스 위한 질적 향상	
	총계	9,750만
정부	컴퓨터 기종, 지역기술센터 지원, 민간기업에 기술훈련 지원	10년간 20억 세제혜택
	정보기술활용교육 지원	1억5,000만
	약 500개의 지역학습센터 설립	1억
	컴퓨터 보급확대, 인터넷 보급위한 공공-민간 협력	5,000만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적용 촉진	4,500만
	민간부분에 의한 대역폭 네트워크 구축 촉진	2,500만
	정보기술부문에 원주민 취업기회 제공	1,000만

o 주정부 단위 정책
· 오하이오 주 사례
· 공공-민간 파트너십 통해 주 전체적으로 광대역 서비스 확대 목표로 "Connect Ohio" 추진하였다.

※ Connect Ohio
· 기업, 정부부처, 대학들이 협력하여 오하이오 주에 광대역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민관 협력 사업
· 정부지원으로 지역사회센터(CAP: Community Access Center)를 설립하여 학교, 지역병원, 정부빌딩 등 다양한 곳에 광대역을 확산시키고자 함이다.
※ 지역사회센터(CAP: Community Access Center)
·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같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를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가능, 다양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지원한다.

2) 일본 사례

(1)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교육이용과 그 효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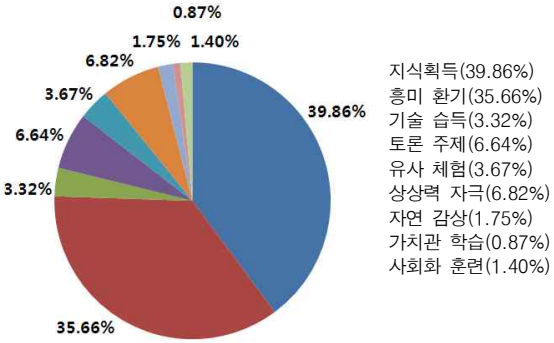
o 문부과학성은 2003년 12월부터 지상 디지털 TV 방송이 개시됨에 따라 2005년 4월 디지털 방송교육활용촉진협의회에 3개년 계획으로 '지상 디지털 TV 방송교육활용촉진사업'을 위탁했다. 학교교육에 지상 디지털 TV 방송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해 보급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업의 최종년도인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지역 21개교의 모델 교에 교직원의 활용실태에 관한 질문지 조사, 수업관찰과 인터뷰 조사, 학습효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2008년 3월 7일에 성과 발표를 하였다. 이 중에서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교육 효과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사의 기대 및 실태

o 본 사업의 평가 팀은 모델로 되었던 6개 지역 21개교의 교사17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이용목적에 관한 질문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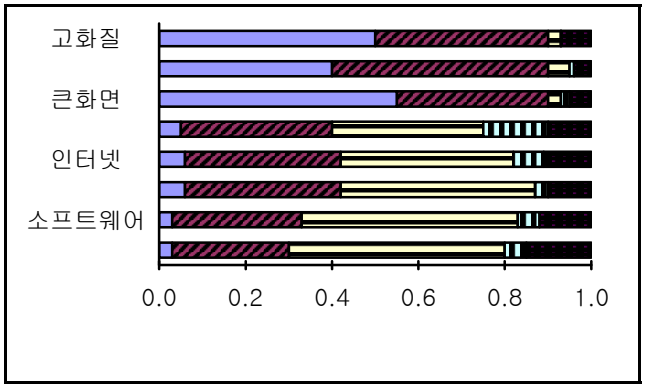
6) 黒木研史(2008)

서는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지식의 습득', '흥미의 환기'를 목적으로 한 이용이 많았고, 이 두 개의 항목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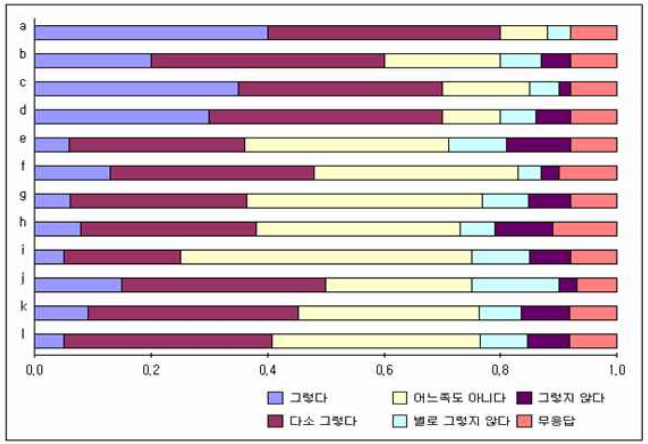
[그림 III-2]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이용 목적

o 실제로 활용한 후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고화질, 고품질, 큰 화면 등 콘텐츠와 하드웨어의 속성에 관한 항목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지만 데이터 방송, 인터넷 등의 기능에 관한 만족도는 낮았다.



[그림 III-3]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

o 활용한 후의 교육효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흥미·관심의 환기', '학생들의 정서적 해방의 촉진',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향상' 등 정서적 측면에서 효과가 높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림 III-4] 지상 디지털 TV 방송을 활용한 경우의 교육 효과

<표 III-8> 설문조사 결과

항 목	평균치*
a 학생들의 교재내용에 대한 흥미·관심이 환기되었다.	4.4
b 학생들의 지식 정착이 향상되었다.	3.8
c 영상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적 해방이 촉진되었다.	4.2
d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이 높아졌다.	4.2
e 학생들의 정보기기를 활용한 기술이 높아졌다.	3.1
f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3.5
g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신장되었다.	3.2
h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발신, 표현하려고 하는 의욕이 높아졌다.	3.2
I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3.0

j 학생들의 미디어를 활용한 의욕이 높아졌다.	3.6
k 학생들이 영상을 보는 시각이 변화했다.	3.5
l 학생들의 창의력이 신장되었다.	3.3

* 그렇지 않다; 1점~그렇다; 5점으로 응답을 집계해서 산출

② 학생들의 반응

o 본 사업의 평가 팀은 2006년도부터 도내의 소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진 수업내용에 대해 지상 디지털 TV 방송을 이용하고 지도한 경우와 종래의 방법으로 지도했던 경우를 비교하여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이용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 성과를 향상시켰는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상 디지털 TV 방송을 이용한 수업에서는 아래의 경향이 나타났다.

· 수업중 학생들이 손을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하품을 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등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학습 습관에 관해서는 직접 질문을 받는 경우보다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기도 하고 기술하기도 하는 면에서 높은 효과가 있다.
· 학생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 활발하게 학습상황을 실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효과는 시청 1주간 후의 실험에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지식획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콘텐츠의 차이에 의해 효과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

o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활용이 교육효과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밀접한 'TV'를 통해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보다도 기기 조작의 번잡함이나 복잡함이 덜하기 때문에 보다 가까이 고화질·고음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점도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각 교과 학습내용과 밀접한 콘텐츠 확보가 어려운 것, '고화질·고음질'이외의 특징인 '데이터 방송'과 '자막방송'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실

천 사례가 적은 점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o 지상 디지털 TV 방송은 2007년에 방송수신기기의 국내출하대수는 누계로 3,000만대를 돌파하였다. 가정에서는 '선명한 영상과 음'으로 채널을 시청했을 때 감동과 발견을,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리며, 학생들의 흥미·관심을 높이는 것과 관련시켜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학교 환경정비 과정에서 예산과 운용 등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디지털 TV를 '채널을 시청하기 위한 기계'로써만이 아니고 통신 네트워크와 다양한 기계를 접촉해서 교재를 보여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써 파악해 도입과 이용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2) 효고현 디지털방송교육활용촉진협의회 사례연구

① 연구의 개요

o 지상 디지털방송은 하이비전에 의한 고화질·고음질과 데이터방송의 실현에 의한 정보전달의 질 향상에 더해 인터넷과의 연계에 의한 쌍방향성의 실현을 도모하고, 앞으로의 통신과 방송 융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등 종래의 아날로그 방송에 없었던 많은 특징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 가능성을 수업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관심과 이해도 등 그 유효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추진되었다.

o 연구실천 협력교

<표 III-9> 연구실천 협력교 현황

학교명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설치환경	지상 디지털 발송 등을 활용한 수업(2005년도)
A 소학교	5학년 1반 교실 5학년 2반 교실	63시간(사회과, 이과)
B 소학교	6학년 교실 다목적실	17시간(국어과, 사화 I 과, 도덕, 총합학습)
A 중학교	마루치 미디어실	20시간(사회과, 수학과,

	중 강의실	이과)
A 고등학교	2학년 8반 교실 환경방재정보실, 강의실	12시간(이과, 환경방재과)

o 지방 방송국(협력)
· NHK고베 방송국
· 산 텔레비전 (2004년 12월부터 디지털 방송 개시)

o 주요 사업
· 2005년 7월 8일 기획회의
· 2005년 8월 18일 기획서 검토회
· 2005년 12월 6일 소프트웨어 설명회(A 고등학교)
· 2006년 1월 20일 제 1회 지구별 합동연구회(A 중학교)
· 2006년 2월 14일 제 2회 지구별 합동연구회(A 소학교)
· 2006년 3월 3일 성과발표회(동경유명)

② 연구의 성과

o 현장감 넘치는 하이비전의 영상과 음성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환기시키고 학습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o 지상 디지털 방송의 하이비전 영상은 정지화상도 선명하다. 일시정지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스케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부분을 편집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과제

o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한 학생들의 영상 독해력을 육성한다.

o 다양한 미디어를 조합해 제시한 교재(지상 디지털 방송이 메인)의 활용 개선필요하다.

o 누구라도 필요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실현을 목표로 조작성의 공부 개선이 필요하다.

o 현재 인터넷상의 영상 보다 더욱 더 양질의 영상이 서버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 상정되어 있다. 수업 전에 텔레비전의 리모컨으로 검색해서 수업에 사용할 영상을 설정해두고, 수업 중에 리모컨 한 개로 상영함.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싶은 경우에도 리모컨 조작 한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o 쌍방향의 지상 디지털 채널의 활용은 교내 LAN이 불가결하다.

o 지역 영상을 디지털화해 학교교육센터 형 서버와 학교 내 서버 등에 축적해 각 교실 등으로부터 필요에 응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다.

(3) 시사점

o 2003년에 지상 디지털 TV 방송이 개시됨에 따라 2005년부터 디지털 TV의 교육적 활용 촉진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지상 디지털 TV 방송교육활용촉진사업'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보급 촉진을 도모한다.

o '지상 디지털 TV 방송교육활용촉진사업'의 성과를 교직원의 활용실태에 관한 질문지 조사, 수업관찰과 인터뷰 조사, 학습효과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홍보 및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다.

o '지상 디지털 TV 방송교육활용촉진사업'의 연구실천 협력교를 중심으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연구실천 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하였다. 연구실천 협력교는 지역단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을 골고루 선정하여 연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구별 합동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o '지상 디지털 TV 방송교육활용촉진사업' 연구는 방송국, 연구진, 학교현장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 가능성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지상 디지털 TV 방송교육활용촉진사업'은 학교 수업에서의 활용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대화, 학교 환경정비 등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활용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o 나아가 디지털 TV를 '채널을 시청하기 위한 기계'로써만이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와 다양한 기계 접촉을 통한 교재를 보여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파악하여 도입과 이용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o '지상 디지털 TV 방송교육활용촉진사업' 결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연구실천 협력을 중심으로 현장 즉 교사와 학생 등의 제언들을 수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o 디지털 TV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영상 독해력 육성, 다양한 미디어를 조합한 교재 활용, 쌍방향 디지털 채널 활용, 자기주도적인 디지털 TV의 활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Ⅳ. 연구 방법

1. 연구 개요

1) 연구대상

o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Y 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해당 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2003년에 선정된 학교로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일반 가정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이 있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표본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1) 개요

o 1994년도에 개교한 Y 초등학교는 2009년 현재 총 16개 학급 31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컴퓨터실, 과학실 등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실이 구비되어 있다.

<표 Ⅳ-1> 연구대상 학교 일반현황

설립년도 (개축년도)	교직원 현황		학급수	학생수	특별실 현황(1실=66㎡)								여유교실수	교육복지실수	비고
	교원	일반·기능직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실	음악실	가사실	방송실	보건실	기타			
1994	23	5	16	316	1.5	1.5	2	1	0	0.5	0.5	1	0	1	

o 전입 및 전출은 각각 7.3%, 1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2> 연구대상 학교 전입 및 전출 현황

년도	전체 학생 수	전입		전출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09	316	23	7.3	42	13.3	·	·

o 2010년 3월 기준으로 학급 평균인원은 19명에서 26.5명이며 학년당 5명에서 10명 가량의 저소득층 수급가정 및 7명에서 12명의 중식지원자가 있다.

o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4, 5, 6학년의 집단이 선정되었으며, 사전 실태조사에는 4, 5, 6학년 전원이 참여하였고, 이 중 자원하는 30가구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준실험 설계 참가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 Ⅳ-3> 연구대상 학교 실태(2010년 3월 1일 기준)

실태 / 학년	1	2	3	4	5	6	특수	계
학급 편성	2	2	2	3	3	2	2	16
계	38	41	53	56	57	50	·	295
학급평균인원	19	20.5	26.5	19	19	25	·	21.5
수급자	?	5	6	8	4	10	(각 학년 포함)	약 40명
중식지원자	?	7	14	12	10	11	(각 학년 포함)	약 70명

(2) 특징

o 지역적 특징

· 조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이나, 소형·임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가정이 많다.
· 학교의 동서쪽으로 빗물펌프장 및 테크노타운(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 있다.
· 학교 정문과 마주한 테크노타운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과 옆에 위치한 S고등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상태다.
· 학교 주변에 교육 문화 생활 관련 시설 및 학습 관련 시설이 없고 대중교통이 미비하여 아동 체험학습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 학교 후문 입구가 좁고 사람의 인적이 드물어 위험했던 바, 최근 후문을 안전하고 아늑한 산책로로 조성하였다.
· 학교 내 유휴 공간의 부족으로 방과후 교실을 외부에 위탁해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학급수 감소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해 올해부터 교내에 방과후 돌봄교실을 설치해 실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전교생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현재 운동장에 체육관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o 학생 실태

· 전교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조손 가정, 새터민 다문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특수반에 오기 위해 타지역에서 입학이나 전입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온순하나 가정 형편상 적절한 케어가 미흡해 기본 생활습관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다.
· 모부자 가정, 조손 가정 등 가정 구조에 변화가 있는 아동 중 정서적인 장애를 보이는 아동이 많고, 이에 따라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학업 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 혼자 오후 일과를 보내는 시간이 많다.
· 집중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09년 말 교육복지 평가 및 욕구 설문 조사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해주었으면 하는 활동 1위로 33%의 학생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활동 제공을 꼽았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기획, 학생들 프로그램 참여 관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도 각 20% 정도의 욕구를 보인 바 아동들에게 밀착해서 지원하기를 바라며 특히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o 학부모 실태
· 2008년 말 교육과정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교 학부모 중 아버지만 직장생활이 47.5%, 어머니만 직장생활이 6.3%, 부모 맞벌이가 46.2%를 차지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학부모 연수나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한부모, 조부모, 정신 및 정서 장애 학부모, 심신이 병약한 보호자 등 아동에 대한 관심이 어려운 환경의 학부모가 많으며 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형편이 많다.
· 한글 해독의 어려움이나 언어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이 있어 이러한 가정의 자녀가 학교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이후 꾸준히 평생교육을 실시한 바 일반 가정 학부모들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았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조식지원사업이나 집중지원아동 대상 일대일 책읽어주기 등 자원봉사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연구 절차

o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총 8단계의 연구수행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1) 미디어 활용 사전 실태조사

o 연구대상 집단의 환경을 이해하고, 사전 및 사후검사지 작성의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미디어 활용 사전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 일시 : 2010년 5월 31일
· 대상 : Y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 (7명)

· 내용 : 연구 방향 및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분석 절차로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여부 확인, 연구대상 가능 가정 환경 이해
· 방법 : 개방형 설문 (open-ended questionnaire) 방식 활용
· 결과 :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할 문항 초안 구성, 세부적 연구문제 수립, 연구대상자 전원에서 무상으로 디지털 케이블 TV 보급을 실시함으로써 정보격차 1단계인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활용성을 교육적 방법을 통해 보완할 것을 고려하였다.

(2) 선행연구 사례조사

o 본 연구 설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및 해소활동의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로는 주요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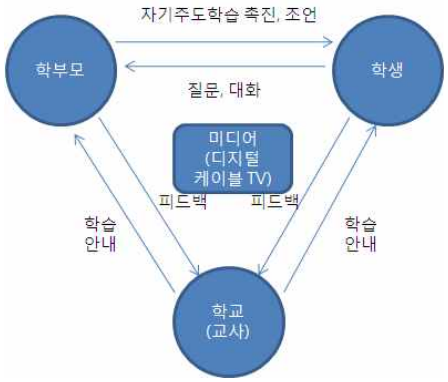
o 사례조사 결과, 정보격차에 관련된 해소활동은 있었으나 미디어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검증 및 실천은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학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해소를 위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더욱 미미한 실정이다.

o 특히, 정보격차 또는 미디어격차를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선행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교육적 활동을 통한 격차해소의 방법의 고려가 필요하나 것으로 확인되었다.

o 따라서 다음과 같은 미디어 격차 해소 원칙을 수립하였다.
· 첫째, 정보격차의 기본과제인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한다. (디지털 케이블 TV의 실험상황을 위한 무료 지원)
· 둘째,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사인 교육적 요구를 통해 미디어 격차의 해소방안을 강구한다.
· 셋째,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미디어 활용을 촉진하되 조언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상정한다.

· 넷째, 학교 또는 교사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활용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 다섯째, 학부모의 매체를 통한 자녀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도록 한다.

o 따라서 "**학교의 지원하에 자녀와 함께하는 미디어 (디지털 케이블 TV) 시청활동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자기주도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태도, 이해, 활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격차를 해소 한다.**"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모형 설계를 하였다. 다음 그림은 미디어 격차 해소원칙의 도식이다.



[그림 Ⅳ-1] 미디어격차 해소 전략

(3) 연구검사도구 타당도 조사

o 연구문제 설정에 따른 연구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 연구검사도구는 첫째, 사전검사 설문지 둘째, 사후검사 설문지 셋째, 학부모-학생용 반구조화된 인터뷰 프로토콜 넷째, 교사용 표적집단 인터뷰 프로토콜 다섯째 학습일지다.

o 사전 및 사후검사도구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므로 연구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검사지는 사전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검토하였으며, 내용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아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개하였다.

(4) 연구대상 선정

o 사전검사 이후 8주간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며 준실험연구에 참가할 학부모-학생의 양 연구대상자를 자원자를 지원받았으며, 자원 가정을 심사하여 최종 30가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정에는 총 6개월동안 디지털 케이블 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5) 사전검사

o 사전검사를 위해 연구대상학교 4, 5, 6학년 전원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사전검사지는 학생 및 학부모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작성하여 쌍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시 : 2010년 9월 29일 - 10월 2일
· 대상 : Y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및 학부모 각 153명
· 방법 : 서면 제출

(6) 사전교육 실시

o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단계별로 실시되었다.

o 교사 워크숍 실시
· 일시 : 2010년 9월 15일
· 대상 : Y 초등학교 교사
· 내용 : 연구의 취지를 설명 및 연구참여방법 설명

o 학부모 사전교육 실시

· 일시 : 2010년 10월 7일 - 8일
· 대상 : 준실험연구 참가 학부모 30명
· 내용 : 미디어 대한 학부모 자세와 학습매체 활용 방안, 자기주도 학습방법

o 학생 사전교육 실시

· 일시 : 2010년 10월 19일
· 대상 : 준실험연구 참가 학생 30명
· 내용 : 연구 개요 및 취지, 방법 설명, 미디어 대한 학생 자세와 학습매체 활용 방안, 자기주도 학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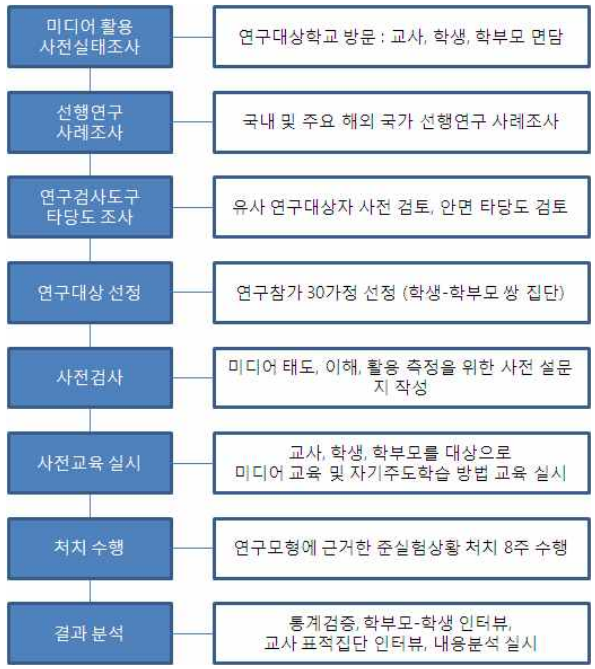
(7) 처치 수행

o 사전 교육 이후 연구 참가집단을 대상으로 8주에 걸쳐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가 연계되는 학습활동을 실시하였다.

· 일시 : 2010년 10월 18일 - 12월 10일 (8주)
· 대상 : 준실험연구 참가 30가구 (학생, 학부모)
· 내용 : 매주 1-2편의 디지털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어진 양식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청소감, 그리고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을 "학습일지"에 기입. 이는 학교측 담당교사들이 대상 학생들에게 직접 숙제로 제출하고 주 단위로 확인

(8) 결과 분석

o 처치의 결과를 양적 접근 및 질적 접근이 활용되는 혼합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 접근은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통계적 분석이, 질적 접근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교사들과 진행하는 표적집단 인터뷰, 그리고 학습일지의 내용분석이 포함된다.



[그림 Ⅳ-2] 연구 절차

2. 연구 문제

o 이론적 배경 및 연구집단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의 연구문제가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험연구가 진행되었고, 양적 및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문제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1) 연구문제 1 : 가정 내 미디어 활용에 격차가 존재하는가?

· 미디어 태도에 학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있는가?
· 미디어 이해에 학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있는가?
· 미디어 활용에 학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문제 2 :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이 효과가 있는가?

· 미디어 태도에 학부모와 자녀의 격차가 해소되었는가?
· 미디어 이해에 학부모와 자녀의 격차가 해소되었는가?
· 미디어 활용에 학부모와 자녀의 격차가 해소되었는가?

3) 연구문제 3 :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이 소외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의 소외계층 학부모의 미디어 태도, 이해,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이 소외계층 학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연구 모형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교육적 활용을 통한 가정 내 미디어 활용격차 활동의 연구모형이 구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교육

o 사전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비롯한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기본적은 이해를 위해 설정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 미디어(본 연구의 경우 디지털 케이블 TV 전문가의 집합교육(collective education)이 수행되는 기본 단계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원을 하는 T사의 담당 직원이 2회에 걸쳐 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케이블 TV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기주도 학습방법에 대한 강연을 시행하였다.

2) 학습자료 지원

o 디지털 케이블 TV의 방대한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연구대상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디지털 케이블 TV에서 선별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및 교사들이 연구공동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제공할 콘텐츠를 결정하고 이를 주단위 로 제공하였다.

3) 자기주도학습 수행

o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본 바,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높은 학습성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즉, 학생은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매체를 학습목적으로 활용하고, 학부모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 및 조정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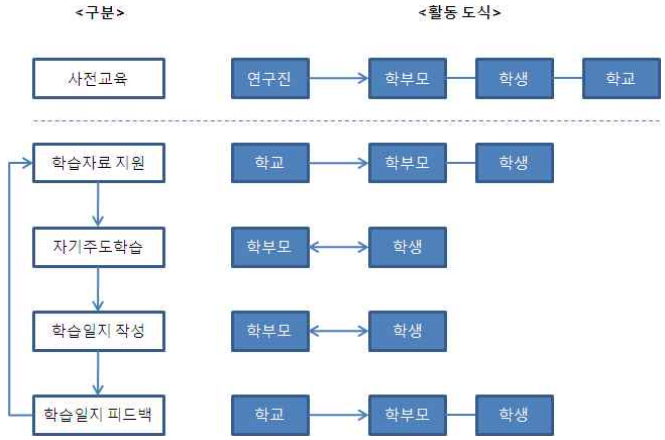
학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 이해, 활용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였다.

4) 학습일지 작성

o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반추(reflection)할 수 있는 학습일지의 기록과정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교육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학부모와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학부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2개의 프로그램을 시청 후 학습일지를 작성토록 처치하였다.

5) 학습일지 피드백

o 작성된 학습일지는 교사들이 수거하여 점검 및 피드백 활동을 수행토록 하였다. 본 과정의 목적은 지속적인 미디어 활용교육의 효과를 추구함은 물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한 교육활동 향상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단위로 교사들이 지속적인 학습일지 피드백 활동을 실시하였다. 피드백 이후에는 교사로부터의 학습자원 지속활동이 반복된다.



[그림 Ⅳ-3] 미디어격차 해소 연구모형

4. 방법론

1) 연구 대상

o 본 연구의 준실험 참가자 선별을 위해 사전 인터뷰 설문에 참가한 3, 4, 5, 6학년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 지원자를 모집하고, 모집자 중 학교와의 협력하에 선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구분의 경우 3학년 가정 2팀, 4학년 가정 9팀, 5학년 가정 15팀, 6학년 가정 4팀이었다. 둘째, 가정의 형편으로 분류할 경우 일반 17가정, 저소득층 가정(복지혜택 대상가구) 13가정이었다.

2) 연구 환경

o 연구 환경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교에서 교사가 수시로 학부모와 자녀에게 유용한 TV학습 콘텐츠를 추천해 주었다. 둘째, 해당 콘텐츠를 학부모는 자녀의 자기주도식 학습을 촉진시키는 조언자로서 참여하여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셋째, 학습 후 학부모와 자녀는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자기주도학습의 결과 및 시청 소감을 기술하였다. 넷째, 학습일지는 정기적으로 교사에게 반납하여 학습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3) 연구 도구

(1) 학습지원콘텐츠

미술의이해와감상	미술의이해와감상01~15
음악의이해와감상	음악의이해와감상01~15
동양철학산책	동양철학산책01~20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제3세계의역사와문화01~20
한국문화와 유물유적	한국문화와유물유적01~20
보이지않는 문화전쟁	보이지않는문화전쟁01~03
김훈 자전거유럽을달리다	김훈 자전거유럽을달리다01~10

kbs	스폰지
	비타민
	위기탈출넘버원
	인간극장
	동물의왕국
sbs	생활의 달인
	런닝맨
	세상의이런일이
ebs	방과후영어
	초등|영재수학 요약
	EBS초등
	EBS초등 요약
	극한직업
	road diary
	문수의 fuuny voca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세계의교육현장
기타	명의
	다큐 - 숲의지배자
	다큐-다큐스페셜아마존
	샤크아일랜드
	여행백서
	정철영어

(2) 학습 일지

학 습 일 지 〈학생 작성란〉

( ) 학년 ( ) 반 이름 ( )

작성날짜 : 2010 년 월 일

* 이번 한 주일 동안 디지털TV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_____

* 이번 한 주 동안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유익했던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록하세요.

1. 프로그램 이름
2. 프로그램 내용 (줄거리,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 인상적인 내용 등을 3줄 이상 구체적으로 쓰시오.)
3. 느낀 점(깨달은 점, 알게 된 점, 배운 점, 교과서와 관련해 도움 받은 점, 인 상적이거나 재미있던 점, 아쉬운 점 등을 3줄 이상 구체적으로 쓰시오.)
4. 더 알고 싶은 점(다음 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등을 2줄 이상 구체적으로 쓰시오.)

4) 연구 방법

o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혼합방법(mixed method)이 활용되었다. 혼합방법은 단일한 연구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합함으로서, 단일한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혼합되어 활용되었다.

o 본 연구에서 채택된 혼합 방법을 중심으로 방법론적 다각검증(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추구하였다. 방법론적 다각검증이란 첫째, 어떤 연구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하여 얼 다른 측정법의 운영이나 혹은 실증적 결과를 채택하는 연구전략이며(Campbell & Fiske, 1959) 둘째, 여러 다른 원천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위한 전략이나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다른 전략을 이용한 분석을 지칭한다(이종규, 2006). 다각검증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차원적인 방식의 검증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종규(2006: 388-389)에 의하면 다각검증의 원리로서 첫째,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의 결과는 수렴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같은 결론을 가져 온다. 둘째,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의 결과는 다른 목적이나 현상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로 보완적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서로 보충하여 이용될 수 있거나 혹은 상식적 지식의 추론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은 분기(divergent) 하거나 모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각검증은 단일한 검증방법이 가질 수 있는 결과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으로서, 연구결과를 보다 정련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다.

o 본 연구의 다각검증을 위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양적 자료분석에 의한 검증, 질적 자료분석 방법을 따른 학부모 및 학생 인터뷰, 교사들의 집단 면접, 그리고 학습일지 내용분석을 통한 결과 검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1) 양적 접근

o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1차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해 사전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용어 선택의 문제 등을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2차로는 미디어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설문 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받는 안면 타당도 (face validity)를 실시하여 설문 내용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사전 및 사후 검사를 통해 연구참가자 30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어 양적접근 분석을 실시하였다.

o 양적 접근의 목적은 첫째, 가정 내 미디어 활용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실험처치 후 가정 내 미디어 활용격차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실험학교 학생 및 학부모 153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서 샘플 수를 확보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기술분석(discriptive statistics)을 비롯하여 T검증 등이 활용되었다.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pre-post test)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처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미디어 활용격차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다.

(2)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o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 프로토콜(semi-structured interview protocol)을 적용한 인터뷰 안내접근(interview guide approach)기법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사전에 적절히 구조화된 인터뷰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지만, 인터뷰 당시의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따라 보다 깊은 내용의 정보획득이 기대될 때 비구조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인터뷰 방법이다 Freebody, 2004 ; Johnson & Christensen, 2004). 인터뷰 프로토콜의 설문내용은 태도에 관한 질문, 이해에 관한 질문, 활용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기타사항으로 학부모의 역할, TV 활용교육의 장·단점, 그리고 제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반구조화된 설문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 되었으며,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발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

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해당 학부모가 쌍(pair)을 이루어 동시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자로서 본 연구의 보조원들인 K대학교 대학원생 2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실시 훈련을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다. 인터뷰들이 인터뷰는 우선 참가자들과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본 인터뷰 실시 전 약 10분에 걸쳐 학교생활 및 근황 등을 소재로 대화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한 가정 당 약 40분에서 1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반구조화된 인터뷰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준비된 문항들을 질문한 이후 참가자들로부터 보충 답변을 유도하고,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방식의 질문을 지속함으로써 풍부한 내용과 심도 깊은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o 인터뷰 참가집단은 총 20명으로서 학생 10명, 학부모 10명임. 학생의 경우 4학년 6명, 5학년 2명, 6학년 2명이며 성별로 구분할 경우 남녀 각각 5명과 5명씩이었다. 특히 일반 가정 5가구와 복지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 5가구가 균등하게 참가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참가하였으며,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할머니가 한 가정 참가하였다. 또한 조모가정 1가구를 비롯하여 편모가정 1가구, 다문화가정 1가구가 참여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동남아시아 출신으로서 영어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표 Ⅳ-4> 인터뷰 참가자 배경

구분		학생		학부모		
		성별	학년	참여대상	직업	비고
가	일반	남	4	어머니	전업주부	
나	일반	여	4	어머니	사무직	
다	일반	남	5	어머니	준전문가	
라	일반	남	5	어머니	전업주부	
마	일반	여	6	어머니	전업주부	
바	복지	남	4	어머니	전업주부	
사	복지	남	4	어머니	프리랜서	모자가정
아	복지	여	4	어머니	영어강사	다문화
자	복지	여	4	어머니	전업주부	
차	복지	여	6	할머니	·	조모가정

※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자'로 표시하였음.

(3) 표적집단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o 초점집단 면접이라고도 불리는 FGI는 연구참여자 또는 면접참여자를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수명 선발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연구 및 면접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Thomas, MacMillan, McColl, Hale 그리고 Bond(1995)에 따르면 FGI는 일련의 심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방법의 일종으로서, 해당 집단은 비록 특정한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목적적으로 선택되며, 주어진 주제에 따라 집중된 인터뷰를 집단 내에서 질문에 따른 토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고 하였음]다. FGI는 보통 수 십 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하기도 하며, 응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가 도출되어야 하므로 면접자는 응답자 전원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o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 학교인 Y초등학교에서 연구 집단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4명과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지역사회전문가 1명으로 총 5명이 FGI에 응하였으며, 총 면접시간은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진행은 질적 연구방법 및

FGI에 전문지식이 있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1명이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초등학교의 복지실에서 면접이 실시되었으며, 자료분석의 단계에서는 인터뷰 노트, 오디오 녹음파일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을 바탕으로 획득한 정보는 전사(transcription)되었고, 전사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전사내용을 전송하여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과 의도가 맞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멤버 체크(member check)의 절차를 걸쳐 인터뷰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Ⅳ-5> FGI 참가자 배경

구분	성별	연령	담임학년	비고
A	여	44	3	교직경력 20년
B	여	48	4	교직경력 20년
C	여	48	5	교직경력 22년
D	여	46	5	교직경력 20년
E	여	38	비담임	지역사회전문가 경력 8년

※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E'로 표시하였음.

(4)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

o 학습일지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 기법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및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 내용 또는 유형을 다루는 주제별 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Neuendorf, 2002)이 분석의 기본단위로 채택되었다. 분석단계에서는 노드(nodes)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별 분석이 실시되었다.

Ⅴ. 연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1) 미디어 활용현황

(1) 질문내용 : 평소 TV, 컴퓨터,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o 설문을 위해 작성된 Likert식 척도는 전혀 안본다(1), 일주일에 한 두 번(2), 하루에 1시간 미만(3), 하루에 1-2시간(4), 하루에 2-3시간(5), 하루에 3-4시간(6), 하루에 4시간 이상(7)이었다.

o 기술통계 결과 자녀 및 학부모는 각각 153명이 설문에 응했다. TV의 경우 자녀의 평균은 3.96, 학부모는 4.37이었으며, 컴퓨터의 경우 자녀 2.86, 학부모 3.42였다. 또한 휴대폰의 경우 자녀 3.14, 학부모 3.6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TV, 컴퓨터, 휴대폰 모두 자녀에 비해 학부모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표 Ⅴ-1> 미디어 활용실태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TV	자녀	153	3.96	1.37
	학부모	153	4.37	1.41
컴퓨터	자녀	153	2.86	1.21
	학부모	153	3.42	1.55
휴대폰	자녀	153	3.14	1.49
	학부모	153	3.66	1.36

o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통계적 차이분석 결과 TV는 $p<.05$수준에서, 컴퓨터는 $p<.001$수준에서, 그리고 휴대폰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비해 주요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 미디어 활용실태 차이검증 결과

구분	t값	자유도	p값
TV	−2.55	304	.011
컴퓨터	−3.54	304	.000
휴대폰	−3.21	304	.001

(2) 질문내용 :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1.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에 관심이 많다.
2.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를 잘 다룬다.
3.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 작동법을 알려주면 잘 다룰 수 있다.
4.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o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바탕으로 한 기술통계 결과 질문 1, 2, 3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학부모는 주요 미디어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냐는 질문의 경우 자녀보다 다소 긍정적인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Ⅴ-3> 태도 관련 질문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1	자녀	153	3.40	1.03
	학부모	153	2.99	.97
2	자녀	153	3.52	1.12
	학부모	153	3.15	1.01
3	자녀	153	3.88	1.07
	학부모	153	3.82	.84
4	자녀	153	3.64	1.09
	학부모	153	3.75	.91

o 차이분석 결과, 평소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에 관심이 많거나 잘 다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각각 p<.001, p<.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자녀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사용법만 알려준다면 잘 다룰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녀와 학부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통계 결과도 자녀의 평균 3.88에 못지않은 3.82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될 경우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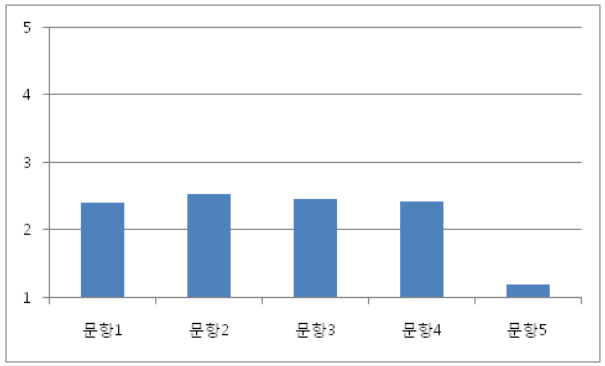
<표 Ⅴ-4> 태도 관련 질문 차이검증 결과

구분	t값	자유도	p값
1	3.60	304	.000
2	3.06	304	.002
3	.54	304	.593
4	−.97	304	.333

2) TV관련 실태

(1) 질문내용 : 학생들이 TV를 안보는 이유

1. 부모님이 못 보게 해서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서
3. 공부에 방해가 돼서
4. 볼 시간이 없어서
5. TV가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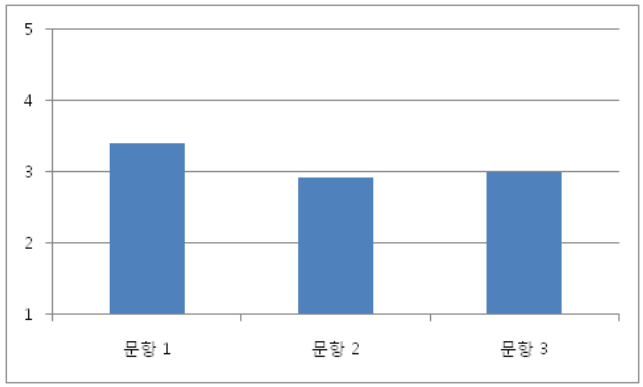


[그림 Ⅴ-1] 학생들이 TV를 안보는 이유 실태조사 결과

o 학생들이 TV를 안 보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부모님이 못 보게 해서 2.40,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서 2.53, 공부에 방해가 돼서 2.46, 볼 시간이 없어서 2.42, TV가 없어서 1.20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ikert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TV를 시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문내용 : 학부모들이 TV시청을 잘 안할 경우 이유

1.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서
3. 볼 시간이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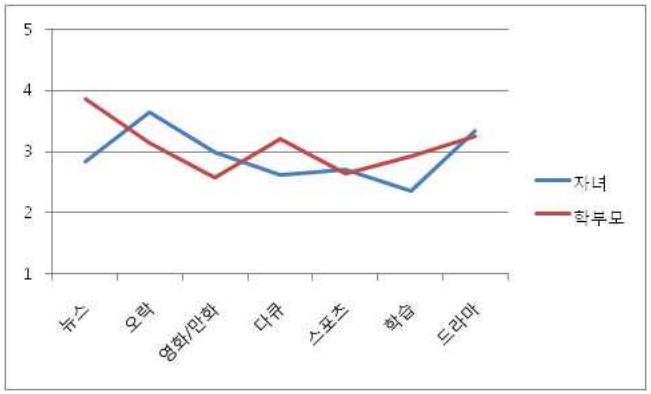


[그림 Ⅴ-2] 학부모들이 TV를 안보는 이유 실태조사 결과

o 학부모들이 TV시청을 안 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Likert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 대해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가 3.4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볼 시간이 없어서가 3.00,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서가 2.92의 순이었다. 즉, TV가 자녀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질문: 자녀와 학부모들이 보는 TV 내용

o 자녀와 학부모들에게 주로 어떻게 TV내용을 시청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Likert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 대한 응답으로 자녀는 오락 또는 드라마 프로그램의 시청비율이 높은 방면 학습목적으로는 거의 시청하지 않았다. 학부모는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시청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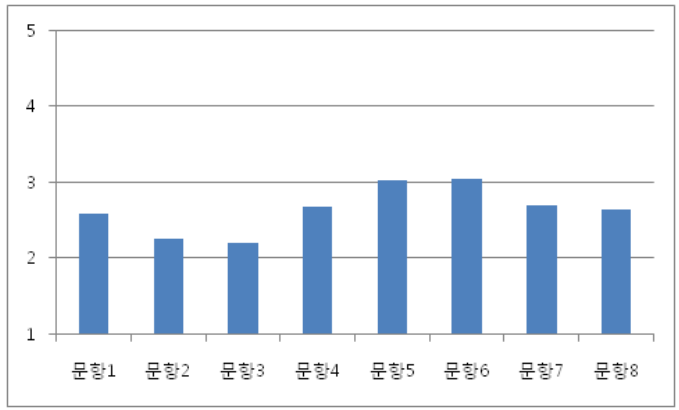


[그림 Ⅴ-3] 자녀와 학부모들이 시청하는 TV내용 실태조사 결과

(4) 질문내용 : 학생들이 TV시청 시 어떤 도움이 되는가?

1.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2. 부모님과 가까워진다.
3. 공부에 도움이 된다. 4. 친구와 대화에 도움이 된다.
5. 아는 게 많아진다. 6. 새로운 지식을 접한다.
7. 시간을 때우기 좋다. 8.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o Likert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작성된 문항의 응답에는 1.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2.58, 2. 부모님과 가까워 진다 2.25, 3. 공부에 도움이 된다 2.20, 4. 친구와 대화에 도움이 된다 2.69, 5. 아는 게 많아진다 3.03, 6. 새로운 지식을 접한다. 3.05, 7. 시간을 때우기 좋다 2.70, 8.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2.63 등의 결과가 나왔다. 개방형 응답은 재미있어서, 지루함을 없애주니까 등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TV시청에 대한 강한 동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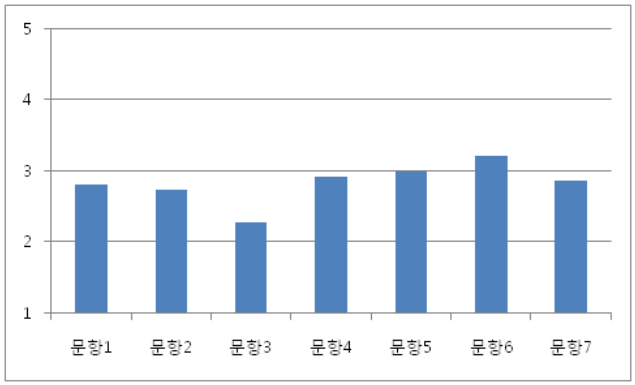


[그림 Ⅴ-4] 학생들이 TV시청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실태조사 결과

(5) 질문내용 : 학부모들이 TV시청 시 어떤 도움이 되는가?

1. 자녀와 대화에 도움이 된다. 2. 자녀와 가까워진다.
3. 자녀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4. 다른 사람과 대화에 도움이 된다.
5. 정보나 학습자료를 얻는다. 6. 새로운 지식을 접한다.
7. 여가활동에 좋다.

o Likert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응답에 의하면 1. 자녀와 대화에 도움이 된다 2.80, 2. 자녀와 가까워진다 2.72, 3. 자녀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2.28, 4. 다른 사람과 대화에 도움이 된다 2.92, 5. 정보나 학습자료를 얻는다 2.99, 6. 새로운 지식을 접한다 3.21, 7. 여가활동에 좋다 2.85로서 전체적으로 TV시청활동이 특별히 유의미한 결과나 목적을 얻고자 하는 바가 아님을 추측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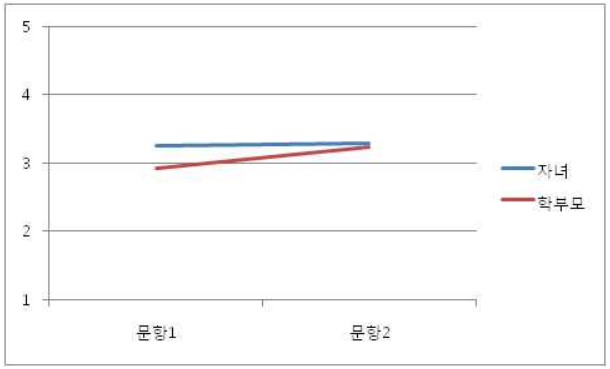


[그림 Ⅴ-5] 학부모들이 TV시청시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실태조사 결과

(6) 질문내용 : TV 시청 만족도

1. TV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2. 앞으로도 계속 TV 시청 예정

o Likert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실시된 문항은 대체로 만족도가 중립적인 수준이었으며, 향후 TV시청에 대한 의지도 보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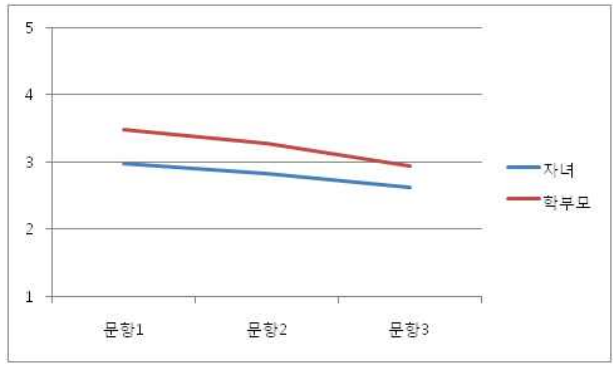
[그림 Ⅴ-6] TV시청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

3) 디지털 케이블 TV 관련

(1) 질문내용 :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1.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 디지털 케이블 TV가 무엇인지 잘 안다
3. 디지털 케이블 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안다

o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응답에 따르면 자녀와 학부모 모두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학부모가 자녀에 비해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평소에 학부모가 자녀에 비해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정보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Ⅴ-7]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실태조사 결과

(2) 질문내용 : 디지털 케이블 TV 시청여부

o 디지털 케이블 TV 시청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효응답 140가구 중 30%인 42가구가 시청하고 있었으며, 70%인 98가구는 시청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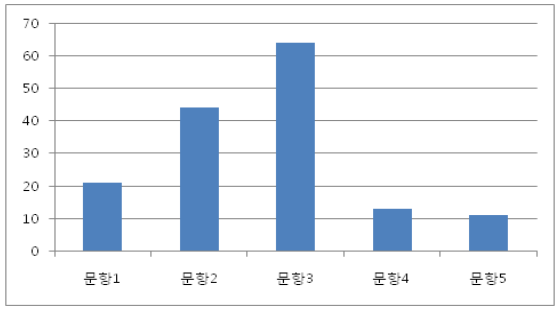
<표 Ⅴ-5> 디지털 케이블 TV 시청여부 현황

		빈도	비율
유효응답	예	42	30.0
	아니오	98	70.0
	Total	140	100.0

(3) 질문내용 : 디지털 케이블 TV 미시청 시 이유

1. 디지털 케이블 TV가 뭔지 잘 몰라서
2. 가격이 부담되어서
3.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4.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5.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o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칠까봐'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격이 부담되어서', '디지털 케이블 TV가 뭔지 잘 몰라서'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Ⅴ-8]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않을 경우 이유 설문 결과

2. 연구처치 결과

o 본 연구처치는 준실험 참가집단 30가구를 대상으로 연구 모형에 따라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한 처치에 대해 사전 및 사후 설문을 바탕으로 처치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o 사전 및 사후검증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대응표본 t 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1) TV 시청시간의 변화

o 설문을 위해 작성된 Likert식 척도는 전혀 안본다(1), 일주일에 한두번(2), 하루에 1시간 미만(3), 하루에 1-2시간(4), 하루에 2-3시간(5), 하루에 3-4시간(6), 하루에 4시간 이상(7)이었다.

o 기술통계 결과 자녀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 4.10에서 사후검사 평균 4.14로 다소 상승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평균 4.29에서 4.43으로 역시 소폭 상승하였다.

<표 Ⅴ-6> TV 시청시간 변화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사전	자녀	30	4.10	1.48
	학부모	30	4.29	1.38
사후	자녀	30	4.14	1.15
	학부모	30	4.43	1.36

o t검증 결과 자녀와 학부모 모두 유의수준 α.=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TV 시청의 양적 변화 확인결과 기술통계상 다소 시청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7> TV 시청시간 변화 차이검증 결과

구분	t값	자유도	p값
자녀	−.20	20	.85
학부모	−.53	20	.60

2) 매체 태도의 변화

(1) 미디어 기기 관심정도 변화결과

o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에 관심이 많다."의 질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전 및 사후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기술통계 결과 자녀와 학부모 모두 평균이 각각 3.67에서 3.90으로, 그리고 2.86에서 3.10으로 상승하였다.

<표 Ⅴ-8> 미디어 기기 관심정도 변화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사전	자녀	30	3.67	.86
	학부모	30	2.86	1.38
사후	자녀	30	3.90	.85
	학부모	30	3.10	.62

o t검증 결과는 α.=05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9> 미디어 기기 관심정도 변화 차이검증 결과

구분	t값	자유도	p값
자녀	−.96	20	.35
학부모	−1.00	20	.33

(2) 미디어 기기 작동 수월성 변화 결과

o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를 잘 다루는 편이다."의 질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전 및 사후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기술통계 결과 자녀의 경우 3.90에서 3.86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학부모의 경우 3.05에서 3.19로 다소 상승하였다.

<표 Ⅴ-10> 미디어 기기 작동 수월성 변화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사전	자녀	30	3.90	1.18
	학부모	30	3.05	.92
사후	자녀	30	3.86	.86
	학부모	30	3.19	.68

o t검증 결과는 α.=05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Ⅴ-11> 미디어 기기 작동 수월성 변화 차이검증 결과

구분	t값	자유도	p값
자녀	.24	20	.82
학부모	−.72	20	.48

(3) 미디어 기기 활용 자신감 변화 결과

o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도 누가 사용법을 알려만 준다면 잘 다룰 자신이 있다."의 질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전 및 사후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기술통계 결과 자녀의 경우 4.10에서 4.19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학부모는 사전 및 사후 3.80이었다.

<표 Ⅴ-12> 미디어 기기 활용 자신감 변화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사전	자녀	30	4.10	1.00
	학부모	30	3.80	.75
사후	자녀	30	4.19	.98
	학부모	30	3.80	.68

o t검증 결과는 α.=05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3> 미디어 기기 활용 자신감 차이검증 결과

구분	t값	자유도	p값
자녀	−.70	20	.49
학부모	0	20	1

(4) 미디어 기기 필요성 인식 변화 결과

o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의 질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전 및 사후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기술통계 결과 자녀의 경우 4.10에서 4.19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학부모는 사전 및 사후 3.80이었다.

<표 Ⅴ-14> 미디어 기기 필요성 인식 변화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사전	자녀	30	3.86	.96
	학부모	30	3.95	.97
사후	자녀	30	3.61	.80
	학부모	30	4.14	.79

o t검증 결과는 α.=05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Ⅴ-15> 미디어 기기 필요성 인식 차이검증 결과

구분	t값	자유도	p값
자녀	1.42	20	.17
학부모	−1.45	20	.16

3) TV활용 선호도 및 만족도 변화

(1) TV 미시청 이유 변화

o TV를 안 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세부 항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o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항목별 이유는 1. 부모님이 못 보게 해서,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서, 3. 공부에 방해가 돼서, 4. 볼 시간이 없어서, 5. TV가 없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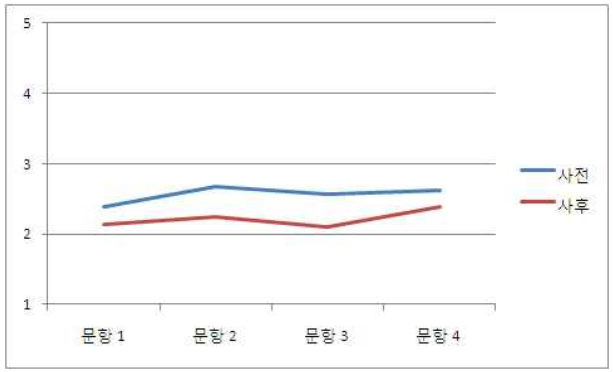
o 학생 대상의 경우 1 ~ 4번 항목 결과 추론통계상로는 차이가 있지 않으나 기술통계 분석결과 모두 하락하였다. 즉, T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결과는 8주의 제한된 기간 동안의 준실험 처치를 고려할 경우 기간이 늘어나 지속적인 시청이 TV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16> TV 미시청 이유 학생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2.38	1.24
	사후	30	2.14	.91
문항 2	사전	30	2.67	1.24
	사후	30	2.24	.94
문항 3	사전	30	2.57	1.16
	사후	30	2.10	.77
문항 4	사전	30	2.62	1.16
	사후	30	2.38	.86
문항 5	사전	30	1	0
	사후	30	1	0

o TV 미시청 이유의 사전 및 사후 검사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시 T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술통계상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9] TV 미시청 이유 학생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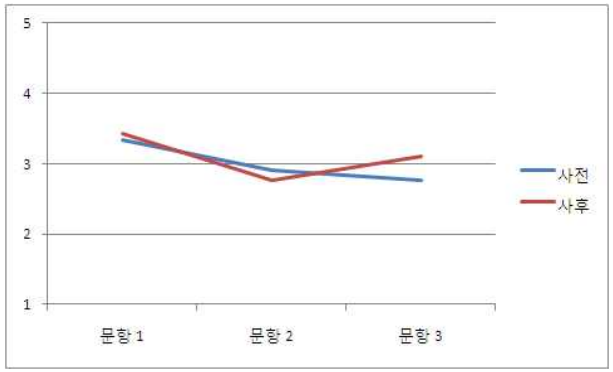
o 다음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TV 미시청 이유의 사전 및 사후 검사결과를 분석하면, 문항1.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서, 3. 볼 시간이 없어서였다.

o 분석결과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면서 다채널을 경험하면서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서"라는 항목은 다소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채널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줄지 않았으며, 부모들이 볼 시간이 없다는 항목 역시 줄지 않았다. 이는 학생-학부모 인터뷰 결과에서 제대로 구조화된 부모-자녀간의 자기주도학습에 만족한 학부모들은 TV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강한 긍정의 답변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TV활용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Ⅴ-17> TV 미시청 이유 학부모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3.33	.58
	사후	30	3.43	.68
문항 2	사전	30	2.90	.62
	사후	30	2.76	.70
문항 3	사전	30	2.76	.62
	사후	30	3.10	.77

o 학부모들이 기술한 TV 미시청 이유에 대한 대답의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Ⅴ-10] TV 미시청 이유 학부모 대상 사전 및 사후 비교

(2) TV 시청 분야 변화

o 어떤 유형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냐는 질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응답한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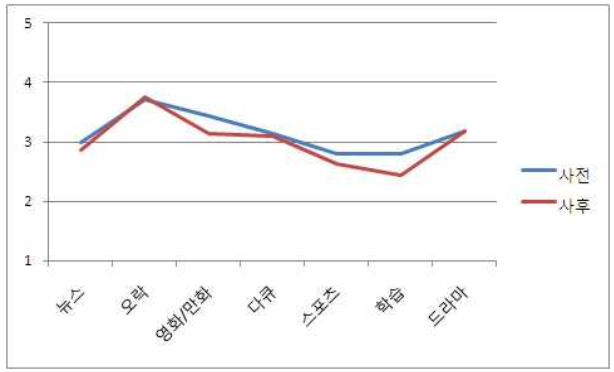
o 응답의 범주는 학생 및 학부모 모두 뉴스, 오락, 영화/만화, 다큐멘터리, 스포츠, 학습, 드라마 등이었다.

o 사전 및 사후 비교 결과 디지털 케이블 TV의 다채널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우려로 학생들의 TV보기 습관을 기존보다 더욱 제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케이블 TV가 자녀의 학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응답과 일관된 결과로서 디지털 케이블 TV에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육프로그램의 시청 전략 등 보다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결과는 하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TV 시청 내용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 부문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18> 학생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뉴스	사전	30	3.00	1.18
	사후	30	2.86	1.06
오락	사전	30	3.71	.96
	사후	30	3.76	.94
영화/만화	사전	30	3.43	.98
	사후	30	3.14	1.15
다큐	사전	30	3.14	1.28
	사후	30	3.10	1.30
스포츠	사전	30	2.81	1.12
	사후	30	2.62	1.02
학습	사전	30	2.81	1.03
	사후	30	2.43	.81
드라마	사전	30	3.19	1.24
	사후	30	3.19	1.24

o 학생들의 TV 시청 내용 변화의 양상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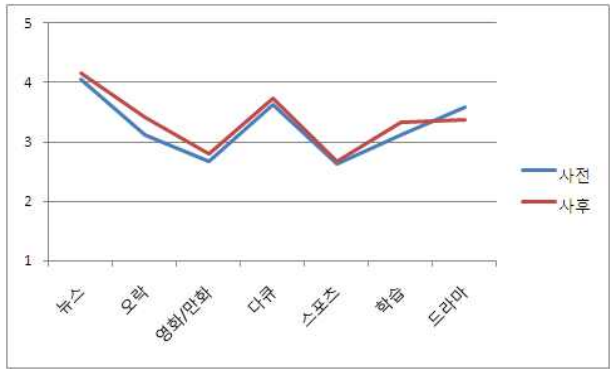
[그림 Ⅴ-11] 학생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o 다음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TV 시청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TV 시청을 제한한 반면 학부모 본인들은 사전 검사에 비해 모든 영역이 다소 향상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자녀들에게는 공부 방해의 이유로 시청 시간을 통제했지만 학부모들은 디지털 케이블 TV를 보다 많이 즐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오락 시청 비율은 통계수준 α.=05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t=-2.36, df=18).

<표 Ⅴ-19> 학부모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뉴스	사전	30	4.05	.62
	사후	30	4.16	.69
오락	사전	30	3.11	.81
	사후	30	3.42	.77
영화/만화	사전	30	2.68	.75
	사후	30	2.79	.63
다큐	사전	30	3.63	.60
	사후	30	3.74	.56
스포츠	사전	30	2.63	.96
	사후	30	2.68	.86
학습	사전	30	3.11	.74
	사후	30	3.32	.58
드라마	사전	30	3.58	1.01
	사후	30	3.37	.96

o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TV 시청 분야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Ⅴ-12] 학부모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3) TV 시청 효과인식 변화

o TV 시청이 아래의 각 항목들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시하였으며 응답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o 응답의 범주는 학생의 경우 1.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2. 부모님과 가까워진다. 3. 공부에 도움이 된다. 4. 친구와 대화에 도움이 된다. 5. 아는 게 많아진다. 6. 새로운 지식을 접한다. 7. 시간을 때우기 좋다. 8. 스트레스가 해소된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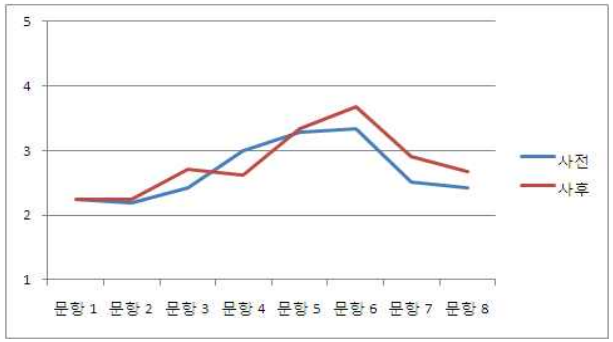
o 학부모 대상 응답의 범주는 1. 자녀와 대화에 도움이 된다. 2. 자녀와 가까워진다. 3. 자녀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4. 다른 사람과 대화에 도움이 된다. 5. 정보나 학습자료를 얻는다. 6. 새로운 지식을 접한다. 7. 여가활동에 좋다. 였다.

o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전 검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늘어났으며, 특히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43에서 2.71로 증가되었고, 대신 친구와의 대화는 3.00에서 2.62로 감소하였다.

<표 Ⅴ-20> 학생 대상 TV 시청 효과인식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2.24	.94
	사후	30	2.24	.94
문항 2	사전	30	2.19	1.12
	사후	30	2.24	.94
문항 3	사전	30	2.43	1.08
	사후	30	2.71	1.01
문항 4	사전	30	3.00	1.18
	사후	30	2.62	1.28
문항 5	사전	30	3.29	1.01
	사후	30	3.33	1.02
문항 6	사전	30	3.33	1.15
	사후	30	3.67	.97
문항 7	사전	30	2.52	1.12
	사후	30	2.90	1.22
문항 8	사전	30	2.43	1.08
	사후	30	2.67	1.62

o 학생들의 TV 시청 효과인식의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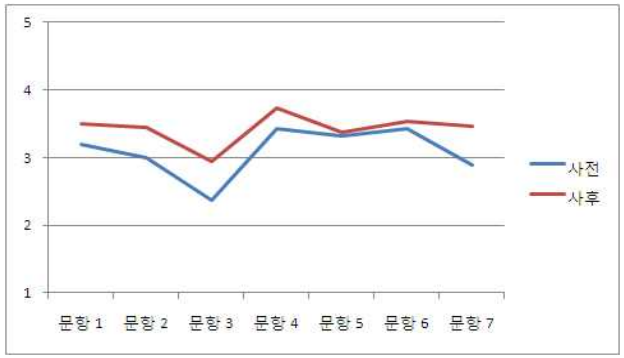
[그림 Ⅴ-13] 학생 대상 TV 시청 효과인식 사전 및 사후 비교

o 다음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TV 시청 효과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항 2, 3, 7 즉 "자녀와 가까워 진다", "자녀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여가활동에 좋다" 항목은 통계적 유의수준 α.=05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TV시청의 효과는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효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표 Ⅴ-21> 학부모 대상 TV 시청 효과인식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3.20	.94
	사후	30	3.50	.94
문항 2	사전	30	3.00	1.12
	사후	30	3.45	.94
문항 3	사전	30	2.37	1.08
	사후	30	2.95	1.01
문항 4	사전	30	3.42	1.18
	사후	30	3.74	1.28
문항 5	사전	30	3.32	1.01
	사후	30	3.37	1.02
문항 6	사전	30	3.42	1.15
	사후	30	3.53	.97
문항 7	사전	30	2.89	1.12
	사후	30	3.47	1.22

o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TV 시청 효과인식 사전 및 사후 비교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Ⅴ-14] 학부모 대상 TV 시청 내용 사전 및 사후 비교

(4) TV 시청 만족도 변화

o TV 시청 만족도는 학생과 학부모 공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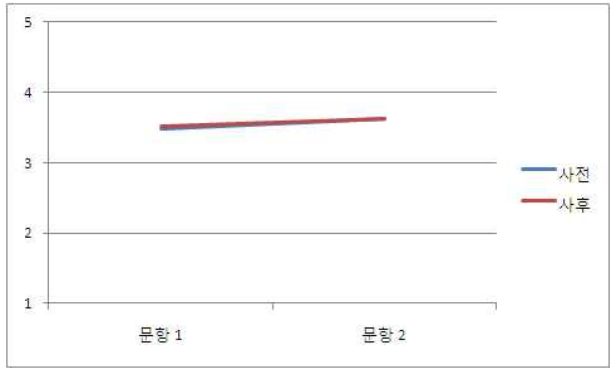
o 응답의 범주는 1.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앞으로도 계속 시청할 계획이다. 였다.

o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졌다.

<표 Ⅴ-22> 학생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3.48	.81
	사후	30	3.52	.87
문항 2	사전	30	3.62	.92
	사후	30	3.62	.50

o 학생들의 TV 시청 효과인식의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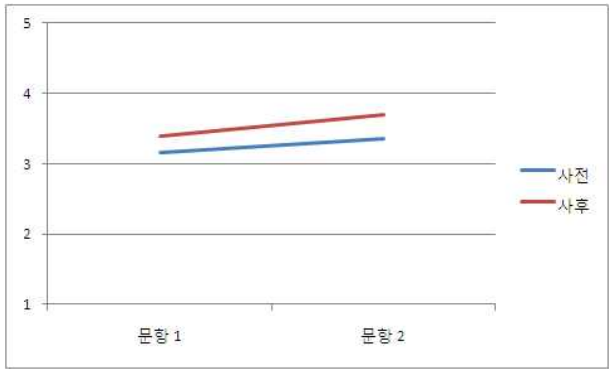
[그림 Ⅴ-15] 학생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o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TV 시청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TV 시청 효과인식의 결과와 일관되는 반응으로써, 학부모들에게서 특히 연구처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Ⅴ-23> 학부모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3.15	.67
	사후	30	3.40	.68
문항 2	사전	30	3.35	.93
	사후	30	3.70	.57

o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Ⅴ-16] 학부모 대상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5)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변화

o 디지털 케이블 TV의 이해도 변화를 학생 및 학부모 모두에게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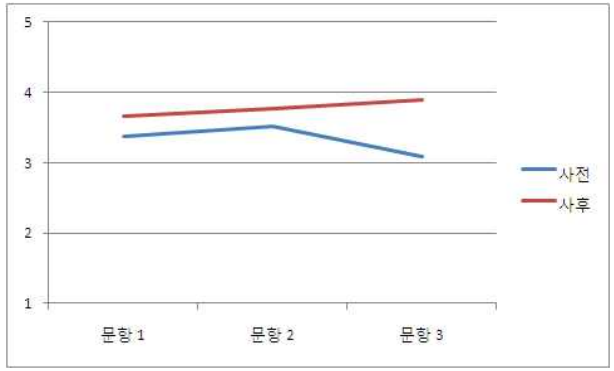
o 응답의 범주는 1.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2. 디지털 케이블 TV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3. 디지털 케이블 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o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디지털 케이블 TV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P=.013으로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4> 학생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3.38	1.50
	사후	30	3.66	1.39
문항 2	사전	30	3.52	1.57
	사후	30	3.76	1.14
문항 3	사전	30	3.09	1.37
	사후	30	3.90	1.04

o 학생들의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의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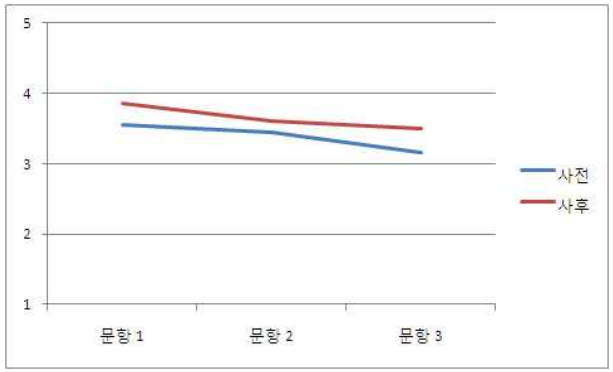
[그림 Ⅴ-17] 학생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o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비교 결과 전체적으로 디지털 케이블 TV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폭은 디지털 미디어에 보다 친숙한 자녀들에 비해 큰 편은 아니었다.

<표 Ⅴ-25> 학부모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오차
문항 1	사전	30	3.55	1.23
	사후	30	3.85	.67
문항 2	사전	30	3.45	1.31
	사후	30	3.60	.82
문항 2	사전	30	3.15	1.39
	사후	30	3.50	.89

o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TV 시청 만족도 사전 및 사후 비교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Ⅴ-18] 학부모 대상 디지털 케이블 TV 이해도 사전 및 사후 비교

3. 학습일지 결과

1) 개요

o 학습일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내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작성토록 독려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일지 작성을 위해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처치되었다.

o 학습일지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작성한 바를 그대로 표기하여 오탈자 등이 발견될 수 있다.

o 학습일지의 작성은 지속적으로 요청되었으나, TV시청 이후 학부모와 자녀가 일종의 소감문을 작성하는 과제로 생각한 측면이 많아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부족하였다.

2) 결과

(1) 학습 증진

o TV콘텐츠인 자전거여행에 대한 TV 시청을 통해 독일의 중요문화재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독일의 중요문화재와 자전거 도로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정책 시행 방법 등을 보여졌다. ..... 우리보다 자전거에 대한 정책 시행법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 더 환경이 깨끗한 것 같다." (김훈의 자전거를 타고 유럽을 달린다. -제1화- 시청 : 5학년 이00)

o 디지털사회에서 기술문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흥미를 보였다. 이는 TV 콘텐츠가 정보 및 미디어 격차 해소에 시사점을 주는 역할을 한 사례다.

"현대사회는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다. 휴대전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편안한 삶. 방수용 MP3. 유비쿼터스. RFID. BMS(버스운행 관리 시스템)의 등장.....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BMS(버스운행 스템)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어 조급함 없이 기다릴 수 있어서 좋다. 유비쿼터스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RFID: 사물의 위치. 정보 사실을 알려줌"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 시청, 3학년 성00)

o 외국의 생활상과 주산지 등을 TV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타국가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호기심 증가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시골장터와 비슷한 피삭 마을에서는 옥수수와 안데스가 고양인 감자와 잉카문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감자가 많은 페루에는 츄뇨라는 말린 감자가 있는데 10~12년까지 저장이 가능한 것과 스페인의 침략으로 잉카제국은 멸망했다. 잉카제국 사람들은 어떻게 높은 산 위에 돌로 탑을 쌓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모로코에서는 가죽을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다. 북아프리카에 있고, 사하라 사막 일부를 끼고 있다. 가죽을 물들이는 방식이 1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천연재료로 물들인다. 천연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고, 사막에 돼가 발달된 이유를 알고 싶다." (세계테마기행-페루 및 모로코 시청 : 3학년 지00)

o 학교나 가정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우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식습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대화를 학생과 학부모가 하였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고 소심한 성격보다는 활발한 성격이 좋고 물을 많이 먹고 샤워를 자주해야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은 일들이지만 특히 물은 많이 먹는게

참 힘들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알고 싶다." (비타민 시청, 6학년 이00)

o TV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자존감, 집중력이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자제력과 자신의 공부법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누나와 형들을 보았다. 0.1% 학생과 일반학생들의 차이는 부모와 대화를 하고난 후 일반학생은 우울해보였고, 0.1% 학생은 밝아보였는데 자기 자존감이었다. 1% 학생들의 공통점은 사교육에 의하지 않고 학교수업에 집중하였다. 저렇게 누나와 형들이 열중하는 0.1%의 자세를 보면 본받고 싶다.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도 자제하고 나만의 공부법을 찾고 싶다." (학교란 무엇인가 시청 : 4학년 김00)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o 외국의 학교사례를 통해 공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수업방식에도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 한편,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이 프로를 함께 감상하고 어떠한 교육 방법이 자녀를 위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고,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방송됨. ..... '집중하기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1:1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학교란 무엇인가? 시청, 3학년 성00)

"'나는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을 많이 많이 해주어야 겠다." (학교란 무엇인가? 시청 : 3학년 성00 학부모)

o 가정에서 TV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감상한 학부모는 시청 이후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상황을 소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 내용은 화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 조절에 대한 것이다. 화를 다스릴 시간을 만드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담에는 과체중에 대하여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슬로우푸드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다." (세계의 교육현장 시청 4학년 : 최00)

"'아, 화를 참는 것 보다는 올바로 분출을 해야 하는거구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 특히 아이가 '엄마도 지금부터 저렇게 해!', '나한테 무작정 야단치지 마'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감하게 됨." (세계의 교육현장 시청 4학년 : 최00)

o TV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수준의 학습자가 공부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영어 수업 노하우를 더 배우고 싶다'는 등의 소감을 갖게 되었다. 학부모 역시 TV를 통해 학부모의 조언으로 학습해 나가는 효과를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선 김새로나 선생님이 영어문법을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수업을 하신다. 1. 시사나 철학적 내용의 지문 분석. 2. 자기가 깨닫는 수업이다. 수업은 누가 꼭 가르쳐 주어야 깨닫는 건 아니다. 자기가 깨닫는 수업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영어가 영어를 낳아서 배우고 배운다. 또 다른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수업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수업을 또 알고 싶다." (최고의 영어수업-경남편, 김새로나 선생님- : 4학년 최00)

"영어는 처음에 어렵지만 방법을 잘 활용해서 꾸준히 하면 쉬워지는구나." (최고의 영어수업-경남편, 김새로나 선생님- : 4학년 최00 학부모)

o TV 콘텐츠 학습을 통한 학습 및 부모와의 대화 촉진 사례가 기술되었다. 해당 주

제에 대해 학부모는 자녀가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나서 TV에서 언급된 단어를 궁금해 하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해하는 행동을 옆에서 관찰, 조언한 사례다.

"착한 소비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기불하고 상품을 구입함으로서 그들에게 일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소비이다. 착한 소비를 함으로서 생산자는 기쁨을 얻고 소비자는 행복을 얻는다. 첫걸음으로 공정무역, 친환경 소비,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또 다른 소비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 '착한 소비'와 같은 소비문화가 등장하는 것을 알고 착한소비에 의해 얻는 혜택과 기쁨을 알겠다. 다음(회)에는 학교에 배운 기회비용과 생활의 가치가 나올 것 같다." (트렌드를 잡아라-이타적 소비문화, '착한 소비' : 4학년 정00)

o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직업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학부모는 직업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고, 자녀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바람을 나타냈다.

"아이디다도르의 썰매시합을 위해 비행기로 물품을 옮겨주었다. 눈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개썰매에 필요한 직업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공군 조종사, 수의사 등이 필요했는데 무척 힘들어 보였다. 게다가 눈속에서도 변덕 날씨를 이겨내야 히니 무척 힘들어 보였다. ..... 도시(우리 주변의)에서 자주 보는 건물서 우리 몰래 일하며 노력하는 사람(직업)을 보고 싶다." (창공의 이색 직업 시청, 5학년 강00)

"세상에 직업이 참 많은데, 우리는 목에 힘줄 수 있고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그게 현실이니까. 하지만 잘 찾아보면 틈새 직업이 의외로 있는 것 같다. 다음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색적인 직업을 소개해줬음 싶다." (창공의 이색 직업 시청, 5학년 강00 학부모)

o TV 시청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사례가 있었다.

"쓰다 남은 약을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나왔다. 약을 무심코 버리면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약은 가까운 약국에 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나왔다. ..... 헐,,, 예전에 난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씽크대를 통해 버린 적이 있었다. 앞으론 그렇게 버리지 말아야겠고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조금씩 알아줬으면 좋겠다." (위기탈출 넘버원 시청: 5학년 김00)

"약물 남용하지 말며 아무대나 함부로 버리지 말자 약속을 했다." (위기탈출 넘버원 시청: 5학년 김00)

4. 학부모-학생 인터뷰 결과

o 인터뷰 훈련을 받은 전문가 2인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이 동시에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의 답변에 학생이 영향 받지 않도록 학생이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 학부모가 답변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o 인터뷰 장소는 외부와 차단된 조용한 공간을 선정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연구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심을 받고 디지털 케이블 TV의 태도, 이해, 활용에 대한 연구의 참가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비교적 적극적인 미디어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이른바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태도 변화에 대한 결과

o 미디어 활용결과 학부모와 학생의 미디어 태도의 변화에 대한 인터뷰에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확인되었다.

"일단은 그거 설치했을 때, 애들이 만화를 볼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없을 때는 만화를 보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저희는 세계 테마 여행을 많이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안했으면 안봤을거예요. 그게 좀 딱딱한 경향이 있거든요. 만화나 오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랑 같이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5학년 김○○ 학부모)

"(평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그런데 그거 (연구참가) 하면서 느낀 것이 엄마들이 아이들하고의 대화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도 좀 반성했는데, 엄마들이 좀 닫아놨던 것 같아요. '너 공부해, 너 빨리 학원가'...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생활하는 집,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같이 있어도 다 각자 생활이지, 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라 학부모)

"책은 그냥 혼자 보는 건데, TV는 함께 보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마 학부모)

"옛날에는 TV라고 해봤자 만화나 그런 쓸데없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없어서 제 때 못 봤을 때.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고 했던 것들이 장점이죠." (마 학부모)

"(학부모가) 시간관리만 잘해주면 애가 잘 따라 올 것 같아요. 잘만 활용하면 학원보다 나을 것 같구요. 일단은 뭐 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느낌은 와요. 애도 또 학원에 가면 그 과목에 대해서만 해주는데 이거(디지털 케이블 TV)는 다양하잖아요. 과목은 물론이거니와 시야도 넓어지고 상식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뻔 했네'하는 생각도 들고." (사 학부모)

"저는 하기 전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가뜩이나 애들이 인터넷이나 TV에 빠지고 그러는데. 영상 같은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집중력

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더라구요. 애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엄마가 시간관리만 잘해주면 애도 잘 따라올 것 같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 전 낫다고 생각해요." (사 학부모)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은 힘들 것 같아요..주로 주말 이용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저는 주로 집에 있잖아요..그래서 오히려 애 관리하는 거는 잘 되는데..저희한테는 잘 맞다고 생각해요....사교육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기 전과 하고난 후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 학부모)

"(디지털 케이블 TV가 좋으시냐는 질문에) 그렇지. 이건 지나간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보면 유/무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가 돈 내는 건 절대 못 보게 해. 1일전, 2일전 거는 유료지만 그 이상 지나간 건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 좋다는 거지." (차 학부모)

o 디지털 케이블 TV를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적 활용을 하는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원인은 TV에서 방영되는 내용이 지루하거나, 학부모의 개입이 오히려 부담이 된 경우, TV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TV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었다.

"딱히 도움 되는 것 없어요. 설명이 지루했어요." (가 학생)

"엄마랑 같이 봤을 때는 잔소리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라 이런 말만 하고..." (가 학생)

"그렇죠. TV보는 게 시간 잡아먹는 도둑임은 분명해서...(자녀와 함께 TV를 활용하여 학습시킨다는 것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바 학부모)

"그런데...아무래도 TV는 쉬면서 가볍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부를 위해 활용하기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스펀지' 등도 재미

와 유익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되지만, 학습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 (바 학부모)

2) 이해 및 활용 변화에 대한 결과

o 디지털 케이블 TV를 활용하면서 미디어 및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 디지털 케이블 TV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작동방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o 디지털 케이블 TV의 활용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답변이 확인되었는데, 학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증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활용 변화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보통은 만화를 보고...미디어 (활용 학습) 한다고 그러면 경제를 봐요. 만화 아닌 거는 보통 같이 보고. 잘 모르는 건 같이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해요. 그럼 보통 OO이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답해주고...보통은 내가 TV 보는 도중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다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말을 해요. 안 그러면 지나가버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있고요. 지도 깜박하는 거예요. 나도 깜박 하기도 하고. '착한 소비'는 같이 찾아봤어요. 아이도 이해를 하더라구요...아 그렇구나...공정거래..." (가 학부모)

"그런데 그런 걸(교육용 채널) 즐겨보는 건 아니에요. 미디어 (활용 학습) 해야 하는 부분에만 찾아서 보고, 주로 보는 건 만화만 봐요. 채널이 워낙 많다보니까. 다 보고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가 학부모)

"저는 책으로 읽던 거 하고 비교해서 TV로 보는 것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학생)

"TV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청자 눈에 맞게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학부모)

“맨 처음엔 눈만 뜨면 자동으로 만화채널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 연구처치 이전에 TV시청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거 (본 연구처치) 맨 처음 시작할 때 약속을 했어요. ‘그때처럼 만화를 보면 다시 끊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육적인 거 보라고 하고, 그걸 보는 걸로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이제는 눈만 뜨면 만화보고 그런 건 안 하더라구요...(계획적으로 시청하면서) 봐야 되고, 학습일지를 적어야 되고 하니까.” (라 학부모)

“TV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바 학생)

“김훈의 ‘자전거 여행’(여행 교양 프로그램)은 안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 채널이 어디 있는지 못 찾은 거죠. 나중에 E 선생님(지역사회 전문가)이 가르쳐줘서 평생교육인가에 들어가면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 프로가 있더라구요. 봤는데 세계 곳곳의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나라 하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해요. 그게 계기가 되어 자극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바 학부모)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만화 같은 걸 보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걸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디지털 케이블 TV의)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자 학생)

o 한편 디지털 케이블 TV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시청시간이 증대되었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는데, 주로 스포츠나 만화, 오락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히 교육에 목적을 두지 않은 경우 학부모들이 흥미로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시사해 주었다.

“주로 그런 거 (오락 프로그램)에요. 교육적 인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마 학부모)

“어떤 학부모는 본인이 새벽 3시까지 본 적도 있다더라구요. 그 댁 아이도 TV를 거의 안 보았었는데, 이거(디지털 케이블 TV)를 한 이후 마찬가지로 만화 같은 거에 심취되어 보게 되더라고 했어요. 게다가 TV를 틀면 어제 했던 프로그램도 바로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손이 가게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바 학부모)

o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경우 TV를 같이 시청하면서 자녀들이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TV를 보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기 보다) 오히려 애들이 나한테 설명해 줘요. 왜냐면 한국말이 잘 안되니까.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TV를 활용해서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하는 게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몰라서 공부하는 거 영어 빼고는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 학부모 - 주) 동남아 출신 학부모로서 국어가 다소 서툼)

o 조모가정의 경우 부모님이 안계시고, 학력수준이 낮은 조모가 학생을 부양하는 환경이었는데, 조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TV시청을 권유하는 양상을 보였다.

“좋죠. 나야 내가 못 가르치니까. 잘 보라고, 자꾸 보라고 그럴 수밖에. 단어 같은 것도, 나랑 얘랑 둘이 있으니까 유식한 건 모르지 않나. 엄마, 아버지 주위 사람이 있어야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할텐데. 근데 TV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무슨 뜻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좀 되지.” (차 학부모)

3) 학부모 역할과 활동

o 자녀와 같이 디지털 케이블 TV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확인되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용어 같은 거 물어보고...되게 많아요. 인플레...디플레... 그런 거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런거를 물어봐요. 그런 거 저는 예전에 배워서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런 거 책에서 찾아봐 말해주기도 하고." (가 학부모)

"원래 저희는 지상파만 봤었어요. 보는 거라곤 거의 EBS만 봤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볼만한 게 다큐 그런거니까. 볼래? 그랬는데 (자녀가) '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본거죠." (다 학부모)

"(디지털 케이블 TV를) 같이 보면서 애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솔직히 애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애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애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애하고 가까워 질 수도 있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사 학부모)

"(자녀들이 좋은 내용을 TV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에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 학부모)

"아무래도 나는 일하고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못 보지. 공부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만 같이 앉아서 보지. 그리고 붙어있긴 해도 본격적인 도움은 못 주지." (차 학부모)

o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한가하게 TV를 볼 여유들이 없어요. TV를 보더라도 아이들은 엄마들이 저녁 준비할 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볼 시간이기 때문에 주말에나 같이 하면 모를까...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바 학부모)

4) 제언사항

o 향후 디지털 케이블 TV 시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언을 묻는 사항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확인되었다.

"말만 해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말만 쭉쭉 늘어가지고는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그림이나 통계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 학생)

"만화 같은 걸로 경제 방송 만들어진 거는 지금도 나와요.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만 괜찮은 게 있으면. 시간대가 많고." (가 학부모)

"3학년부터 사회과목이 들어가잖아요. 영수는 쉽게 공부를 잘하는데..사회를 어려워하더라구요..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니까..쉽게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니까..사회를 직접 체험을 해가면서..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그런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학부모)

"음...전 역사를 싫어하는데 역사도 세계 테마 여행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나 학생)

"애들이 아직 자제가 안되니까...TV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고...TV로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그런 것들에 관한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걸 배우고 나면 좀 잘 먹힐 것 같고..." (다 학부모)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고 선생님이 전체 애들한테 다 '보고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애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애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도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아마존의 눈물'같은 것도 그런 것 보고 얘기할 수 도 있고, 충분히 수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던데요." (라 학부모)

"너무 수업 위주 말고 좀 재미있게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 학생)

"교과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제공되어서 그것들이 내용이 좋으면 볼 것 같아요. 교과 과정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그런데 뭐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게 놀랍고...참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지.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교과관련 내용들을 좀 더 재밌게 쉽게 다뤄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애들이 그냥 흘려듣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 학부모)

"(디지털 케이블 TV의 설정 기능을 통해 자녀들이) 만화 보는 거 1시간 정도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부모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죠." (아 학부모)

5. 표적집단 인터뷰 결과

o 표적집단 인터뷰는 처치 이후에 학부모와 학생의 처치과정을 통해 연구에 간접적으로 참가하였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문제 1(가정내 미디어 활용에 격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이 효과가 있는가?) 및 연구문제 3(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이 소외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과 관련이 있는 반응들을 수렴하였다.

o 다만,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를 객관적인 상태로 관찰할 수 있으나 학습 맥락

(context)에 있지 않았으므로 교사들의 답변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학습일지 활동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므로, 미디어 격차 해소의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학교(교사)의 역할과 향후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o 특히 소외계층 학부모 및 자녀들이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학교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당사자로서 학교와 가정의 연계하는 축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1) 연구문제 1 관련 결과

o 학부모들이 미디어 및 디지털 케이블 TV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상황이냐는 주제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미디어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봐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디지털 케이블 TV 설치도 가능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D 교사)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TV는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디지털 케이블 TV 같은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B 교사)

"시간이 바빠서 TV 볼 시간이 없는 부모들은 TV를 보거나 디지털 케이블 TV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A 교사)

"근데 부모들은 이게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알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TV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하게 되죠. 오히려 애들 교육에 안 좋다고 TV를 아예 치워버리는 집도 있으니까 디지털 케이블 TV를 잘 보고 활용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죠." (C 교사)

"디지털 케이블 TV를 보게 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늘어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아동의 TV시청 시간을 관리하고 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나 쾌락 위주의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D 교사)

o 이와 같은 반응에 이어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 답변이 있었다.

"TV가 재미있는 것들만 많아서 그런 관리를 그냥 집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A교사)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선별능력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학교에서라도 도움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죠." (C 교사)

2) 연구문제 2 관련 결과

o 연구처치 이후 학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교사들의 답변과 논의가 이어졌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처음 접하는 부모님들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니까 태도나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요." (D 교사)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TV활용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여요." (D 교사)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자녀와 같이 시청하며 학습의 효과가 글이나 책을 통해 한 것보다 크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다만 부모의 경우 교육에 대

한 관심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봐야죠." (C 교사)

"저학년 학부모들이 고학년 학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모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TV에서 어떤 교육적 내용이 나오고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케이블 TV가 뭔지도 알게 되고 학부모들 본인들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A 교사)

"부모들도 현실적으로 자녀들 공부만을 위해서 TV를 보거나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나, 별도의 방법으로 우선 인식을 전환 시키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기존에 시간이 없어서 TV를 안보는 부모들이라면 인식 전환이 어렵겠죠.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공부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B 교사)

"근데 확실히 부모가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자녀도 관심이 많게 되고 이번 기간 동안에 한 '학습일지'도 잘 쓰게 되더라구요." (E 전문가)

o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주제 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숙제의 형식으로 'TV에서 어떤 내용이 오늘 제공되니 이를 부모님과 같이 보고 토론해 보고 결과를 제출해 와라'라는 식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어요" (B 교사)

"TV가 가정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현직 교사들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선 교사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들도 잘 알아야 가정에서 학부모들 격차해소하고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A 교사)

"교육과정과 연계된 내용으로 TV를 활용하도록 하면 아이도 부모도 더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TV에서 나오는 '세계 여러 나라 기행' 같은 것들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미리 알아서 집에다가 알려주는 방식이죠." (E 전문가)

3) 연구문제 3 관련 결과

o 미디어 또는 정보격차에 대해 저소득층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이 연구참여 집단들의 정보격차 수준과 현황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정보습득의 차이는 이용 방법이나 양질의 정보습득 능력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같이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조부모, 한 부모 가정이 대부분으로 이를 지원하고 교육해 줄 가족 구성원의 부재가 더 큰 원인으로 보여요." (C 교사)

"엄마가 가정에 계시는 경우나 자기관리가 잘되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적으로 동참하게 되죠." (D 교사)

"저소득층이 많은 본교의 여건에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적 활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학교와 연계되어서 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B 교사)

o 면접에 참여한 지역사회 전문가는 저소득층 부모가 현실적으로 미디어 격차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녀들 역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악순환이 있음을 지적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즐거운 공부방'을 적극적 활용하여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디지털 케이블 TV에서 제공하

는 양질의 학습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TV활용교육에 동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른 선생님들 얘기하셨듯이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적절하게 지도나 도움을 주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부모들이 TV나 디지털 케이블 TV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교육복지실'이 있는데요, "즐거운 공부방"이라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이건 학교마다 이름이 좀 다르지만 유사하게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못하는 몫을 우리 같은 지역사회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교실 게시판에 유용한 TV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고 저 같은 전문교사들이 TV를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죠. 방과후 학교를 통한 방법도 있겠고..." (E 전문가)

o 지역사회전문가 또는 교사들의 일상 업무 폭주로 인한 부담증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 E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교사들이나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다른 일상 업무도 많죠. 그래서 어디에선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면 학교라는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E 전문가)

6. 연구결과의 시사점

1) 연구문제 1 결과의 시사점

① 미디어 태도의 차이

o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최근의 정보격차 경향성과 같이 실태조사 결과 정보 격차 또는 미디어 격차는 주로 접근성의 문제보다 제대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가 하는 이슈의 정보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학부모들은 TV나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의 미디어 기기를 평소 자녀들에 비해 오히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많은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나 활용 자신감 등은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미디어 작동법을 알려주면 잘 다룰 수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Likert 5점 척도에서 자녀의 응답 평균 (3.88)과 유사한 점수 (3.82)로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미디어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미디어 이해의 차이

o TV에 대해서 학생들은 부모님이 못 보게 하거나, 보고 싶은 채널이 없고, 또한 공부에 방해가 되거나 볼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가 골고루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점수가 부정적인 응답에 가까운 것으로 미루어보다 TV에서 방영되는 내용들에 대해 잘 알고 친숙한 이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o 학부모의 경우 자녀들에 비해 TV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TV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o 자녀와 학부모들은 TV 시청이 자녀-부모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o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이해정도와 관련해서는 평소에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비해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들어봤거나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이 오히려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③ 미디어 활용의 차이

o 자녀들은 주로 오락 채널을 선호하였으며,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주로 시청하였다.

o 설문 조사 응답의 30% 비율만이 현재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해도에 비해 디지털 케이블 TV를 선호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해당학교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속해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2) 연구문제 2 결과의 시사점

① 미디어 태도의 차이

o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연구처치를 통해 TV시청의 절대량 시간이 늘어났다.

o 미디어 기기 관심정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승하였으며, 기기 작동의 수월성의 경우 학생은 사전에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학부모는 다소 상승하였다. 미디어 활용의 자신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부터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으며, 그 경향성이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지속되었다.

o 미디어 및 TV 기기에 대한 필요성 측면에서는 학생은 하락하였으며 (3.86 -> 3.61), 학부모는 상승 (3.95 -> 4.14)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케이블 TV를 활용한 학습전략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학부모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이 공고화 될 경우 학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교와 연계된 학습활동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들이 학습방식의 하나로서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② 미디어 이해의 차이

o TV 미시청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사전 검사에 비해 모든 항목의 점수들이 하락하였다. 이는 TV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로 인해 TV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이 못 보게 해서”, “공부에 방해가 돼서” 등의 항목들도 동반 하락하여 TV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매체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o 이에 비해 TV 미시청 이유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 중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에 대한 응답이 5점 Likert 척도중 사전 3.33, 사후 3.43으로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상승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디지털 케이블 TV의 다채널이 자녀들의 학습에 여전히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인터뷰 결과 학생들이 만화만 볼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나 학습의 효과를 체감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TV의 다채널이 오락 뿐 아니라 학습효과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o TV가 공부에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되느냐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모두 상승하여, TV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TV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중 “자녀와 가까워지고”, “자녀의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항목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사전과 사후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즉, 디지털 케이블 TV가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학습일지 결과를 살펴보아도 학부모들이 자녀와 학습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가까워졌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o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동반 상승하였다.

③ 미디어 활용의 차이

o TV 시청 채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생은 여전히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없으나 학습 채널의 시청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TV를 통한 학습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TV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 콘텐츠가 재미없다는 의견들이 확인된 바, TV 콘텐츠의 질적 향상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연구처치 이후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뉴스, 오락, 학습 등 모든 영역에서 TV 시청 비율이 상승하여, 학부모들은 디지털 케이블 TV의 다채널 내용을 바탕으로 TV 자체를 더욱 즐기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연구문제 3 결과의 시사점

o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여러 이유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주민의 경우 국어의 숙련 문제, 조모나 조부가 학생을 부양하는 경우 지식전달의 문제, 편부나 편모 가정의 경우 학부모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자기주도적인 TV학습활동을 하게하고 이를 조언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o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의 자녀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증진 측면에 있어서도 활동 참여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효과도 제한적일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결과 적극적인 소외계층 학부모들의 경우 TV를 통한 자녀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여건이 갖추어 질 경우 지속적인 활동참여에 관심을 보였다.

o 표적집단 인터뷰 결과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서의 학부모들은

특히 여러 이유로 인해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기가 힘들고,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학부모-학생의 자기주도학습활동에 참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o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것이 제안되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실시되고 있는 각종 활동에서 소외계층 자녀들이 TV를 활용한 교육을 학교교사나 지역사회전문가들이 실행해주고, 부담이 덜어진 역할을 학부모들이 집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Ⅵ.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방안

1. 해소방안의 원칙

1) 제1원칙 : 미디어 리터러시[7]를 미래와 현재 사회의 핵심역량으로 강조

o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디지털미디어 기기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콘텐츠 제작 편집 공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 수용자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o 이미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 학습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유러닝국가구축TF'에서는 이 핵심역량에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능력'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안선회 외, 2010).

※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2004)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첫째,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간의 상호작용 능력, 둘째, 자율적인 행동능력, 셋째,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7) 미디어 리터러시는 'media'라는 단어와 'literacy'라는 잘 알려진 개념들이 결합되어서 구성된 개념이지만, 그 정의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를 "다양한 매체의 맥락 안에서 미디어에 접근(Access)하고, 미디어를 이해(Understand)하며, 창의적인 제작(Create)을 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access, understand and create communications in a variety of contexts"-ofcom, 2004)을 의미한다

참고: 미래인재상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 :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인재

○ 공통적인 핵심역량 :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문화감수성

※ 초·중등교육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감각, 진로개발능력

※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이해, 직무태도, 기초 및 전문지식

※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기술·자원 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 미래 인재상

- 창의적 인간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 자율적 인간 :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인간
- 학습하는 인간 : 전 생애에 걸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인간
-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인간 :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며 상호 소통하는 인간
- 정보·기술·자원을 활용하는 인간 :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기술·자원을 활용하는 인간

<표 Ⅵ-1> 전통적인 학교교육체제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비교

구분	전통적인 학교교육체제	미래 평생학습체제
인재상	▪상황 적응형 인간, 타율·수동·순응형 인간	▪상황 주도형 인간, 자율·능동·창의적 인간
지식관리	▪교육자의 지식 독점, 제한적인 전달·유통	▪학습자의 지식공유, 제한 없는 나눔과 유통
교육학습 방법	▪교육공급자 주도형 - 교육자(교사) 수업(가르치기) 중심 ▪제한된 학습방식 옵션 ▪학령기의 일제식(一齊式) 교육	▪학습자 주도형 - 학습자 학습(배우기) 중심 ▪학습방식 옵션 다양성 :e러닝, m러닝, 유러닝 ▪적시 맞춤형 학습: 유러닝
교육기반	▪학교와 대학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모든 기관 및 시설 ▪테크놀로지가 지원하는 교육
학습결과 인증방식	▪졸업장 및 학위(學歷·校歷중심사회)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미흡	▪자격증, 학력인증제도 구비(능력중심사회) ▪학교 밖 학습경험까지 인증 가능
교육관리	▪국가 인정의 교육전문가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통제형 관리	▪학습자와 시민공동체 ▪다양하고 유연한 분권형·자율형·지원형 관리

* 출처 : 안선회 외(2010: 25).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2) 제2원칙 : 교사교육과 학부모교육에 대한 집중 지원

o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능력'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부모 교육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도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o 학생과 가정에서의 자녀는 동료집단으로부터 독자적 습득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바람직한 미디어교육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학습하게 되기에 교원과 부모가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o 우형진 등(2010)은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교사·청소년의 인식도 조사' 연구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습관에 있어서 청소년 스스로의 통제가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감독 외에도 적정 미디어 이용시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지시킴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o 교원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집중적인 교육 지원 및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o 학부모교육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학부모 대상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과 학교를 통한 학부모교육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학부모 대상 포털은 EBS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교를 통한 학부모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 학부모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제3원칙 : 선제적·예방적인 보편적 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우선지원 병행

o 국민의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 : 여타 분야의 복지 교육과 학습 복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복지를 국민의 보편적 복지로 재정립해야 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복지는 그 어떤 분야의 복지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의 성격을 지니며, 그 어떤 분야의 복지보다 국민 개개인과 국가 전체의 인재 육성과 경쟁력 신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NTIA, 1998; 1999; 2000) 정보격차 미디어격차 해소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인식되어야 한다.

o 정보격차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갈등을 잘 융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해소, 사회자본증진, 인간의 존엄성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격차의 해소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증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취약계층의 경제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보격차가 해소될 경우 지식정보화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존엄성의 증진과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격차문제를 단선적인 정책이슈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정보복지(information welfare) 개념으로 확대, 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식, 2008: 10-11)

o 사회 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보편적 복지로서의 정보통신 복지와 함께 사회 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보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거나 아예 접하지 못하는 계층, 사회적 집단, 지역, 가정, 개인에게는 교육격차, 학습격차, 고용격차, 소득격차, 계층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반드시 강조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보통신 복지는 교육·학습복지와 함께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o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방송통신위원회(2010.11.17)는 스마트 모바일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연령·지역·소득수준 등에 따른 스마트 모바일 보급율, 활용능력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계층 간 정보격차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용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은 스마트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력, 서비스 활용능력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 스마트 모바일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하고 있다.

o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양한 복지지원 대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o 이와 동시에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도 미디어 중독이 심각하게 인식되는 상황이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능력' 교육을 통해 미디어 중독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에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4) 제4원칙 : 미래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경제적 접근)

o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뉴미디어의 발전은 지식기반사회를 가속화시키고,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동전화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물결을 타고 전화는 물론 신용카드, 은행계좌, 카메라, MP3, TV, 게임기까지 결합된 손안의 종합멀티미디어가 되고 있다.

o 나아가 소셜 네트워크 사회는 사물의 지능화 및 네트워크화로 다양한 기술간,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발한 u-IT 환경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다. 그리고 원격 검침, 원격 제어 등 홈네트워크가 일상화되어 u-Home의 서비스 수준이 발전되며 가사 지원, 가정학습 등을 위한 로봇 개발의 활발한 진행되며, 아울러 텔레매틱

스, 위치확인서비스, Wibro, DMB 등과 같이 공간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u-서비스가 확산된다. 그리고 u-우체국, u-물류 등 u-IT 기반의 서비스 및 업무처리 환경 구현이 보편화되고, 유비쿼터스 IT의 융합화, 지능화, 실시간성은 사회, 경제, 행정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국가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소셜 네트워킹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OSMU(One Source Multi-Use)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육의 대두 등 다양한 학습이 출현하는 등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안선회 등(2010: 7).

o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비쿼터스 IT가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국가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능력' 신장과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o 경제적(경쟁적) 접근 필요 : 뉴미디어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맞춤형 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유러닝 관련 글로벌 표준 정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뉴미디어 관련 산업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유러닝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적극적인 유비쿼터스 학습 정책 시행 경우 세계 유비쿼터스 학습 흐름을 주도할 수 있으며, 각국에서 유비쿼터스 학습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모범 사례로 정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짧은 연혁에도 e-러닝 시장의 성장세는 향후 폭발적일 것으로 기대됨. 세계 e-러닝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2007년 128억9,800만 달러에서 2008년 160억270만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까지 17.0%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51억 8,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정민 외, 2009; 112).

<표 Ⅵ-1> 세계 e-러닝 시장의 권역별 규모 및 성장추이

권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8-'13 CAGR
세계	콘텐츠	10,227	12,898	16,027	19,124	22,720	26,482	30,693	35,180	17.0%
	전 체	23,026	29,471	35,990	42,650	50,363	59,438	69,366	79,360	17.1%
미주권	콘텐츠	8,867	10,909	13,422	15,796	18,392	20,654	23,479	25,823	14.0%
	전 체	16,951	21,243	25,808	30,103	34,999	39,709	45,857	50,112	14.2%
유럽권	콘텐츠	996	1,510	2,005	2,576	3,283	4,363	5,304	6,819	27.7%
	전 체	3,435	4,719	5,896	7,360	9,120	11,792	13,958	17,376	24.1%
일본	콘텐츠	224	272	333	403	589	803	992	1,285	31.0%
	전 체	1,284	1,610	1,960	2,301	2,679	3,088	3,305	3,866	14.6%
중국	콘텐츠	48	65	80	98	128	276	433	633	51.2%
	전 체	463	599	698	811	983	1,945	2,756	3,750	40.0%
아태권[17]	콘텐츠	92	142	187	251	328	386	485	620	27.1%
	전 체	893	1,300	1,628	2,075	2,582	2,904	3,490	4,257	21.2%

*주: 전체는 e-러닝 콘텐츠, 서비스, 인프라의 시장규모를 모두 합친 것임

**출처: 고정민 외, 2009;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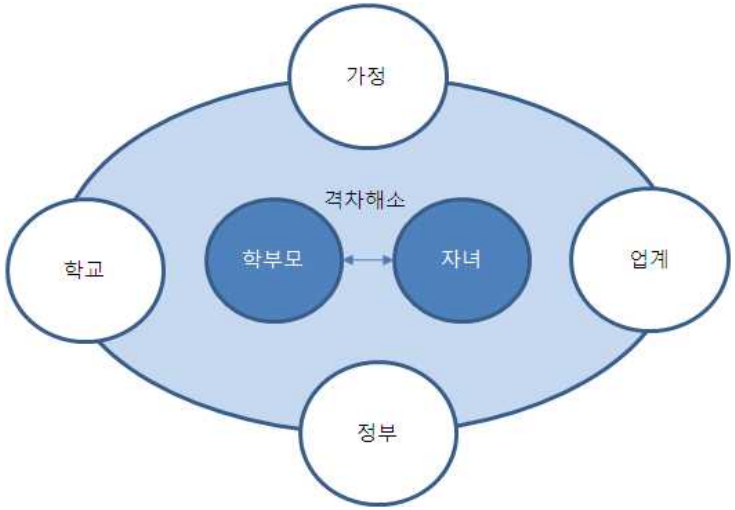
5) 제5원칙 : 전 국민, 특히 가정의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o 정부, 정치권, 방송통신업계의 정보격차, 미디어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전환 : 정부, 정치권, 방송통신업계는 정보격차, 미디어격차 해소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이를 각 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o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지원 필요 : 정부 차원, 학교 차원, 정보통신업계 차원, 가정 차원, 개인 차원의 노력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격차,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이기식, 2008: 11-12).

* 거버넌스(Governance)의 특징 : i)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ii) 하향식이나 상향식 문제해결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협동적 문제 해결 iii) 문제해결에의 실질적 참여 iv) 자발성, 분권성 그리고 협력, 협상의 강조

o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내 미디어 격차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미디어 관련업계 및 정부의 총체적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유기적인 해소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Ⅵ-1]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부문별 연계활동

2. 가정에서의 노력

1) 가정 내 미디어격차 및 문제점

o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정보화 역량은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역량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정보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가 수용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30-40대 부모와 10대의 자녀 간에도 정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o 가정 내 정보격차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동질적인 가족구성원 간에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수준 뿐 아니라 이용하는 정보의 질적 격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정보격차는 부분적으로는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른 지식격차와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주로 기인된다.

o 가정 내 정보격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주로 자녀 방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격차가 심화되며 정보격차로 인한 부모의 권한 실추는 자녀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와 정보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보사용 능력이 자녀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박명희, 이성림, 2004).

o 특히 가정에서의 TV 시청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TV시청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TV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는 부모의 TV에 대한 태도를 지각하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o 부모의 바람직한 TV시청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들은 TV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Austin 외 (1990)에 의하면 아동의 동료들과의 관계, 학업적 성취, 도덕성 발달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에서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o 부모의 시청지도는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과 미디어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미디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시청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어려서 시청습관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TV시청은 물론 학습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의 시청

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동의 시청습관은 부모의 시청지도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부모가 TV내용을 설명하고 해설해 줌으로서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비전통적 성역할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폭력적 장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게 된다.

o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정보격차의 차이를 줄이고 바람직한 자녀의 시청지도를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의 시청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방법 보다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한 시청지도를 할 때 정보격차에 성공할 수 있다.

2) 가정 내 미디어 격차 해소 방안

(1) 학부모의 자각 활동

o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격차 해소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이해나 활용을 위해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o 사전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그 이유로써 무언인지 잘 모르거나 가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듯 가정 내 미디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와 자녀교육에 관련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 학부모는 자녀의 인지, 성격, 학업성취도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o 따라서 디지털 케이블 TV를 통해 자녀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부모의 도움을 통한 자녀학습에 미디어가 기여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학부모의 참여 활동

o 부모가 자녀의 시청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에 대한 학부모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o 학부모 스스로가 자녀와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TV 시청에 있어 쇼나 오락 이외에 다양한 채널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를 스스로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시청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녀보다 기본적인 매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 스스로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o 자녀 교육에 유해한 콘텐츠의 경우 TV에서 제공하는 '잠금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비교적 조작이 간편하므로, 일단 이러한 기능들을 체험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o 학부모들이 VOD 사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TV 시청에 대해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크므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따라서 자녀와 학부모 본인을 위한 적극적인 미디어 참여가 요구되며,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자기주도학습 촉진

o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미디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시간 관리와 자기통제 능력 개발을 통해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o 가정에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 설계·적용된 자기주도학습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특히 학교학습 이외에 자녀들이 미디어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o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자녀가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학부모가 조언자 또는 촉진자로서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경우 효과성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o 특히 소외 학부모들의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정보격차가 일반 학부모들보다도 더 심하지만 경제적 직업적 문제로 인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나 EBS등을 활용한 학부모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o 따라서 학교로부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역시 스스로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 자녀와 함께 시청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에서의 노력

1) 교사의 인식 전환

o 학교교육 이외에 미디어 교육이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양적·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습 성과를 구현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o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정 내 미디어, 구체적으로 TV 또는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사들 역시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o 미디어 활용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습지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미디어 교육

o 교사교육 또는 직무연수의 과정 등을 통해 미디어가 학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o 미디어 업체와 협력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학습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실질적 인식전환을 위한 교사교육과정이 정규화 될 필요성이 있다.

o 교사들이 '미디어활용 수업 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미디어활용 수업지도안 등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학교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 학교의 가정지원

o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의 생업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미디어학습 콘텐츠를 탐색하거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생활지도 또는 학습지도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발달단계 또는 학급별, 교과별, 주제별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책자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는 학습효과 향상만이 아니라 생활지도, 가정 내

미디어 격차 해소,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o 그 방안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바와 같이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이 작성한 학습일지를 점검, 피드백해주는 등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가정 내 미디어 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시키는 과정을 고안할 수 있다.

o 학교에서 미디어 활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가정의 협력을 유도한다. 또한 학교는 가정 내 미디어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방과후 학교 활용

o 학교 내에서 가정과 학교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TV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학교의 지역사회전문가나 방과후 교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가정 내 미디어활용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미디어를 통한 건전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미디어 학습 이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o 이와 같은 학습활동은 디지털 케이블 TV에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렴한 양질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물론,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효과 제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절실한 방안이다.

4. 디지털 케이블 TV업계 개선방안

1) 매체 교육 및 홍보

o 디지털 케이블 TV는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파 방송 기존의 케이블 TV와 비교했을 때 특·장점을 지니고 있음. 우선 기존 공중파 방송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18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콘텐츠는 정보 및 교양, 그리고 학습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장점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o 따라서 학교 방문을 통한 교사교육, 또는 학부모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TV가 갖고 있는 교육적 효용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o 특히 학부모들이 미디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자녀교육에 악영향' 측면을 타파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시범 상영, 유해매체 차단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2) 최적의 교육내용 제공

o 인터뷰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학습자들은 보다 풍부하고 수준에 맞는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CP(Contents Provider)들로부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를 공급받아 학습자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TV 시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o 이를 위해서는 학계 및 정부와 연계하여 가정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콘텐츠의 양적, 질적 측면의 결정을 상의하고 교육용 CP들이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o 또한 교양 또는 시사프로그램의 발굴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학습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 뉴미디어 적극 활용

o 가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즐겁게 매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뉴미디어를 적극 개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효과 제고 및 미디어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표 Ⅵ-2> 뉴미디어 발전 방향

특성	제작 기술	서비스 기술
개방형	·콘텐츠 개방성 확대 기술 ·콘텐츠 기기전환 기술	·PC-셋톱박스 콘텐츠 연동 기술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위한 UI/네비게이션 저작도구 ·콘텐츠 개방성 확대 기술 ·콘텐츠 공유촉진 기술 ·UCA(Ubiquitous Content Access) ·SVC(Scalable Video Coding) ·인증 통합시스템(로그인) ·플랫폼 통합 미들웨어
실감형 (입체, 오감)	·대용량 데이터 사실적 가시화 기술 ·실감형 3차원 공간 구성 기술 ·몰입형 가상공간 기술 ·동역학 기반의 운동표현기술 ·차세대 실감형 영상기술 ·동적 조명모델 기술 ·Full 3D 영상 획득 솔루션 ·Full 3D 생성 솔루션 ·Full 3D 편집 솔루션	·오감 표현기술 ·감성 전달기술
사용자 참여형 (대화)	·사용자 요구 추론형 콘텐츠 제작기술 ·다시점 카메라 및 영상 제어 기술 ·동적 다개체 형상/모션 추출 기술 ·정적 배경 분리 복원 및 동적 ·배경 처리 기술 ·다시점 콘텐츠 제작기술 ·인터랙션 요소 드라이빙 기술 ·인터랙티브 다중스토리텔링 기술	·카메라 비전인식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환경제공 기술 ·다양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비전 및 센서기반 인터페이스 도구 ·콘텐츠 인터랙션 기술 ·내용기반 디지털 검색기술 ·유비쿼터스 통제 기술 ·사용자 인터랙션 촉진 기술 ·콘텐츠 시청 실시간 피드백 서비스 ·실시간 게임 플레이 시청 및 게임 · 화면 조작 서비스 ·임의시점 방송 서비스 ·대화형 Full 3D 방송 서비스 ·다시점 콘텐츠 제공 기술
개인화	·감성추론 기술 ·사용자 이용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영상콘텐츠 자동 편집 기능	·사용자 이용 정보를 통한 광고 서비스 기술 ·고객/가구정보 제공 기술 ·서비스 이용 정보 반환 기능

* 출처 : 고정민 외(2010: 63). 차세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맞춤형 콘텐츠 기술 개발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5.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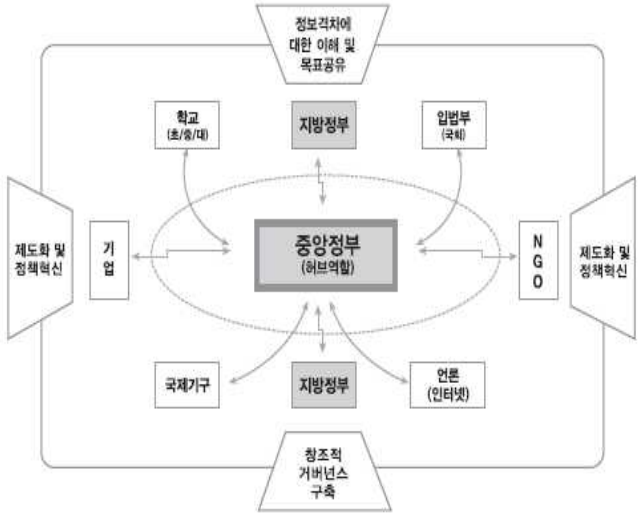
1) 인식 전환 및 거버넌스 구축

o 정부는 정보격차,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12-e)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정보격차는 일정한 이해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잘못하여 발생된 단선적인 정책문제라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정보격차주체가 가진 한계 등 복합적인 정책문제이기에 쉽게 다룰 수 있

는 문제는 아니며, 더욱이 불평등 등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복합적인 정책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관점이 요청된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전략으로서 거버넌스 관점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단독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민간부문과 협력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위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왜냐하면 정보격차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언론, 학교 등 제반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노력이 있을 경우 그 해소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기식, 2008: 11-12).

o 이러한 접근방법은 가정 내 미디어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정 내 미디어 격차 해소노력이 개별 가정에 맡겨질 경우 가정 간 미디어 격차,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미디어격차, 정보격차를 매개 한 불평등 재생산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 다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회피하거나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하여 유관 기관·집단의 미디어격차, 정보격차 노력을 끌어내고, 지원·촉진하며,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매개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림 Ⅵ-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 출처 : 이기식(2008: 30).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정부의 역할. 한국정보화진흥원.

2) 국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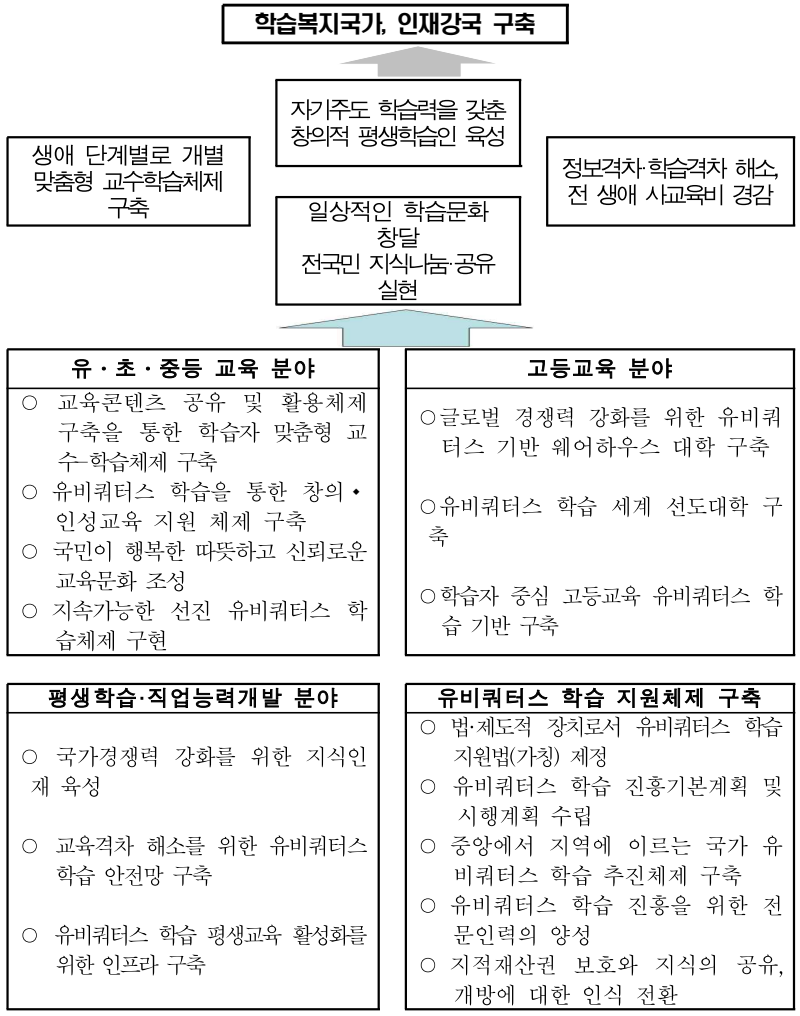
o 가정의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긴요한 정책과제는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도,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학습복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o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진행시킴으로써 단지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도,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수준의 정보복지,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지

원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o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도,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은 미래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학습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등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o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유러닝국가구축TF'에서는 국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안선회 외, 2010).



[그림 VI-3] 국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 비전과 정책목표

* 출처 : 안선회 외(2010: 23).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3) 최신 교육학습모델 개발 및 보급

o 가정의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도, 활용 가치를 높이는 위해서는 국가 유비쿼터스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 유비쿼터스학습 체제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학습모델과 뉴미디어 적합한 개임 맞춤형 양방향 학습콘텐츠가 충분히 개발·보급되고 공유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o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유비쿼터스학습 체제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o 국가 유비쿼터스학습 체제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학습모델로 대표적인 것은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이다. 본 연구에서의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은, 교수학습 환경의 측면에서 전통적 면대면 학습방식인 오프라인 학습과 최신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all-line 학습환경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이다.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설계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오프라인인 방과후학교의 교수학습에 온라인 교수학습을 결합하여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을 추진하고 이 성과를 검토하며 서서히 정규교육과정에서도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은, 정책 목표 측면에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현실적 계기를 통해 모색되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하고,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는 교수학습 혁신 전략이다. 온라인을 통해 활용 가능한 각종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몰입하게 하며 스스로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태도를 신장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이다(안선회 등, 2008: 208).

o PC, 테블릿 PC, 스마트 폰, 스마트TV(케이블TV, IPTV),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학습모델 개발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EBS 등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과 수준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된 교수학습 모델에 적합한 영어학습 디지털교재부터 시작하여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된 교육콘텐츠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모델과 디지털 교재 등을 검토하여 교사·강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다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최대한 지원하면서 널리 보급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o 최근 e-러닝 서비스들은 웹2.0기술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키, 검색기능, 블로깅, 팟캐스팅 등을 도입하는 등 '학습자의 참여'라는 요소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구글이 Search, News, Blog, Calendar, Docs, Sketch UP 등의 기능을 묶어 'Google for Educators'라는 이름으로 교육용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는가 하면 애플도 교육목적의 Podcast를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Podcastin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도적인 웹2.0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e-러닝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의 e-러닝은 이제야 보조학습의 수단을 넘어서 사이버교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양방향 원격교육, 모바일학습, 다자간 동시학습, 게임학습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정민 외, 2009: 113)

o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민간지원을 통해, 뉴미디어에 적합한 개인 맞춤형 양방향 학습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에 적합한 개인 맞춤형 양방향 학습콘텐츠란, 뉴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양방향으로 교수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개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러닝 콘텐츠를 의미한다. 뉴미디어에 적합한 개인 맞춤형 양방향 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PC, 태블릿 PC, 스마트 폰, 스마트TV(케이블TV, IPTV),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은 물론, 가정의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미디어격차 해소 및 미디어중독 예방 · 치료 노력 병행

o 가정의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미디어중독(게임중독, 문자메시지 중독 포함)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미디어중독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정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정부의제로 설정되어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o 따라서 가정의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반드시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o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형진 외, 2010 참고).

- 첫째, 학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이용량과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둘째, 게임이용 등급 강화, 청소년보호시간대 설정 등 조치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소년 미디어중독(게임중독, 문자메시지 중독 포함) 관련 정보를 학부모, 교사 및 학생자녀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셋째, 게임중독, 문자메시지 중독 대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비중이 큰 텔레비전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추가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케이블TV, IP-TV, 스마트TV 등 텔레비전을 활용한 뉴미디어 격차 해소 대책에는 반드시 텔레비전 중독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 넷째, 미디어 중독과 예방을 포함하는 미디어활용교육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청소년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지원·촉진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통신업체와 교육업체의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야 함.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미디어 격차를 줄이면서도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습 전용 TV 웹스토어 구축(학생용 디지털TV셋톱박스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5) EBS 활용 학습지원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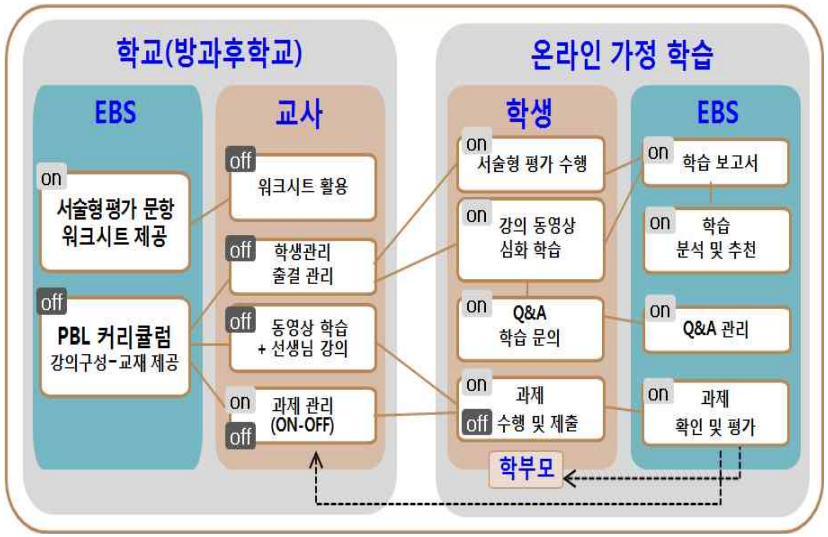
o EBS와 학교·가정을 연계한 삼각학습지원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온 · 오프 블렌디드 러닝이 구현되어야 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LMS)이 개발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 지능형 수업지원체제(LMS) 구축(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7: 79)

- 학습자의 흥미, 적성, 능력,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서비스 제공
- 상시적 진단,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보를 기초로 개별화 프로그램 제공
- 학습 결과에 대한 즉시적 피드백 제공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o 예를 들면, 단위학교에서 모든 저소득층·서민 학생과 영어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보충교육과 EBS 영어 유러닝지원센터의 영어교육프로그램과 영어 학습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어학습 관리와 학습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EBS와 방과후학교 연계 교수학습모델의 기본적인 모형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Ⅵ-4] EBS와 방과후학교 연계 교수학습 모형도

* 출처: 안선회 외(2010: 42).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o 특히, 사회적 배려가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서민 학생과 학습부진아, 미디어중독 아동 대상 학습관리는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관리 방식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일반 학생보다 오프라인 학습관리 소요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학습부진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주요 교과 학업성취가 '기초학력 미달'로 판별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o 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 방법은 방과후학교에서 국가 유비쿼터스학습 체제가 제공하는 유러닝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방법이다. 영어 교수학습을 사례로 방과후학교에서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3> 방과 후 영어 온·오프 블렌디드학습 진행방식

진행 과정		온라인 학습 (영어 유러닝지원센터 중심)	오프라인 학습 (방과후학교 중심)	
준비 단계	지원센터·학교	영어교육콘텐츠 개발·제작 영어학습관리시스템 제공 (학습진단·계획·관리) 자기주도 영어학습법 강좌	온오프연계학습 튜터(지도교사) 양성 방과후학교 수업 개설 학습법·연계학습지도법 설명회(연수) 학교별 교육계획 수립	
	학생	영어학습진단·처방 확인, 학습계획 수립	학습계획 수립	
	튜터	학생진단·처방 콘텐츠·프로그램 선정	수업 준비, 교수학습 계획 수립 수강 학생 사전 점검	
교수학습 단계	지원센터 ·학교	영어교육콘텐츠 제공	학생 수준과 진도에 맞는 영어교육콘텐츠 준비, 교육계획 점검	
	학생	학습진단, 학습계획 작성	학생	방과 후 학교에서 온라인콘텐츠 학습
		온라인콘텐츠 학습		튜터(지도교사) 보충지도 학습
	튜터링 (지도교사)	주기적평가·진단결과 종합	방과 후 수업 (지도교사)	학습계획·내용 발표·공유
				상호 질의응답·토론 유도
		온라인 학습관리 학부모 온라인 상담		학생 계획·결과 검토·수정
				토론 정리 및 학습 안내 학생 학습상담(클리닉)
평가 피드백 단계	지원센터 ·학교	영어능력수준평가시스템 개발 영어능력수준평가 결과분석	영어능력수준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자료 검토, 학생·학부모에게 전달	
	학생	추가보충학습, 형성평가	튜터 확인 및 지도	
	튜터	평가결과 종합, 학습코치	차시 수업 반영, 학습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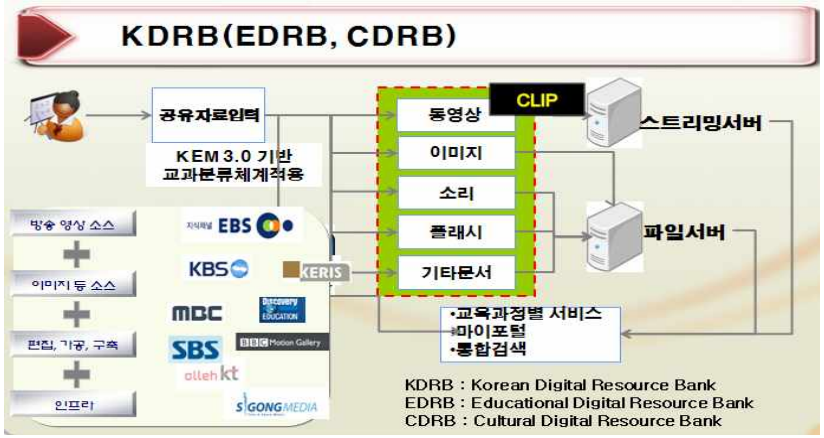
6) KDRB 구축

o 가정의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 해소와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단위 디지털콘텐츠 공유체제(KDRB)가 구축되어야 한다.

* KDRB(Korean Digital Resource Bank) : 동영상 클립, 사진, 소리,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구축한 국가 디지털 콘텐츠 Archive(저장소)

o 41만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용 콘텐츠를 마음 놓고 사용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사 및 교과서 출판사 등에는 교육용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이를 사용치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들도 자신의 컴퓨터에 좋은 교육용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o 국가단위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그랜드 콘소시움(Grand Consortium)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범 부처,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들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유한 콘텐츠를 무상 공유토록 하는 그랜드 콘소시움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소유는 보유 기관에서 하되 메타 데이터만을 작성하여 에듀넷을 통해 통합검색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DRB는 교육콘텐츠기반의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와 문화콘텐츠기반의 CDRB(Cultural Digital Resource Bank)로 구성된다(안선회 외; 2010: 31-32).



※ 국가지식분류체계 개발, 검색 체제, 향후 아이디어 뱅크로 진화

[그림 Ⅵ-5] 국가단위 디지털콘텐츠 공유체제

* 출처: 안선회 외(2010: 32).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o 개인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의 나눔운동 전개: 개인들이 보유한 사진, 동영상 클립 등을 콘텐츠 나눔 운동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디카나 캠코더로 찍은 들꽃 사진, 여행가서 찍은 앙코르와트 사진 등 컴퓨터에 잠자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나눔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듀넷이나 사이버가정학습 등에 구교육과정용으로 개발된 콘텐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o 국가단위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KDRB 시스템을 통해 개별학습에서 협력학습으로 변화, 교육에 있어 "Cloud Computing Technology"의 보편화(Cloud Service in Education), 협력학습의 기반을 이루는 학습 솔루션의 오픈 소스화(Moodle, Sakai, dotLRN 등)가 실현될 수 있다.

※ 클라우드 컴퓨팅 : 각종 데이터·소프트웨어(SW)를 서버컴퓨터에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TV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음. 데이터 처리를 위해 실제 작동하는 컴퓨터는 구름(Cloud)과 같이 산재한다는 뜻임(매일경제, 2010.8.24)

o 모든 공적 차원의 교육·학습 콘텐츠를 전 국민, 전 학습자에게 완전히 개방하여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KOCW 체제 구축, 고등교육 KOCW 체제 구축, 유비쿼터스 학습 세계 선도대학 구축 등의 사업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내외 OER 기관과 교류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검색 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안선회 외, 2010).

* KOCW (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는 대학 강의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하여 고등교육 수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07년부터 KERIS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 대학 강의 공동 활용을 위한 포털 서비스임

* OER(개방교육자료, Open Educational Resource) 설명은 아래 자료를 참조(안선회 외, 2010)

O.E.R이란?

Open Educational Resource (개방교육자료 : OER)

□ **Open의 의미**

o 자유롭게, 즉시적인 온라인 접속
o 무제한적인 배급과 재사용
o 페이퍼들이 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
o 4가지 자유를 의미: 복제(copy)의 자유, 수정(modify)의 자유, 재배급 (redistribution)의 자유, 수정판을 재배급하는 자유
=> 교수자, 학생, 독학생이 교수, 학습, 연구를 위해서 사용/재사용 할 수 있도록, 무료로 (freely)/개방적으로 (Openly) 제공되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의미
=> OER에는 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개발 및 사용, 보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작권 공개와 같은 관련 조치들이 포함됨(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대두 배경**

o MIT가 2001년에 Open Course Ware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강좌 콘텐츠에 무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운동을 실시함. 이를 계기로 세계 여러 대학들이 유사 프로젝트 수행함
o 2002년, '개발도상국가 고등교육을 위한 Open Courseware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UNESCO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처음으로 'Open Educational Resource'(개방교육자료)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음

□ **최근 사례**

o OpenLearn : 영국개방대학교(http://www.open.ac.uk/openlearn/home.php)에서 개방교육자료를 제공함, 2006년 5월부터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10월에 운영을 시작함, 초기 몇 달 동안에만 10만 명 이상이 웹사이트를 방문함
o Open Course Ware(OCW) 프로젝트 사례
- MIT OCW project(http://ocw.mit.edu): 1100개의 공개된 코스자료 사이트를 215개 세계 도처의 나라, 도시 등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이 접속. 2002년에 시작
- China Open Resources for Education: 10개의 중국대학들이 회원교, 일부 MIT courses를 번역한 자료와 자신들이 개발한 코스를 게시함; 2002년 시작
- Japan OCW Collaboration Group(http://www.jocw.jp): 2005년에 일본의 6개 상위대학 총장들이 그룹 형성을 선언함. MIT 프로젝트에 버금갈 수 있는 코스 자료 개발
- Universias: 남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720개 이상 대학들이 콘소시움 형성. MIT OCW 코스를 스페인어와 포르투칼어로 번역하여 제공

□ **무료로 자료를 공유하는 이유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기술적, 경제적 동인으로는 저렴한 비용에 사용자 친화적인 첨단 IT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생산이 쉬워지는 한편 공유를 통해 생산 비용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o 법적으로는 콘텐츠의 무료 공유 및 사용에 걸림돌이 되는 저작권 해결 방안이 고안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자료공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
o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집단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및 정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비공식 및 공식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되고 있음
o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공유라는 교육기관 본연의 전통 및 목적에 충실하고, 공립기관의 경우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OER 프로젝트 자체가 홍보효과가 있어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되며,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 및 내부적인 혁신을 자극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쟁 점**

- 장기적인 지속성(sustainability)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지적재산권 문제, 학습자료 질 관리 및 유지(개정)
- 언어 및 문화 장애(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등

7) 유러닝 교육 확대 지원

o 전술한 바와 같이, 학생과 가정에서의 자녀는 동료집단으로 부터 독자적 습득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분의 바람직한 미디어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학습하게 되기에 교원과 부모가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o 교원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집중적인 교육과 지원 및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o 학부모교육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학부모 대상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과 학교를 통한 학부모교육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학부모 대상 포털은 EBS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교를 통한 학부모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 학부모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 EBS에 학부모용 교육정보 포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대학의 진학정보, 학부모 교육용 콘텐츠, 창의적 체험 활동용 콘텐츠(자율활동 지원, 봉사활동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진로활동 지원, 독서활동 지원, 방화후활동 지원 콘텐츠 등), 자녀 상담기법 콘텐츠, 적성 심리검사 콘텐츠, 진로진학 컨설팅 콘텐츠 등에 대한 다양하고 충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될 웹메일 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고, 자녀교육 지원방법 교육을 통해 정보격차,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며,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중복들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8) 유러닝지원법 제정 및 저작권 문제 해결

o 지식과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민의 유비쿼터스 학습 참여 확대 및 행·재정 지원을 위한 유러닝지원법률(가칭)이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유러닝지원법률(가칭)에는 유러닝의 개념과 목적, 국민 학습권과 학습복지 지원 방안, 유러닝 학습결과의 인정, 취약계층에 대한 유러닝 지원 의무조항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이러닝산업발전법은 학습자의 유러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닝 산업발전을 위한 법이기에 목적과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음

o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저작권 프리사이트, 저작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면서, CCL을 비롯한 민간차원에서 저작권의 교육적 이용승인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 공공정책 지원사업에 의한 저작권 및 프로그램 개방을 의무화하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유비쿼터스 학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개념 :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License)로서, CCL은 저작권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에 따른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 Wikipedia의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License
- 활용 : 저작권자가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거나,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 → 당사자 간 개별접촉 없이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 발생

* GPL(General Public License)

- 개념 : 일반 공중사용허가서.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라이선스로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사용허가. 이 허가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파생된 프로그램 역시 같은 카피레프트를 가지며 이러한 개념에서 GPL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사람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권한을 누리며 카피레프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자유가 보전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작업이 변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음.

9) 취약 계층 유러닝 접근성 제고

o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방송통신위원회(2010.11.17)는 연령・지역・소득수준 등에 따른 스마트 모바일 보급률, 활용능력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계층간 정보격차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장애인・고연령층・저소득층 등 스마트 모바일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에 초점을 두어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용격차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 방송통신위원회(2010.11.17)의 이러한 지원은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제고만이 아니라 모든 뉴미디어와 유러닝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o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EBS와 협력하여 장애학생용 교수-학습 지원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득치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는 특수교육용으로 개발,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용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정보능력 신장을 위한 작종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o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 e-러닝 콘텐츠가 개발·보급되어야 함. 학습자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되고, 보다 적극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자 개개인의 문제점 진단 및 교정을 위한 튜터 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o 셋째, 중도탈락생, 정규교육 미진입 학생 대상 등을 위한 사이버가정학습,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사이버 교육과정이 개발·활용되어야 한다.

o 넷째,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통신비와 미디어기기 구입비용과 사용비용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함께 지원될 필요가 있다.

o 다섯째, 뉴미디어, 유러닝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비 지원, 관련 기술 특허 획득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Ⅶ. 결론

1. 요약

o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격차의 양상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가정 내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겪고 있는 미디어 격차의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처치를 수행함으로써,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 국내 관련 정책사례 및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사례 연구결과,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유관기관 및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체계적 노력이 필수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개념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함으로써 각종 아젠다를 통해 소외된 영역 없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물망식 정책과 노력을 기울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 역시 정부 등의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각종 형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o 국내 선행연구 및 각종 정책사례를 종합한 결과 학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격차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으며, 미디어에 대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연구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사전조사 등을 통해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모형을 설립하였다. 연구모형의 특징은 “학교의 지원 하에 자녀와 함께하는 미디어 (디지털 케이블 TV) 시청활동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태도, 이해, 활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격차를 해소 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문제는 연구문제 1 : 가정 내 미디어 활용에 격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이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이 소외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o 연구대상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교육복지투자 지역 해당학교인 Y초등학교로서, 연구문제 1을 위해서 학부모및 학생 각각 153명, 연구문제 2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 30가구, 그리고 연구문제 1, 2, 3의 다각도 검증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각각 10명, 교사 5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및 추론통계를 활용한 양적 접근 방법, 학습일지 내용분석, 그리고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적집단 면접 방법의 질적 접근 방법 등 혼합 방법을 적용하였다.

o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학생과 학부모의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해 및 활용도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습을 통한 TV활용 활동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TV를 통해 만화나 오락 뿐 아니라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활동에 조언자로 참여하는 미디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디어 격차로부터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향후 TV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교육적 활용, 그리고 격차해소를 위해, 학습 콘텐츠 양적 다변화 및 질적 향상, 학교와 연계된 TV활용 학습활동, 관련 업체의 홍보활동과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환경변화,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o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미디어격차 해소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적의 학교로 판단되는 학교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특정학교를 바탕으로 한 설문 153가구, 준실험연구 30가구라는 집단수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o 이 연구보고서에서의 제언은 이미 제6장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방안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

으로서 제언을 갈음하고자 한다.

o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할 해소대책 추진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정부가 추진할 해소대책 추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래와 현재 사회의 핵심역량으로 강조하고, 둘째, 교사교육과 학부모교육에 대한 집중 지원, 셋째, 선제적·예방적인 보편적 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 병행, 넷째, 미래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경제적 접근), 다섯째, 전 국민, 특히 가정의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o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학부모의 자각 활동이다. 학부모들이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디지털 케이블 TV를 통해 자녀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부모의 도움을 통한 자녀학습에 미디어가 기여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참여 활동이다. 부모가 자녀의 시청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에 대한 학부모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는 자기주도학습 촉진 노력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학부모가 조언자 또는 촉진자로서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경우 효과성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o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는 교사의 인식전환이다. 교사는 미디어 활용이 생활지도, 학습지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교사교육 또는 직무연수의 과정 등을 통해 미디어가 학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 계획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의 가정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가정 내 미디어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시청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특비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가정과 학교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TV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케이블 TV업계에서 추진할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매체 교육 및 홍보 방안이다. 학교 방문을 통한 교사 교육, 또는 학부모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TV가 갖고 있는 교육적 효용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케이블 TV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를 공급받아 학습자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TV 시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즐겁게 매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뉴미디어를 적극 개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효과 제고 및 미디어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o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첫째, 인식 전환 및 거버넌스 구축 둘째, 국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 셋째, 최신 교육학습모델 개발 및 보급 넷째, 미디어격차 해소 및 미디어중독 예방·치료 노력 병행 다섯째, EBS 활용 학습지원체제 구축 여섯째, KDRB 구축 일곱째, 유러닝 교육 확대 지원 여덟째, 유러닝지원법 제정 및 저작권 문제 해결 그리고 아홉째는 취약 계층 유러닝 접근성 제고이다.

o 이 연구의 제언이 실현되어 가정 내 미디어격차가 해소되고, 나아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가 실현되어, 미디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발전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고정민·김승훈·김원제·박태근·조진수(2010). 차세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맞춤형 콘텐츠 기술개발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김광수(2001). 도시속 계층간의 정보 격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에 관한 분석 연구 : 서울 강북과 강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김민정·최지영(2008). 유아의 전자미디어 사용 실태와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7**(1), 37-56.

김은미·정화음(200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 125-161.

김홍규·이수진(2006). 사이버공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세대 격차, 그 교육적 함의 -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4**(1), 351-373.

나병현·조난심·윤철경·박인우·박철희(2007). 미래 사회의 교육양식과 평가체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노용환·김정언·김원중(2009). 컴퓨터와 인터넷 채택 및 이용의 결정요인 분석: 고령화와 정보격차에 대한 시사점. **e-비즈니스 연구, 10**(4), 319-350.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박명희·이성림(2004). 부모자녀 간 정보격차에 따른 의사소통, 갈등, 소비자 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5), 11-25.

박소라(2005).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49**(4), 166-190.

박영숙·박경준·김진화·김성기·김기수(2007).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영태·이경님(2009). 부모 변인과 아동의 유능감 및 내재적 통제소재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4). 5-19

박영태, 현정숙(1997). 자기주도학습력의 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박용휘(2003).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척도의 타당화. 박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박웅기·박윤정(2009).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정보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韓國言論學報, 53**(2), 395-417.

방송통신위원회(2010.10.19). 한국, 초고속인터넷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 증명- 英 옥스퍼드 '초고속인터넷 품질연구'서 2년 연속 세계 1위 -
방송통신위원회(2010.11.17).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용격차 해소 추진.
안선경(2004). 부모의 시청지도가 자녀의 현실인식 및 시청행태에 미치는 영향. **Speech & Communication, 3**, 104-133.
안선회·유상덕·박윤재(2008). 사교육경감을 위한 학원관계법 정비 및 온오프 브렌디드 러닝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안선회·김승보·류영달·박인종·송재신·임걸·정광식·최성우(2010). 202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안선회·이종태·김영호·이민상·심완섭(2010). 화성시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우형진·최명일·이진형·구선영(2010).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교사·청소년의 인식도 조사. 여성가족부.
유지연·김희연(2005).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해소 이슈 재검토. **정보통신정책, 17**(15), 1-19.
이기식(200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정부의 역할.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윤옥(2008).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주도학습 지각도 검사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아동교육.**17(2). 5-18
이은미(2002). 부모의 시청지도가 초.중생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방송학회, 16**(3). 372-397.
이종각·박철희·안선회·이민경(2008). 교육국제화특구 미래 교육타운 조성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종규(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 교육과학사.
이현아·이기영(2001). 가정정보화가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31-47.
임동일, 신인현(2004). EBS 교육방송 강의의 과학교육적 타당성에 관한 재고. **한국지구과학회지 25(4)**. pp.232-241
전세경·김유정(2009).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자녀의 가정 내 미디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2**(1), 247-266.
정영호·이혜미(2010). 다면적 정보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 (2005년~2009년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27**(3), 227-263.
조연하·배진아(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3**, 37-74.
한국전산원(2001).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2009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한승희·정민승·나승일·김민호·신범석(2006). 미래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제 연구.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한상훈(2006).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2). 473-488.

매일경제(2010.8.24). "클라우드컴퓨팅에 승부건다."
연합뉴스(2010.3.2). "스마트폰 2-3년 내 '동시 통역사' 된다."
전자신문(2010.09.08). "모바일 증강현실과 스마트러닝"-박기현
한국경제(2010.10.25). "미래 대학교육은 '닌텐도 위'나 '무들' 같은 디지털이 지배" - 마이클 잭슨 세이핑투모로 회장의 미래예측.

국가통계포탈 홈페이지(http://www.kosis.kr/)
Ofcom 홈페이지(http://www.ofcom.org.uk/)

三河デジタルテレビ教育活用促進協議會(2010). (平成21年度 文部科學省委託 「デジタルテレビ等を活用した先端的教育·學習に關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1)) --(地域コンソーシアム報告). 視聽覺教育 64(5).
富山地域デジタルテレビ教育利用研究協議會(2010). 地上デジタルテレビ放送の教育活用(6)モデル事業報告-平成17年度 文部科學省委託「地上デジタルテレビ放送の教育活用促進事業」報告書より. 視聽覺教育 61(2).
黒木研史(2008). 第4回 地上デジタルテレビ放送の教育利用とその効果. Benesse教育研究開發センター.

Austin. E. W., Roberts, D. F., & Nass, C. I. (1990). Influences of family communication on children's television-interpretation process,
Baumrind D. (1977). Socialization determinants of personal agenc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Bybee, C., Robinson D., Turow, J. (198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for a special subgroup: Mass media schola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6*(3). 697-710.

Caffarella, R. S., & O'Donnell, J. M. (1987). Self-directed adult learning: A critical paradigm revisited." *Adult Education Quarterly*, 37(4), 199-211.

Campbell, D. T. & Fiske, D. W.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 81-105.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9.

Freebody P. (2004).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AGE Publications Ltd.

Johnson, B. & Christensen L. (2004). *Educational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approaches (2nd Ed.)*. Pearson Education, Inc.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 A guide to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 Follett Pub. Co.

Neuendorf, K. 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NTIA(1998). Falling through the Net II: New Data on the Digital Divide. Washington, DC: US Dept. Commerce.

NTIA(1999). Falling through the Net III: Defining the Digital Divide. Washington, DC: US Dep. Commerce.

NTIA(2000). Falling through the Net: Toward Digital Inclusion, A Report on Americans Access to Technology Tools. Washington, DC: US Dept of Commerce.

OECD(2001). Bridging the Digital Divide: Issues and Policies in OECD Countries. DSTI/ICCP(2001)/FINAL, http://www.oecd.org/dataoecd/10/0/27128723.pdf

Thomas L, MacMillan J, McColl E, Hale C & Bond S (1995). Comparison of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 methodology in examin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Social Sciences in Health, 1*, 206-219.

Van Dijk, Jan A G M(2005).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Society, Sage Publications.

Valkenburg, P. M., Krcmar, M., Peeters, A., & Marseille, N. M.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3, 52-66.

Warren, R., Gerke, P., & Kelly M. A. (2002), Is there Enough Time on the Clock? Parental involvement and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6*(1). 87-111.

부 록

1. 학부모-학생 시청 프로그램 안내 예시안
2. 자기주도학습일시 예시안
3. 사전검사 설문지
4. 사후검사 설문지
5. 학부모-학생 인터뷰 프로토콜
6. 교사 표적집단 인터뷰 프로토콜

1. 학부모-학생 시청 프로그램 안내 예시안

미술의이해와감상	미술의이해와감상01~15
음악의이해와감상	음악의이해와감상01~15
동양철학산책	동양철학산책01~20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제3세계의역사와문화01~20
한국문화와 유물유적	한국문화와유물유적01~20
보이지않는 문화전쟁	보이지않는문화전쟁01~03
김훈 자전거유럽을달리다	김훈 자전거유럽을달리다01~10
kbs	스폰지
	비타민
	위기탈출넘버원
	인간극장
	동물의왕국
sbs	생활의 달인
	런닝맨
	세상의이런일이
ebs	방과후영어
	초등|영재수학 요약
	EBS초등
	EBS초등 요약
	극한직업
	road diary
	문수의 fuuny voca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세계의교육현장
기타	명의
	다큐 - 숲의지배자
	다큐-다큐스페셜아마존
	샤크아일랜드
	여행백서
	정철영어

2. 자기주도학습일지 예시안

학 습 일 지

( ) 학년 ( ) 반 이름 ( )

작성날짜 : 2010 년 월 일

* 이번 한 주일 동안 디지털TV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_____

* 이번 한 주 동안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유익했던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록하세요.

1. 프로그램 이름
2. 프로그램 내용 (줄거리,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 인상적인 내용 등을 3줄 이상 구체적으로 쓰시오.)
3. 느낀 점(깨달은 점, 알게 된 점, 배운 점, 교과서와 관련해 도움 받은 점, 인상적이거나 재미있던 점, 아쉬운 점 등을 3줄 이상 구체적으로 쓰시오.)
4. 더 알고 싶은 점(다음 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등을 2줄 이상 구체적으로 쓰시오.)

3. 사전검사 설문지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 해소방안 실태조사 설문	**ID (기재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과제인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 해소방안 및 효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내용은 현재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디지털 케이블 TV를 어떻게 이해하며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은 <학생 작성 부분>과 <학부모 작성 부분>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작성 부분>은 학생이, <학부모 작성 부분>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가정 내 미디어 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응답내용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조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9월

연구진 대표 행복한학부모재단 본부장 강 소 연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행복한학부모재단 (전화) 02-734-9124 (이메일)
master@happyparents.or.kr

<학생 작성 부분>

A. 다음은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와 관련된 대한 생각을 묻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1. 아래의 기기들을 평소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사용기기	1일 기준						
	전혀 안본다	일주일에 한두번	하루에 1시간 미만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2-3시간	하루에 3-4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1. TV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2. 컴퓨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3. 휴대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문 2.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에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에 관심이 많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를 잘 다루는 편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도 누가 사용법을 알려만 준다면 잘 다룰 자신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B. 다음은 평소 TV 시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3. TV를 안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TV를 못 보게 해서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공부에 방해가 돼서 안 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볼 시간이 없어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tv가 없어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문 4. 여러분이 TV를 시청할 때 다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시청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안본다	거의 안본다	보통이다	자주 본다	매우 자주 본다
1. 뉴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1박2일같은 오락이나 음악 쇼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영화나 만화영화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동물의왕국 같은 시사와 다큐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스포츠중계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공부와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드라마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문 5. TV시청이 다음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를 보는 게 부모님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를 보는 게 부모님과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를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를 보는 게 친구와 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TV를 보면 아는 게 더 많아진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TV를 보는 게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TV를 보는 게 시간을 때우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8. TV를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9. 위의 이유들 외에 tv시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					

문 6. TV 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앞으로도 계속 TV를 시청할 계획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C. 다음은 디지털 케이블 TV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7. 다음 해당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디지털 케이블 TV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디지털 케이블 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학부모 작성 부분>

A. 다음은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와 관련된 대한 생각을 묻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1. 아래의 기기들을 평소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사용기기	1일 기준						
	전혀 안본다	일주일에 한두번	하루에 1시간 미만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2-3시간	하루에 3-4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1. TV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2. 컴퓨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3. 휴대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문 2.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에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에 관심이 많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를 잘 다루는 편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도 누가 사용법을 알려만 준다면 잘 다룰 자신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B. 다음은 평소 TV 시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3. TV 시청을 잘 안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볼 시간이 없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기타(					

문 4. 여러분이 TV를 시청할 때 다음의 내용들을 시청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안본다	거의 안본다	보통 이다	자주 본다	매우 자주 본다
1. 뉴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1박2일같은 오락이나 음악 쇼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영화나 만화영화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동물의왕국 같은 시사와 다큐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스포츠중계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공부와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드라마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문 5. TV시청이 다음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를 보는 게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를 보는 게 자녀와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를 보는 게 자녀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를 보는 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TV를 보는 게 정보나 학습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TV를 보는 게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TV를 보는 게 취미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8. 기타 ( )					

문 6. TV 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앞으로도 계속 TV를 시청할 계획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C. 다음은 디지털 케이블 TV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7. 다음 해당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디지털 케이블 TV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디지털 케이블 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문 8. 현재 가정에서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 "아니오"를 선택했을 경우 **문 8-1**로

문 8-1.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디지털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내 용	선택	
1. 디지털 케이블 TV가 뭔지 잘 몰라서	예 ___	아니오 ___

2. 가격이 부담되어서	예 ___	아니오 ___
3.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예 ___	아니오 ___
4.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예 ___	아니오 ___
5.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 ___	아니오 ___
6. 기타 ( )		

D. 다음은 신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9. (설문지에 같이 응하고 있는)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해당칸에 숫자로 표시해주세요.

① 남자_____ 명 ② 여자_____ 명

문 10. (설문지에 같이 응하고 있는)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 시 희망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①___ 유명 (명문) 대학교 ②___ 4년제 대학교
③___ 전문대학 ④___ 기타 ( )

문 11. 학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호자
가사 (전업주부)	①___
단순 노무직 단순 노무자, 행상, 가정부, 청소부 등	②___
생산 기능직 배관원, 도배원, 전기설비공, 제빵원 등	③___
판매 및 서비스직 도소매 판매 종사자, 공인중개사,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식당, 여관 등	④___
사무직 국가기관의 계장, 지방행정관청의 과장, 대기업의 과장 및 대리, 비서, 도서·우편 및 관련사무원, 금전출납원 고객안내 사무원(여행사 사원, 접수계원), 기타 사무직원(일반사무원) 등	⑤___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술공, 광학 및 전자장비 조작원, 안전 및 품질 검사원, 보건 준전문가(의료보조원, 위생사, 영양사, 안마사), 기타 교육 준전문가(학원강사, 자동차운전교관 등), 수사관(경찰수사관, 사립탐정), 아동복지상담원, 보육사 등	⑥___
전문가, 관리자 및 입법공무원 (과)학자, 교수, 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초·중등교원, 회계사, 변호사, 판검사, 국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 회사원, 입법공무원(국회의원, 장관, 지방의회 의원, 시장, 군수) 등	⑦___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⑧___
무직	⑨___
기타 ( )	⑩___

문 12. 귀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_____ ② 아니오_____

문 13. 학부모님의 학력은 어떻습니까?

내 용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1. 아버지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어머니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사후검사 설문지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 해소방안 설문	**ID (기재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과제인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 해소방안 및 효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내용은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설문에 응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번 TV활용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은 <학생 작성 부분>과 <학부모 작성 부분>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작성 부분>은 학생이, <학부모 작성 부분>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가정 내 미디어 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응답내용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조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12월

연구진 대표 행복한학부모재단 본부장 강 소 연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행복한학부모재단 (전화) 02-734-9124 (이메일)
master@happyparents.or.kr

<학생 작성 부분>

A. 다음은 <u>금번 TV활용교육의 결과</u> 여러분들의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와 관련된 대한 생각을 묻는 사항입니다.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1. 아래의 기기들을 최근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사용기기	1일 기준						
	전혀 안본다	일주일에 한두번	하루에 1시간 미만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2-3시간	하루에 3-4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1. TV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2. 컴퓨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3. 휴대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문 2.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에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에 관심이 많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를 잘 다루는 편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도 누가 사용법을 알려만 준다면 잘 다룰 자신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B. 다음은 TV 시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3. TV를 안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TV를 못 보게 해서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공부에 방해가 돼서 안 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볼 시간이 없어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tv가 없어 안본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문 4. 여러분이 TV를 시청할 때 다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시청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안본다	거의 안본다	보통이다	자주 본다	매우 자주 본다
1. 뉴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1박2일같은 오락이나 음악 쇼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영화나 만화영화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동물의왕국 같은 시사와 다큐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스포츠중계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공부와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드라마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문 5. TV시청이 다음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를 보는 게 부모님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를 보는 게 부모님과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를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를 보는 게 친구와 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TV를 보면 아는 게 더 많아진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TV를 보는 게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TV를 보는 게 시간을 때우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8. TV를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9. 위의 이유들 외에 tv시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

문 6. TV 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앞으로도 계속 TV를 시청할 계획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C. 다음은 디지털 케이블 TV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7. 다음 해당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디지털 케이블 TV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디지털 케이블 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학부모 작성 부분>

A. 다음은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와 관련된 대한 생각을 묻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1. 아래의 기기들을 최근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해 주세요.

사용기기	1일 기준						
	전혀 안본다	일주일에 한두번	하루에 1시간 미만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2-3시간	하루에 3-4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1. TV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2. 컴퓨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3. 휴대폰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⑥___	⑦___

문 2.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에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에 관심이 많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를 잘 다루는 편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도 누가 사용법을 알려만 준다면 잘 다룰 자신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기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B. 다음은 평소 TV 시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3. TV 시청을 잘 안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보고 싶은 채널이 없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볼 시간이 없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기타(					

문 4. 여러분이 TV를 시청할 때 다음의 내용들을 시청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안본다	거의 안본다	보통 이다	자주 본다	매우 자주 본다
1. 뉴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1박2일같은 오락이나 음악 쇼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영화나 만화영화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동물의왕국 같은 시사와 다큐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스포츠중계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공부와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드라마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문 5. TV시청이 다음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를 보는 게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TV를 보는 게 자녀와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TV를 보는 게 자녀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4. TV를 보는 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5. TV를 보는 게 정보나 학습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6. TV를 보는 게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7. TV를 보는 게 취미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8. 기타 ( )					

문 6. TV 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앞으로도 계속 TV를 시청할 계획이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C. 다음은 디지털 케이블 TV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7. 다음 해당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2. 디지털 케이블 TV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3. 디지털 케이블 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 학부모-학생 인터뷰 프로토콜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 방안 및 효과 연구

반구조화된 설문지 : 자녀 및 학부모용
* 모든 질문은 자녀 - 학부모순으로 공통적용

I. 태도에 관한 질문

- 이번 처치(방송시청 및 자료제출)를 통해 자녀 및 학부모의 TV활용교육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방식 예 :
학생 - 너는 이번 기간동안 TV로 공부하면서 이 방법이 얼마나 좋다라고 생각했니?
학부모 - 어머님(아버님)은 이번 기간동안 TV로 자녀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II. 이해에 관한 질문

- 이번 처치(방송시청 및 자료제출)를 통해 자녀 및 학부모의 TV활용교육에 대한 이해수준이 향상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방식 예 :
학생 - 너는 이번 기간동안 TV로 공부하면서 이런 교육방법들에 대해 더 잘 알게되었니? 어떻게?
학부모 - 어머님(아버님)은 이번 기간동안 TV로 자녀가 공부하면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III. 활용에 관한 질문

- 이번 처치(방송시청 및 자료제출)를 통해 자녀 및 학부모의 TV활용교육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방식 예 :
학생 - 너는 이번 기간동안 TV로 많이 공부가 되었니? 어떻게?
학부모 - 어머님(아버님)은 이번 기간동안 자녀가 TV를 활용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IV. 기타 질문

- 이번 처치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방식 예 :
학생 - 이번 기간동안 TV로 공부하면서 어머니(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셨서?
학부모 - 어머님(아버님)은 이번 기간동안 자녀가 TV 활용교육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 TV활용 교육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방식 예 :
학생 - 너는 이번 기간동안 TV로 공부하면서 무엇이 좋았니?
학부모 - 어머님(아버님)은 이번 기간동안 자녀가 TV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측면중 어떤게 마음에 드셨나요?

- TV활용 교육의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방식 예 :

학생 - 너는 이번 기간동안 TV로 공부하면서 무엇이 싫거나 힘들었니?
학부모 - 어머님(아버님)은 이번 기간동안 자녀가 TV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측면중 불편한 점이나 싫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어떤 것이었나요?

- TV활용 교육의 발전에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방식 예 :
학생 -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할 때 무엇이 좀 더 잘되있으면 좋을까? 뭐가 있으면 좀 더 잘 공부하게 될 것 같을까?
학부모 - TV활용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점이 지원이 되면 좋을까요? 학교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6. 교사 표적집단 인터뷰 프로토콜

가정 내 미디어격차 해소 방안 및 효과 연구

반구조화된 설문지 : 교사용 Focus Group Interview

I. 태도에 관한 질문

- 학부모와 학생의 미디어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반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양상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번 처치(방송시청 및 학습일지 제출)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TV활용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번 처치(방송시청 및 학습일지 제출)를 통해 학부모들의 TV활용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I. 이해에 관한 질문

- 이번 처치(방송시청 및 자료제출)를 통해 학부모들의 TV의 교육적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II. 활용에 관한 질문

- 이번 처치(방송시청 및 자료제출)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TV를 교육적으

로 활용하는 것에 동참하였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V. 학교 및 교사역할

-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TV(디지털케이블TV)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TV활용교육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TV활용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TV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미디어 격차 해소 차원에서의 미디어 활용교육을 방안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의 **학교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미디어 격차 해소 차원에서의 미디어 활용교육을 방안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의 **교사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10-29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Gap) 해소방안 및 효과연구

발 행 일 2010년 12월 (비매품)

발 행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

인 쇄 처 (주)티아이에스엠 070-8254-0894